제9회
항공문학상
수상작품집

제9회 항공문학상 접수결과

- 제9회 항공문학상은 항공문화 저변 확대 및 대국민 홍보 제고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게 되었고,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시(동시 포함), 소설, 수필로 구성된 3개의 공모부분을 일반부, 중고등부, 초등부로 나누어 온라인으로 총 719편의 작품을 접수하였습니다.

-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문학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1차(예심), 2차(본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50편의 수상작품을 선정하여 발표 하였습니다.

- 올해 총 상금 규모는 1,735만원을 포함하여 국내·외 왕복항공권 등이 부상으로 지급되며, 일반부 대상, 일반부 최우수상 입상자에게는 한국문인협회 입회 자격이 특전사항으로 부여됩니다.

제9회 항공문학상 접수 결과

(단위 : 편수)

구분	시	소설	수필	합계
일반부	302	54	116	472
중·고등부	153	8	15	176
초등부	62	3	6	71
계	**517**	**65**	**137**	**719**

주최/주관 한국항공협회 Korea Civil Aviation Association

후원 국토교통부 KAC 한국공항공사 Incheon Airport KOREAN AIR ASIANA AIRLINES AIR BUSAN JEJUair JINAIR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제9회 항공문학상 수상자 명단

(50명, 성명 가나다 순)

구 분	시상내역	성 명	공모부문	작품명
일반부	대상	박은주	소설	오후 다섯 시, 두 가지 착각 조차도
	최우수상	최형만	시	글뤽 아우프(glück auf)
	우수상	국술호	소설	경착륙
		김지원	수필	비행으로의 초대
		박선영	수필	날개
		배문석	시	고니의 하늘
		신경희	수필	밥 주잖아요
		오미향	소설	세비아의 밤
		최일걸	시	여객기에서 독서
중고등부	최우수상	문시우	수필	4시간 반 여행
	우수상	김민수	시	공항에서 잡히는 것
		신로아	시	다정한 비행
		이율희	시	하늘의 동화 – 비행기 덕분에
		이혜인	수필	종이비행기 아톰
		임수아	소설	나비
		정가은	소설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비행
		천일정	소설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초등부	최우수상	주송하	수필	프리미어리그 직관
	우수상	김선율	수필	이모는 덜렁쟁이
		문시윤	수필	가족과 함께 보내는 특별한 시간
		문하은	소설	숨 고르기
		박예담	수필	할아버지의 소원은 이루어진다
		양나예	시	그리운 아빠 만나러 가는 날
		오승아	시	하늘 놀이터
		이찬희	시	공항의 우리들

구 분	시상내역	성 명	공모부문	작품명
초등부	장려상	김세은	시	물고기 비행기
		김시은	수필	고마워 나에게 다른 세상을 보여줘서
		김아인	시	출발
		김윤하	시	파란색 의자
		김은수	시	공항대합실에서
		김효재	시	움직이는 미술관
		류서윤	시	좌석이 뭐가 중요해
		문수빈	시	여행의 묘미
		박채원	시	날아라
		소경한	시	여행의 첫 방문지
		신서우	시	비행기에서 맛본 세상
		심동하	시	비행기가 이륙했다 착륙하자
		안도윤	시	비행기 지도
		이다인	시	하늘길이 열리다
		이연준	수필	잊지 못할 추억
		이지환	시	난 너가 부럽다
		정재우	소설	우리의 비행기가 날기까지
		정지홍	시	비행이란
		정하빈	시	행복한 헬리콥터에게
		차정우	시	나의 첫
		최인서	시	비행기 맛집
		한다인	시	여권 도장 깨기
		허샛별	소설	하니가 처음 비행기 타는 법
		황서준	시	첫걸음
		황호진	시	비행기에서 시작된 여행

CONTENTS

목 차

일 반 부

대상	소설	오후 다섯 시, 두 가지 착각 조차도 | 박은주	10
최우수상	시	글뤽아우프(glück auf) | 최형만	24
우수상	소설	경착륙 | 국술호	26
	수필	비행으로의 초대 | 김지원	38
	수필	날개 | 박선영	43
	시	고니의 하늘 | 배문석	47
	수필	밥 주잖아요 | 신경희	49
	소설	세비아의 밤 | 오미향	53
	시	여객기에서 독서 | 최일걸	71

중고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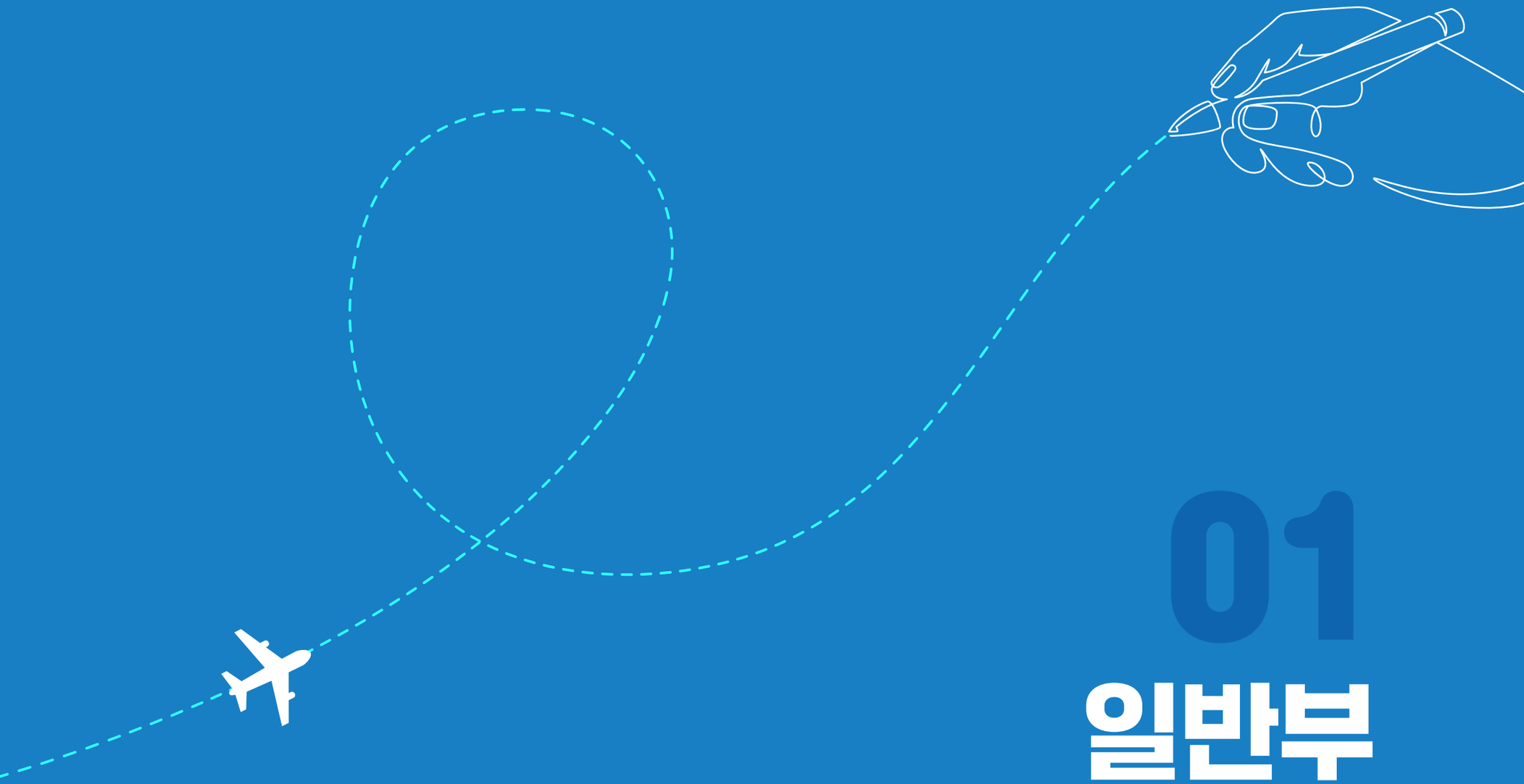
최우수상	수필	4시간 반 여행 | 문시우	76
우수상	시	공항에서 잡히는 것 | 김민수	80
	시	다정한 비행 | 신로아	81
	시	하늘의 동화 – 비행기 덕분에 | 이율희	83
	수필	종이비행기 아톰 | 이혜인	84
	소설	나비 | 임수아	88
	소설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비행 | 정가은	105
	소설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 천일정	112

초 등 부

최우수상	수필	프리미어리그 직관 | 주송하	126
우수상	수필	이모는 덜렁쟁이 | 김선율	129
	수필	가족과 함께 보내는 특별한 시간 | 문시윤	131
	소설	숨 고르기 | 문하은	137
	수필	할아버지의 소원은 이루어진다 | 박예담	156
	시	그리운 아빠 만나러 가는 날 | 양나예	160
	시	하늘 놀이터 | 오승아	161
	시	공항의 우리들 | 이찬희	162
장려상	시	물고기 비행기 | 김세은	163
	수필	고마워 나에게 다른 세상을 보여줘서 | 김시은	164
	시	출발 | 김아인	169
	시	파란색 의자 | 김윤하	170
	시	공항대합실에서 | 김은수	171
	시	움직이는 미술관 | 김효재	172
	시	좌석이 뭐가 중요해 | 류서윤	173
	시	여행의 묘미 | 문수빈	174
	시	날아라 | 박채원	175
	시	여행의 첫 방문지 | 소경한	176
	시	비행기에서 맛본 세상 | 신서우	177
	시	비행기가 이륙했다 착륙하자 | 심동하	178
	시	비행기 지도 | 안도윤	179
	시	하늘길이 열리다 | 이다인	180
	수필	잊지 못할 추억 | 이연준	181
	시	난 너가 부럽다 | 이지환	184
	소설	우리의 비행기가 날기까지 | 정재우	185
	시	비행이란 | 정지홍	190
	시	행복한 헬리콥터에게 | 정하빈	191
	시	나의 첫 | 차정우	192
	시	비행기 맛집 | 최인서	193
	시	여권 도장 깨기 | 한다인	194
	소설	하니가 처음 비행기 타는 법 | 허샛별	195
	시	첫걸음 | 황서준	205
	시	비행기에서 시작된 여행 | 황호진	206

제 9 회
항공문학상 수상작품집

제9회
항공문학상
수상작품집



01
일반부

| 소설 |

오후 다섯 시, 두 가지 착각 조차도

대 상 | 박은주

하필 바지락이 있다. 다행히 바지락이 있다고 해야 하나. 남편이 좋아하는 미역국은 소고기를 넣어 끓인 국이다. 눈을 씻고 찾아도 냉장고에 소고기 같은 건 없다(장을 보지 않았으니 없는 게 당연하다). 바지락마저 없다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미역국을 끓여야 했을까, 할 수 없이 남편의 생일 미역국을 건너뛰어도 좋았을까.

오늘 새벽 예정보다 이틀이나 먼저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다. 지난밤 자정이 넘어 잠든 내가 남편이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를 놓친 모양이다. 인기척이 느껴져 눈을 뜨니 남편이 재킷을 막 벗어 옷걸이에 거는 중이다. 많이 피곤했나 보구나, 다정하다고 해도 무방할 목소리였다. 일이 일찍 끝나서 그냥 올라왔어, 남편의 대답은 빨랐다.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올라왔냐는 질문은 뱉을 필요가 없어졌다. 자, 자라구 어서 자, 침대에서 머리를 일으키려는 나를 향해 남편이 손사래를 친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남편이 존재한다. 다정한 남편과 그렇지 않은 남편. 음.. 이건 분명 다정한 남편 쪽이다.

잠옷을 갈아입은 남편이 침대로 들어와 곧 코 고는 소리를 낸다. 곤했겠지, 이 시각에 도착한 걸 보면 자정 넘어 출발했다는 건데 회사에 급한 일이 있는 건가. 그건 그렇고 오늘이 남편 생일이다. 출장지에서 생일을 보내게 생겼다고 투정하듯 얘기하는 남편에게 갖고 싶은 게 있나 물었다. 딱히 선물하겠다는 생각으로 한 말이 아니었는데(필요한 게 없다고 말할 확률이 85퍼센트라고 생각했다) 의외였다. 가볍게 입을 여름 셔츠를 사 달라고 했다. 지난 주말 집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파스타를 먹을 때 선물을 건넸다. 열어보라는 눈짓을 하자 남편이 포장지를 뜯었다. 장식용 리본이 안 풀리자 남편이 투덜댔다. 내가 종이 박스 위로 가볍게 리본을 벗겨주니 남편이 멋쩍게 웃었다. 백화점 점원에게 선물용 포장을 부탁했더니 좀 과한 모양새가 되어버렸다. 고작해야 반팔 버튼다운 셔츠인데 박스도 크고 붉은 리본도 튀었다. 어쨌든 연푸른색 셔츠를 보고 남편이 좋네, 하면서 웃었던 것 같다. 굳이 얘기하자면 싫지도 좋지도 않은 웃음이었다.

생일 아침에 토스트와 커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법도 없지 않나. 지난주에 이미 선물도 주고 외식도 했단 말이지. 미역이야 있지만 무얼 넣어 미역국을 끓인다는 거지? 생일 아침에는 밥 거르지 말게 하라는 시어머니 얘기가 아니라도 10년 넘게 생일 미역국 정도는 끓여냈다. 내심 이번 남편 생일에는 아침 일찍 미역국 끓여 상 차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쾌재를 불렀다. 미역국을 끓여주지 않는다고 남편이 화 낼 일이야 없겠지만 습관이란 게 이토록 무서워 하던 일을 이유 없이 안 하기도 참 이상하다. 무심한 남편이지만 언젠가 친구 부부에게 아내가 생일이면 거르지 않고 정성껏 아침밥을 차려준다는 말을 자랑처럼 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오늘은 사정이 좀 다른 건 사실이다. 예정에 없이 남편이 일찍 돌아왔다는 것이지. 그것도 꼭두새벽에.

잠이 한참 달아나버려 돌아올 수 없는 지경이 되자 이불을 걷고 발딱 일어났다. 비장한(나도 모르게 그리되었다) 걸음으로 부엌에 갔다. 냉장고에 달렸다. 전적으로 냉장고에 맡기기로 한다. 무언가 나오면 미역국을 끓이고 아니면 마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한 일이었다니.

냉동실을 뒤지다 보니 하얀 비닐봉지에 담긴 바지락이 보인다. 아, 탄식 같은 한 마디가 새어 나온다. 이런 게 있었구나. 언제 산 것인지도 모를 꽁꽁 언 바지락을 꺼내니 돌덩이보다 단단하다. 게임 끝.

미역을 불리고 해동시킨 바지락을 씻어 소쿠리에 담아두었다. 젖은 손을 대충 앞치마로 쓱쓱 비비고 스마트폰에 다운 받은 어플로 FM라디오를 켰다. 기차는 8시에 떠나네, 라는 그리스 노래가 흐르고 있다. 국냄비에 물기가 빠진 바지락과 미역을 넣어 국간장과 참기름을 두르고 볶았다. 아그네스 발차의 흐느끼는 듯한 음성이 미역 볶아지는 소리에 묻혀 빗소리로 들렸다. 적당히 볶은 미역에 잠기도록 물을 붓고 뚜껑을 덮었다. 부엌창을 열어 손을 내밀어보니 비가 내리고 있지는 않다. 식탁 의자를 빼고 앉아 다글다글 소리를 내며 끓는 국을 지켜본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생일상을 차리기로 했는데 달랑 미역국만 올릴 수는 없잖아. 냉장고를 열어 찬거리를 살펴봐야 한다. 새송이 버섯과 애호박이 당첨되었다. 버섯으로 나물 흉내를 내고 애호박을 얇게 썰어 전을 부치면 생일상 분위기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급하게 하느라 전이 예쁘지 않다. 접시에 호박전을 올리고, 조그만 양념장 종지도 놓았다. 버섯나물과 몇 가지 밑반찬을 곁들였다. 남편을 깨우기 위해 안방으로 향했다. 침대에 남편은 없고 헝클어진 이불만 남았다. 세찬 빗소리가 욕실에서 들린다. 씻어요? 욕실 문을 두드리며 남편을 부른다. 샤워기 소리가 어찌나 요란한지 두 번을 더 두드리고서야 남편이 대답한다. 남편은 언제

일어난 것일까, 아침잠이 많아 5분만 더, 3분만 더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인데. 게다가 오늘은 새벽에 도착해 3시간도 채 못 잤을 텐데.

남편이 입고 나갈 옷들을 침대에 올려두고 부엌으로 나간다. 가스렌지 불을 켜고 식어버린 미역국을 데운다. 밥을 담아 식탁에 놓으니 남편이 나온다. 말없이 식탁에 앉은 남편이 미역국이 나오길 기다리는 눈치다. 남편은 오늘 당연히 미역국을 먹게 될 줄 알았다는 뜻일까. 예정에 없이 한마디 언질도 없이 생일날 새벽에 도착한 사람의 기대치고는 좀 뻔뻔하다. 알맞게 데워진 미역국을 남편 앞에 놓아주고 내 것도 담는다. 언제 미역국을 끓였나, 깜짝 놀라는 시늉까지는 아니라도 무언가 비슷한 반응이라도 있어야 할 테지만 기대가 컸다. 장을 못 봐서 소고기 미역국을 못 끓였어, 기다리다 못한 내가 입을 열었다. 알아, 먹어보면 알지, 남편은 소고기가 아니어서 싫다는 내색도 안 했지만 그렇다고 고마운 얼굴도 아니다. 옆구리를 찔러봤자 절 받기는 틀렸구나 싶어 나는 마지못한 축하를 했다. 생일 축하해. 미역국을 뜨다 말고 나를 보며 남편이 축하는 무슨.. 애들도 아니고. 남편은 간단히 고맙다고 한마디 하면 될 걸 애써 시큰둥한 답을 한다. 축하는 애들만 받는 것이 아니지만 남편이 많이 피곤해서 심하게 무심해진 것으로 친다.

남편이 출근하고 반도 넘게 남긴 그의 국그릇을 비우며 괜한 수선을 피웠나 생각한다. 남편이 미역국을 기대하지 않았던 게 분명해. 식탁을 치우고 그릇들을 씻어 식기 건조기에 놓았다. 이왕 끓였으니 먹어주는 것 같은 남편 표정이 떠올라 행주를 짜는 손에 힘이 들어간다. 앙, 소리가 나게 행주를 비틀어 짜서 널었다. 저녁 약속이 있다고 했으니 남은 미역국은 모두 내 차지다.

안방에는 허물 벗듯 벗어던진 잠옷이며 수건이 남편의 동선을 그대로 보여준다. 침대에 걸쳐진 잠옷을 옷걸이에 걸고 축축한 수건은 빨래 바구니에 넣는다. 화장대 위 스킨이 뚜껑이 열린 채로 놓인 걸 보고 고개가 갸웃해진다. 무엇이 그리 바빴나. 비교적 꼼꼼한 편인 그가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일이다. 뚜껑을 닫아 제자리에 두고 머리빗이며 헤어 제품들도 정리한다. 티슈를 뽑아 화장대 위 먼지를 훔치다 말고 잠깐 골똘해진다. 무언지 불편한 이 기분에 대해 정리해 봐야 할 것 같다. 화가 나거나 서운한 것일까. 무엇 때문에 내가 화가 났지? 예고도 없이 새벽에 도착해서? 그것 때문이라면 화난 감정하고는 다르다. 끓이지 않아도 될 미역국에 대해 고민해야 해서? 미역국을 끓였는데 고마워하지 않아서? 그건 아무래도 조금은 서운했다고 해야겠다. 내가 서운한 게 맞구나. 이게 서운한 감정이라는 거지?

대학 4학년 겨울 방학에 나와 지혜와 세경, 우리 셋은 연말을 따뜻한 곳에서 보내기로 계획을 세웠다. 한 달 전에 이미 특가로 나온 방콕행 비행기 표를 사 놓았고 풀장이 딸린 리조트 호텔도 예약해 두었다. 사정이 나쁘지 않은 지혜는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으로 회비를 충당했지만 나와 세경은 한 학기 꼬박 일주일에 두 번 아르바이트를 해서 여행 경비를 모았다. 세경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손목이 시리게 스쿱으로 아이스크림을 퍼야 했다. 나도 물론 학원에서 고등학생 아이들 국어 시험지를 채점하느라 눈알이 뱅글뱅글 돌 지경이었다.

지혜는 떠나기 두 주 전에 방송국 보조 작가로 지원한 곳에서 연락이 왔다. 면접일이 하필 우리가 방콕에 있게 될 날이었다. 거의 울 뻔한 얼굴로(좋은 건지 아쉬운 건지) 그 소식을 전하는 지혜에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다.

"나 그냥 방콕 갈까? 면접 본다고 꼭 합격하는 것도 아니잖아"

"안 돼(세경과 내가 그야말로 동시에)"

축하는 이르지만 잘 될 거라고, 다음에 꼭 같이 가자고 했다. 우리가 선물 사 올 테니 면접 잘 보라는 말로 지혜 입을 막았다. 세경과 나는 둘이서 여행 준비를 했고, 세경은 수영복을 두 개나 샀다. 출발일이 일주일이나 남았지만 우리 둘은 이미 여행 가방을 다 싸 두었다. 이틀 후 지혜에게 전화가 걸려왔을 때는 잠깐 망설이다 받았다. 얘가 또 뭐라고 투정을 부리려나, 하고. 지혜 목소리는 심각했고 내용인즉슨 세경이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였다. 세경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순간 방콕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지혜에게 내색할 수는 없었다. 지혜와 시간을 맞춰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빈소로 향했다.

방콕은 결국 혼자 가게 되었다. 싸게 구하느라 환불이 되지 않는 호텔을 예약 한데다 특가로 나온 비행기 표도 포기하기 아까웠다. 세경은 할머니 상중에도 새로 산 수영복을 내게 챙겨주며 가지고 가라고 했고 지혜는 향기가 좋은 입욕제(우리가 함께 가면 쓰려고 샀다고 했다)를 주면서 응원했다. 막중한 임무를 맡기듯 그녀들은 한가지씩 내 손에 쥐어주고 나를 방콕으로 보냈다.

떠나기 전날 밤까지 망설였다. 혼자 가는 여행이 처음이다 보니 설렘보다는 걱정이 앞섰다. 출발일이 다가올수록 낯선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부정적인 경우의 수가 머리에서 끝도 없이 생산되었다. 여권이나 지갑을 도둑맞고, 바가지 택시 요금을 내게 된다거나 하는 것쯤은 그나마 들어줄 만한

내용이다. 하다하다 심지어 넘어져서 이빨이라도 깨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내용은 내가 생각해도 터무니없어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지혜와 세경은 내가 그렇게 창의적인 사람인지 몰랐다며 탄복할 지경이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항공사 카운터에 짐을 보내고 티켓을 받았다. 부탁한 창쪽 자리와 탑승구, 탑승 시각을 확인시켜 주는 항공사 직원의 나긋한 목소리가 갑자기 설렘을 부추겼다. 단체 여행객들이 선 긴 줄을 빠져나와 전화기 로밍 신청을 하고, 약국에 들러 소화제와 두통약을 샀다. 상비약은 이미 준비해서 수트케이스에 넣어 짐으로 보냈지만, 기내에서 필요할 것 같아(예민한 위장을 소유한 사람의 자세라고 할까) 구입했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들어가니 다른 세상에 진입한 느낌이 들었다. 몇 미터 거리를 사이에 두고 이토록 다른 공기라니, 기분이 확연히 달라진 내가 벌써 낯설었다. 거리 양쪽에 늘어선 면세점을 둘러보다 엄마에게 줄 향수 한 병을 골랐다. 탑승구 쪽을 향해 걷는데 통통통 공이 하나 굴러왔다. 눈이 커다란 외국 남자아이가 뒤따라 뛰어왔다. 내 앞으로 다가온 공을 가볍게 아이 쪽으로 차 주었다. 땡큐, 아이의 수줍은 웃음이 이국적이다.

탑승이 시작되었고 좌석 번호를 확인하고 자리에 앉아 벨트를 메고 창밖을 보니 어둠 속에서 비행기 날개가 보였다. 휴대폰으로 날개를 찍어 세경과 지혜에게 보내고 전화기를 비행기 모드로 바꾸는 사이 한 남자가 백팩을 머리 위 선반에 올리고 내 옆자리에 앉았다. 남자는 몇 분 후에 다시 일어나 재킷을 벗어 접은 다음 선반에 올렸다. 곧 이륙을 알리는 스튜어디스의 안내 방송이 들렸다

안전벨트 싸인이 꺼지고 기내식 서비스가 시작되자 기내가 술렁이기 시작했고 나도 덩달아 아이처럼 들떴다. 메뉴라고 해봐야 고작 두 가지이지만 내 차례가 오기 전까지 적어도 5분은 고민했다. 닭고기 요리를 먹을까 비빔밥을 먹을까. 세경과 같이 왔다면 한 가지씩 먹어도 좋았을 텐데. 닭고기와 맥주 한 캔을 주문했다. 밍밍한 소스에 버무려진 그저그런 닭고기였지만 맛과는 상관없이 기분으로 먹어치웠다. 하늘 위의 식사,라는 제목을 붙이고 맥주도 탈탈 털어 깔끔히 마셨다. 덕분에, 다른 승객들 식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요의가 느껴졌다. 옆좌석 남자는 닭고기를 시켜 반도 못 먹고 빵과 요거트만 먹은 눈치다. 식사가 끝나고 기내용 면세품 판매가 시작되었다. 남자가 주문한 상품을 받는 사이 나는 화장실에 다녀왔다. 키가 큰 남자가 다리를 한껏 옆으로 모아 내가 나가기 쉽게 만들어주었고, 돌아와 앉을 때는 미안하게도 아예 복도에 서 있다 내가 들어가길 기다려주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싶으면서도 고맙다는 얘기에 진심을 담느라 나도 모르게 가슴에 손을 모았다.

식사와 면세품 판매가 끝나자 승객들이 쉬도록 소등해서 기내가 어두웠다. 별을 볼 수 있다면 좋았겠지만 창밖에는 비행기 날개에서 깜박이는 불빛이 별들을 대신해서 아름다웠다. 독서등을 켜고 수첩을 꺼냈다. 무엇이라도 기록하고 싶었고 기억하고 싶었다. 분명 펜을 넣었는데 가방을 아무리 뒤져도 비행기 타기 전에 샀던 소화제와 초콜릿, 손수건, 여행용 책자, 휴대용 화장지 같은 것들만 나왔다. 센티했던 기분이 짜증으로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나 순간적이어서 놀랐다.

"이것 쓰세요."

남자가 선반에 있는 백팩을 꺼내더니 새것으로 보이는 포장지를 소리 나게 뜯었다. 세 개가 한 묶음인 선물용 볼펜 하나를 내게 건넸다. 말릴 사이도 없이 그야말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나한테 주기 위해 선물용 포장지를 뜯는다는 생각이 없었으므로 말릴 생각도 하지 못했다.

"아니예요, 아니예요, 괜찮아요."

과장되게 손사래를 치면서 내가 말했다. 사실 좀 당혹스럽기도 했고 미안하기도 했다. 바로 얼마 전에 기내 면세품으로 산 것이 분명해 보였다.

"파일럿이 꿈인 조카 주려고 산건데 생각해 보니 좀 유치한 선물 같아서요. 볼펜이 세 개나 들어있네요. 하나 쓰세요."

선뜻 내가 받지 못하자 푸른색 비행기 모양 볼펜을 내 손에 강제로 쥐어주다 싶게 넘겼다. 짧은 메모를 하고 볼펜을 돌려주자 남자는 가지라고 했고 더 이상 사양하기도 멋쩍어 비행기 모양 볼펜을 가방에 넣었다. 망설이다 가방 속 초콜릿을 꺼내 건네자 남자는 답례품인가요? 하면서 허허 웃었다. 웃음이 소탈해 싫지 않았다. 방콕에는 혼자 가는지 물었고 나는 지혜와 세경이 떨어져 나가게 된 사연을 짧게 들려주었다. 남자는 별것도 아닌 내 얘기에 유쾌해졌고 별로 고급도 아닌(한국의 아무 편의점에서나 살 수 있는 것이었다) 초콜릿을 아주 맛있게 먹었다. 이 초콜릿 진짜 맛있는데요, 하는 멘트는 역력히 과장이었다. 자신은 체인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방콕에 체인점 개설 문제로 관계자와 미팅이 있다고 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비행기는 방콕 수안나폼 공항에 착륙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아 호텔로 가는 택시를 타기 위해 공항 밖으로 나왔다. 간신히 택시 타는 곳을 찾았지만 택시를 탈 수 없었다. 줄을 서는 곳도 없고 손짓을 해 택시를 불러도 가까이 오지 않았다. 자정이 가까웠고 불안감에 수트케이스 바퀴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여기 왜 이러고 있어요? 내

초콜릿을 받아 먹었던 남자 목소리가 얼마나 반갑던지. 남자는 무슨 티켓 같은 것을 뽑아오더니 번호순으로 택시를 타야 한다고 가르쳐주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도 전에 내 손에서 전화기를 뺏더니 자신의 번호를 찍었다. 3일 후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니 그 전에 혹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하라며 손을 흔들고 돌아섰다.

공항에서 택시 타는 법도 모르고 헤매기는 했지만 무사히 호텔에 도착했고, 일주일 휴가도 잘 마치고 귀국했다. 남자 도움 따위는 필요 없었고, 귀국해서는 남자를 기억할 일이 없었다. 세경과 지혜는 여행지에서 생길 수 있는 로맨틱한 일을 기대하는 듯했지만 나는 그녀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에게서 전화가 온 건 이듬해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눈발이 날리던 오후였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을지 말지 몇 초쯤 고민했다.

"내 볼펜 돌려주셔야죠?"

여보세요, 하고 내 목소리가 끝나기 바쁘게 되돌아온 말이 볼펜을 돌려달라는 거였다. 이번엔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남자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침묵하는 사이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 내일 돌려주세요."

피치 못할, 이라는 표현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다음 날 남자가 문자로 보낸 카페 주소로 푸른색 비행기 볼펜을 가지고 나갔다. 설마 정말로 볼펜을 받겠다고 나를 부른 건 아니겠지만 다행히 여권을 넣어 둔 서랍에 볼펜이 있어서 가지고 갔다. 카페 오후 다섯 시,는 인사동 초입에 있었고 어렵지 않게 찾았다. 오후 다섯 시를 몇 분 남기고 오후 다섯 시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키 큰 남자가 내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기라도 하듯 창 쪽 자리에 서 있었다.

"오랜만이에요"

"볼펜 나 준 거 아니었어요?"

인사 대신 따지듯 묻는 내 질문에 어깨를 으쓱하는 것으로 그가 어색함을 감췄다. 우리 둘은 따뜻한 커피를 시켜 대화가 끊길 때마다 두 손으로 커피잔을 감싸 입으로 가져갔다. 커피가 식어버려 온기가 없어질 무렵 그가 다시 급하게 물었다.

"오후 다섯 시가 낮이에요 저녁이에요?"

"어두워졌네요, 이렇게 어두운데 낮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창밖을 내다보며 내가 무슨 이런 질문을 하나, 하는 얼굴로 대답했다.

"그렇죠, 저녁 맞죠, 저녁밥 먹으로 갑시다."

낯선 공기가 불편했던 터라 나도 그를 따라 오후 다섯 시에서 거리로 나왔다. 카페 맞은편 2층 불빛이 따뜻해 보이는 파스타 가게에서 우리는 스파게티와 피자를 맛있게 먹고 헤어졌다. 그 후로 두 해를 더 만나고 그와 나는 부부가 되었다.

정오가 지났지만 점심 생각이 없어 커피만 홀짝이다 부엌에 있는 국냄비에 생각이 닿았다. 다른 재료와 달리 미역은 불려서 만들어야 하다 보니 양을 가늠하지 못하면 낭패다. 하필 오늘(사실은 자주) 불린 미역을 보고 양이 많은 것 같아 조금 남길까 하다 마저 끓여버렸다. 버리기는 아깝고 보관하자니 냉장고에 머물다 결국 음식쓰레기통으로 갈 게 뻔했다.

국을 데워 밥을 먹었다. 아침에 먹었던 반찬들이 그대로 식탁에 올랐고 남편만 빠졌다는 생각에 웃음이 났다. 피곤했을 것이다, 잠을 제대로 못 잤으니 입맛이 있을 리도 없을 것이고. 남편이 없는 식탁에서 불현 남편을 소환했다. 급히 올라온 이유가 남편에게 불편한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최근 그의 태도를 떠올려보는 지경에 이르렀다. 남편이 요즘 어땠지? 친절한 듯 무심했고 꼼꼼한 듯 덜렁댔다. 남은 국에 밥을 말았다. 아침엔 몰랐는데 이제야 국이 짠 건 기분 탓인가. 어쨌든 요점정리가 끝난 기분으로 밥 한 그릇을 다 비웠다.

수마트라 원두를 약간 거칠게 갈아 여과지에 흘리지 않게 담아 뜨거운 물을 원을 그리며 정성스레(사실은 시간을 보내야 해서 일부러 느릿느릿) 떨어뜨렸다. 보기 좋게 거품이 만들어졌다. 얼굴을 원두 가까이 가져가서 손바닥 부채질로 향을 코끝까지 전달했다.

몇 주 전에 남편이 수마트라 원두를 가지고 들어온 날은 비가 내렸지. 무얼 사들고 오는 사람이 아닌 데다 원두 같은 건 더구나 무얼 마셔도 그게 그것인 남자다. 커피를 나처럼 즐기지 않고 입맛도 예민한 편이 아니라 그가 커피를 사올 줄 몰랐다. 조그만 스타벅스 쇼핑백에 빗방울이 묻어 있었다.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에 남편이 사들고 온 커피 원두를 받아들고 난 잠깐 말끄러미 그를 바라봤다. 맛있드라구, 재킷을 벗어 내게 건내며 남편이 말했다. 받아 든 옷에서는 눅눅한 비 냄새가 났다. 비 와? 응 갑자기.. 남편이 욕실로 향하며 대답했다. 빗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비가 내린 모양이었다. 갑자기 비가 내렸다는 말이었겠지만 그야말로 남편이 갑자기 홱 돌아서며 빠른 걸음으로 욕실로 사라졌다. 쇼핑백에서 원두를 꺼내 찬장에 두었다. 아니,,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단 소리였나?? 거실 창문을 열어 손을 내밀어보니 비는 멎었고

바닥은 젖어있었다. 갑자기 비가 내렸었구나, 혼잣말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느긋하게 커피 한 잔을 즐기고도 미용실 예약시간이 남았다. 어쩐 일로 남편이 수마트라 원두를 사왔던 걸까.

미용사가 내주는 가운을 걸치고 안내받은 자리에 가서 앉았다. 검은색 머리가 답답해 몇 달 전 갈색으로 톤을 낮춰 염색을 했는데 이게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다. 매달 자라는 머리카락에 뿌리염색을 해 주어야 하니 한 달에 한 번은 미용실을 찾게 되었다.

낯이 익은 미용사가 웃으며 인사를 건넨다. 얼굴이 좀 야위신 것 같은데요? 하면서 거울에 비친 내 눈을 뚜렷이 응시할 때는 우리가 그토록 가까운 사이였나, 싶어 잠깐 대답이 궁하다.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하자니 지나친 친절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고, 그렇다, 야위었다고 하자니 너무나 멀쩡히(아니 오히려 조금 살이 붙었다) 그렇지 않아서 내가 민망하다. 다행히, 미용사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무얼 마시겠나 묻는다. 오렌지 주스 주세요. 여자의 질문이 썩 맘에 들어 잽싸게 대답했다.

가뭄이 심해서 큰일이에요, 염색제를 용기에 담아와 열심히 저으면서 미용사가 다시 이야기를 꺼냈다. 어젯밤에 비가 오지 않았나요? 아, 남부지방요. 미용사가 다시 거울로 나를 보며 말했다. 수마트라 원두가 담긴 스타벅스 쇼핑백에 물기가 묻어 있던 게 떠올랐다. 내 대답이 조금은 성의 없었다는 생각(사실 그녀의 질문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에 네 맞아요 비가 와야 할 텐데... 건성으로 말끝을 흐렸다. 남부 도시의 어느 아파트에서는 빨래를 모아서 한 번에 세탁기를 돌려달라고 부탁하는 방송을 할 정도라고 했다. 미용사는 내 반응이 시원찮은지 더 이상 가뭄 걱정은 하지 않았다.

염색용 붓으로 약제를 꼼꼼히 발라주고는 잡지가 필요한지 물었다. 고개를 끄덕이는 내게 두꺼운 여성잡지를 무릎에 놓아주었다. 잡지를 몇 장 넘기기도 전에 졸음이 밀려와 고개가 툭 떨어졌다. 오렌지 주스를 한 모금 하고 잡지를 다시 넘겼다. 몸매를 보정하는 속옷이 나오고 주름을 없애는 화장품이, 여름 메이크업에 필요한 색조 화장품들을 보다 스륵 눈이 감겼다. 잡지를 덮고 거울을 보았다. 머리가 커다란 우주인 같은 여자가 거울에 있다. 비닐 가방을 뒤집어 쓴 것 같은 모습에 웃음이 나서 큭, 웃고 났더니 비로소 잠이 깬다. 할 일이라고는 없어 덮었던 잡지를 다시 펼쳤다. 아무곳이나 펼쳐서 넘기다 보니 샐러드와 와인이 놓인 식탁에 눈길이 갔다. 와인 잔에 담긴 와인과 치즈와 연어가 올라간 초록색 채소의 대비가 싱그럽다.

미용사가 다가와 우주인 머리 같은 헤어캡을 벗기고 샴푸실로 나를 안내했다. 머리를 헹궈주는 미용사의 손길이 어찌나 힘차던지 거품이 이마에 튀어 여러 번 눈을 질끈 감아야 했다. 오늘따라 에너지가 넘치는(지난번에도 손길이 순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미용사는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친친 감싸주며 수고하셨다는 말로 샴푸가 끝났음을 알렸다. 아닌 게 아니라 수고한 느낌이 들어 휴, 한숨이 나왔다. 자리에 앉자 머리를 말려주면서 그녀는 다시 가뭄을 걱정했다. 10년만에 최악의 가뭄이래요, 아.. 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네요, 아.. 네.. 내 대답이 시큰둥하다고 느꼈는지 그녀는 더 이상 거울에서 나와 눈을 맞추지 않았다. 대신 헤어드라이어 두 개를 한 손에 들고 젖은 내 머리를 능숙하게 말렸다. 그녀가 무슨 말인가를 하는 것도 같았지만 드라이어 소리에 묻혀 내 귀에 닿지 않았다.

늦겠다던 남편이 아홉 시를 갓 넘기고 돌아왔다. 수입 맥주 네 캔이 담긴 검은색 비닐봉지를 내 손에 안기며 옷 갈아입고 나올 테니 맥주나 한 잔 하자,고 했다. 마땅히 안주가 없어 치즈와 비스킷 몇 조각을 맥주와 함께 소파 테이블에 준비했다. 잠옷으로 갈아입은 남편이 소파에 앉아 캔 하나를 따서 내게 건네고 또 하나는 자신이 마셨다. 생일인데 건배는 해야지, 하는 내 말에 마지못해 마시던 맥주캔을 부딪치며 웃었다. 아니 웃는 것 같았다. 거푸 두 캔을 마시더니 먼저 들어가 자겠다고 일어났다. 나는 반이나 남은 맥주를 마저 마셔야 하나 말아야 하나(사실 맥주가 당기는 날은 아니었다) 망설이다 죽 들이켜는 것으로 김빠진 고민의 종지부를 찍었다.

숨소리가 고른 걸 보니 남편이 잠든 것 같아 조심히 이불을 들추고 침대에 누웠다. 잠든 줄 알았던 남편이 급히 내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잠옷 위로 내 가슴을 만지는 남편의 손길이 다급해 당혹스러웠다. 사랑을 나누기 전에 느껴지는 낌새라고 할까 어떤 분위기 같은 것이 있기 마련이었다. 기습적인 남편의 태도에 적잖이 놀라서 몸을 비틀어 남편의 손길을 살짝 거부하는 몸짓을 보였으나 기세가 꺾이지 않았다. 그의 숨소리는 이미 거칠었다. 그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할수록 그는 광마처럼 날뛰었다. 제압하듯 내 위에서 흥분하는 그가 무서울 지경이었다. 나는 저항하는 것을 그만두고 눈을 감아버렸다. 전희도 없이 전쟁 같은 행위를 마치고 남편도 실신하듯 늘어졌다. 일어나 옷을 찾아 입으려는 내게 남편이 불을 켜지 말아 달라고 했다. 숨죽이고 나도 가만 침대에 걸터앉았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 남편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렸다. 미안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이렇게 미안하다고 말해서

미안하다,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다.

눈을 떠보니 남편은 이미 출근하고 없었다. 말간 해가 커튼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침실을 밝혔다. 헝클어진 머리칼과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잠옷 단추를 보니 간밤에 일어난 일들이 꿈이 아닌 게 확실해졌다.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오늘 무슨 일인가를 하기로 한 게 있는지 떠올렸다. 오후에 미용실 예약이 있고, 도서관에 반납할 책이 네 권, 밀린 세탁물 맡기기, 정수기 관리원이 필터 교체하러 다섯 시 방문 예정. 이것 들 중 무엇을 안 해도 되는지 생각해 보았다. 모두 다 안 해도 되는 것들이어서 오히려 김이 샜다. 그렇다면 모두 다 하기로 했다.

침대를 정리하고 잠옷은 남편 것과 함께 빨래통에 넣었다. 드라이클리닝 맡겨야 할 실크 블라우스며 스커트, 남편 바지와 재킷 등을 꺼내놓았다. 남편 바지 뒷주머니에서 구겨진 영수증이 하나 나왔다. 보지 말까, 하는 고민을 딱 2초쯤 하고 그런 위선을 떨 이유가 없다는 사실에 도달했다. 영수증이 처리된 날짜와 시간이 그가 출장지에서 돌아온 날 새벽이었고, 서울 소재 호텔에서 지불된 것이다. 생일 새벽 누구와 무었을 했든 그가 출장지가 아닌 서울에 있었던 건 확실해졌다. 확실? 확실이라는 단어를 떠올린 내가 우스워 코웃음이 났다.

한밤의 수완나폼 공항은 낯선 사람들과 습한 열기가 뿜어내는 묘한 공기로 휩싸였다. 10년 전처럼 넓고 복잡하고 어수선했으나 나는 그때처럼 헤매지 않고 공항 밖으로 나와 택시 번호표를 뽑고 택시를 탔다. 여섯 시간 함께 비행한 옆자리 승객이 택시 타는 법 따위를 알려주지 않아도 될 만큼 나이를 먹었거나, 설레지 않거나.

택시가 호텔 프런트에 도착하자 벨데스크 직원들 네 다섯이 택시 쪽으로 나와 환대를 했다. 트렁크에서 수트케이스를 꺼내어 데스크까지 안내하는 직원이 애써 나와 눈을 맞추고 웃었다. 아무리 직업정신으로 무장한 웃음이라도 황송할 정도의 친절에 멀미가 가셨다. 택시를 타고 오는 동안 멀미로 속이 불편했다. 호텔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묻는 내게 기사는 대답에 앞서 속력을 높였다. 빨리 가달라는 소리로 알아들었나 보았다. 그때부터 멀미가 시작되어 호텔에 도착할 무렵에는 토할 것처럼 괴로웠다. 밤길을 달리는 동안 차창 유리를 내렸다 올렸다를 반복하면 견뎠다.

객실에서 짜오프라야 강이 보였고, 소파 테이블에는 옥빛 접시에 용과와 초콜릿이 셋팅 되어있다. 빳빳하게 풀을 먹인 린넨 냅킨 위에 두 사람 분 나이프와 포크가 정갈하게 놓였다. 테라스에 나가 강을 지나는 페리들과 맞은편 건물의 불빛이 화려하게 빛나는 짜오프라야의 밤을 넋 놓고 바라봤다. 기내식을 가볍게 하고 그 후로 먹은 게 없어 허기가 몰려왔다. 용과를 잘라 과즙을 삼키고 초콜릿으로 당도 보충하고 나니 피로가 몰려와 간단히 샤워 후 침대에 누웠다. 하늘을 보려고 일부러 커튼을 치지 않았다. 흐렸지만 경계가 없는 하늘이 어디까지라도 가 닿을 수 있을 것처럼 아득하다.

몸을 뒤척일 때마다 호텔 침구 특유의 서걱거림이 숙면을 방해했다. 새벽녘에야 잠이 든 것 같은데 열린 커튼 사이로 햇살이 깊이 들어와 늦잠 자기가 힘들었다. 기지개를 길게 켜고 스트레칭을 한 다음 벌떡 일어났다. 조식을 포함한 예약을 했으므로 더 늦기 전에 리버사이드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어야 한다.

간신히 양치만 하고 민소매 롱 원피스를 걸치고 머리는 질끈 올려 묶었다. 로비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서 외국인 커플을 만났다. 굿모닝, 편안해 보이는 웃음이 싫지 않아 나도 썩 괜찮은 척 굿모닝. 그들은 풀장이 있는 2층에 내리면서도 눈인사를 했다. 그래, 햇살이 쨍한 이 아침에 웃지 않을 이유는 뭐람.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직원들 여럿이 눈이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했다. 굿모닝 굿모닝 굿모닝. 테라스 테이블로 안내를 받아 자리를 잡았다. 어젯밤처럼 이른 시각부터 페리가 운행하고 있다. 파라솔 아래 테이블 자리라 햇빛이 제법 있지만 강바람이 불어줘서 견딜만했다. 조금 더워도 리버뷰를 포기하고 실내로 들어가기는 싫었다. 어느새 테라스 테이블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 몇몇은 나처럼 혼자서 식사하고 대부분은 가족이거나 연인들로 보였다. 강바람에 머리가 날려서 여러 번 앞머리를 귀 뒤로 넘기면서 커피를 마셨다. 강바람이 머리만 날리는 건 아닌 모양이다. 바로 어제까지 들었던 모국어도, 모국에서 있었던 일들도 제법 멀리 날아가 버린 심정이다. 살랑이는 바람처럼 가볍거나 시원하게 웃는 저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에 무엇을 두고 왔을까.

따뜻한 커피를 부탁했는데 따뜻한 티를 가져와서 다시 커피라고 말했더니 이번엔 아이스커피를 가져왔다. 내 표정을 보던 다른 직원이 눈치 빠르게 따뜻한 커피를 원하시죠? 라고 물었다. 내가 매우 그렇다는 눈빛으로 예스. 신선한 과일과 갓 구운 크로와상과 에그 타르트를 맛있게 먹었다. 조금 전 커피를 가져다 준 직원이 나와 눈이 마주치자 따뜻한 커피 더 드실건지 물어서 진심으로 땡큐. 한국말을 하지 않아도 되어서 좋다. 영어가 능숙하지 않으니 말이 짧고, 누군가 내게 말을 할 때도 진심으로 열심히 듣게 된다. 잘 못

알아들을까 봐.

느긋하게 아침 식사를 마치고 룸으로 올라갔다. 부족한 잠을 좀 더 자볼까 하고 침대에 누웠더니 정적이 온갖 생각을 불러왔다. 티브이를 켜서 채널을 돌리니 알 수 없는 언어들이 온 방을 부유했다. 티브이에 나오는 사람들 표정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상상해보다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벨소리에 잠이 깼다. 객실 청소를 하러 온 메이드가 언제쯤 청소를 원하는지 물었다. 수영복을 챙겨 풀장으로 나가면서 객실 정리를 부탁했다.

풀장이 한가해서 직원에게 물었더니 아침 일찍이거나 일몰 이후에 가장 붐빈다고 한다. 오후 2시 부터 6시까지 음료를 무료로 준다기에 2시에 나왔더니 이유가 있었다. 이용하는 사람이 적으니 서비스가 좋은 모양이다. 그늘 쪽에 썬배드를 정하고 맥주를 주문했다. 캐슈넛과 크랜베리가 섞인 안주를 투명 볼에 담아서 맥주와 서비스 칵테일을 가져다주었다. 앳되어 보이는 남자 직원이 코코넛과 천연향이 들어간 특제 칵테일이라는 설명을 열심히 하기에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보냈더니 만족한 얼굴로 돌아간다.

두 블록으로 나뉜 풀 중에 한쪽 풀은 나 혼자다. 물 속에 몸을 담그니 생각보다 차가워 깜짝 놀랐다. 다른 쪽 풀에서는 부부와 어린 남자아이가 물놀이를 한다. 이제 막 수영을 익힌 듯한 아이를 부부가 데리고 논다. 물장구치는 아이와 부부의 대화 소리가 평화롭다. 영어 같기도 불어 같기도 한 이국의 언어가 노래 같기도 새소리 같기도 하다.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되어서 더 좋다. 그들도 한 번씩 내 쪽을 보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도 같지만 어차피 새들의 언어다. 풀에서 나와 남은 맥주를 마저 마시고 무료로 준 칵테일 잔도 비웠다. 아이와 부부가 풀장을 먼저 떠났고 곧 나도 룸으로 돌아갔다.

프론트 데스크에 리버사이드 레스토랑 이용시간을 물었다. 다행히 아침부터 밤까지 종일 운영한다는 기분 좋은 대답이 돌아왔다. 룸으로 돌아와 샤워를 할 때부터다. 아 배고프다, 고 생각이 들더니 한 발짝씩 뗄 때마다 조금 더 배가 고프고 과장 하자면 숨 쉴 때마다 더 더 배가 고파온다. 점심을 거르고 수영했다고는 하나 내가 생각해도 과장이다. 과장이고 엄살이고 오버다. 그렇대도 나는 배가 고프다.

굿 아프터눈, 아침 식사할 때 따뜻한 커피를 두 잔이나 가져다 줬던 키 작은 남자 직원이다. 까무잡잡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전형적인 태국 남자다. 강 쪽이 좋으시죠? 예스. 아침에 앉았던 자리를 안내한다. 쿤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무얼 추천하시겠어요? 이름 앞에 쿤을 붙이는 태국 문화를 남편에게 들은 적이 있다. 팟타이를 알아요? 그가 물었고 나는 예스예스. 팟타이와 싱하 맥주 한 병을 주문했다. 짜오프라야강에 페리가 지나다니는 모습을 보다 초록색 지붕에 호텔 이름이 새겨진 조그만 배를 발견했다. 옆이 창살 모양으로 트였고 나무 벤치가 놓인 작고 예쁜 배다. 쿤에게 물어봐야겠다. 아, 배가 고프다, 아무리 친절한 쿤이라도 팟타이가 늦어지니 심술 난다. 맥주라도 먼저 줄 것이지, 허공에 대고 눈을 흘기니 쿤이 나타난다. 팟타이는 먹음직스럽고 냄새도 근사하다. 땡큐 쿤, 그런데 저 배(초록지붕 배를 가리키며)는 뭐죠? 쿤은 호텔에서 운영하는 배가 맞고, 투숙객만 이용할 수 있으며 당연히 무료라고. 무료를 분명 강조했다. 저 배를 타고 건너편 왓아른(유명 사원이다)이나 아이콘시암(대형 쇼핑몰)에 갈 수 있다고 천천하게 또박또박 말한다. 알려줘서 고마워요 쿤.

싱하 맥주와 팟타이는 오늘 내가 한 선택 중 최고다. 적당히 아삭한 숙주와 탱탱하면서도 부드러운 쌀면, 통통하고 싱싱한 새우. 어떤 것도 내 기분을 거스르지 않는다. 식사 시간이 아니지만 강쪽으로는 빈 테이블이 없다. 칵테일을 마시는 커플도 그렇고, 태국 사람들로 보이는 남자들도 음료만 마신다. 식사를 하긴 이른 시각인 모양이다. 오후 다섯 시를 갓 넘겼다. 태양은 가깝고 어둠은 아직 멀다. 지금 이 시각을 저녁이라고 우기는 사람은 적어도 이곳에선 없는 듯하다. 착각 없는 도시라니. 살면서 우리는 자신마저 기꺼이 속이는 착각을 몇 번은 하게 되어있나 보다. 한 손을 높이 쳐들어 웨이터를 불렀다. 쿤이 와주면 좋으련만. 여기 싱하 맥주 한 병 더.

끝.

글뤽 아우프(glück auf)

최우수상 | 최형만

새하얀 삼단 생크림 케이크에
비행기까지 본떠 올린 칠순 날이었죠
오 남매를 낳기도 전에 비행기를 탔다는 당신
곧잘 하는 말로 우리는 또
훨훨 비행기를 태우지 않았겠어요
그때마다 아이처럼 웃던 당신은
케이크에 장식된 비행기만 만졌더랬어요
하늘을 날아간다는 건 그리움이라고
그래서 어떤 마음은 아픈 거라고,
당신 말을 따라 하며 놀던 어린 시절
나는, 타본 적 없는 비행기를
타봤다고 아이들에게 자랑하곤 했죠
그런 날엔 내가 하늘을 나는 것 같았어요
유명인의 공항 패션이 비칠 때면
아이고, 하며 얕은 숨을 내쉬던 당신
그래요, 당신은 그 옛날 파독 광부였다지요
떠남과 돌아옴의 약속도 없이
보냄과 헤어짐만 있던 시절이라는 거
그때 탄 비행기는 이 땅의 꿈이었다는 거,
영화 국제시장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보였어요
노을 같은 붉은 문서 한 장 쥐려고
까만 점이 되어 머나먼 이국으로 날아간 사람들
막장은 하늘과 너무나 멀어서
해가 뜨고 지는 일에도 목이 타더니
비행운만 남기고 흩어진 청춘들
아버지의 그 까만 시간을 이제는 찾고 싶은데요
글뤽 아우프(glück auf)가 무슨 뜻인지
나는 왜 이제야 아는 걸까요
무사하자고, 살아서 만나자는 말이었다죠
이제 누구보다 높은 곳에서
해가 지지 않는 곳으로 날아간 당신
지금은 어느 항로의 편도에 올랐나요
그곳은 그리움만 가득하라고, 나는
하늘 한쪽에서 당신의 꿈을 꾸고 있어요

* 파독 광부들의 전통적인 인사말로, 광산에서 일할 때 무사히 작업을 마치길 바라는 뜻의 인사다. 영화 「국제시장」에서는 '살아서 만납시다'로 번역되었다고 한다.

| 소설 |

경착륙

우수상 | 국술호

민우는 헤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엔진음을 들으며 이번 비행기가 몇 번째인지 생각했다. 적어도 수백 번은 넘었으리라. 그는 매번 그러하듯 어렴풋이 짐작하고는 생각을 그만두었다.

주말마다 돌아오는 비행은 민우에게 충분히 고단했다. 하지만 민우는 일이 없는 주말마다 날아오르지 않으면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다. 아이가 갑작스레 백혈병에 집어삼켜진 뒤 그에게 현진이 기다리는 집은 숨을 쉴 수 없는 공간에 지나지 않았다. 집이 아니더라도 현진의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지상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공간이었다. 그래서 그는 주말마다 발이 닿지 않는, 연락이 닿지 않는 하늘로 날아오른다. 이를 위해 민우는 잠이 오지 않는 새벽마다 항공권 예매 사이트에 들어가 특가로 풀린 표들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곤 했다. 그는 남들이 최대한 기피하는 경유지에 들르는 표를 제일 좋아했다. 가장 길게, 가장 오래 나는 방법이었으니까.

그 탓에 민우는 그 어떤 공항보다 이스탄불 공항에 가장 익숙했다. 동양과 서양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는, 수 세기 전에는 두 종교가 격렬하게 맞붙다 끝내는 두 종교의 양식이 공존하게 된 그곳이 민우에게는 가장 익숙한 곳이었다. 경유하려면 그곳을 피해 갈 수 없었기에 어찌 보면 익숙해지는 게 당연했다. 두 세계의 중간지점이라는 특성 때문에 민우는 이스탄불 공항에 발을 디딜 때마다 2년 전 품에서 떠나간 지후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로 다른 세계가 맞닿고, 공존하는 곳이 존재한다면 살아있는 이들의 공간과 죽은 이들의 공간이 맞닿는 공간이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그 나름의 이유였다. 그래서 그는 비행기에 오르기 이전에 탑승 플랫폼에서 지후와 비슷한 아이들을 눈으로 훑곤 했다. 혹시나 티베트 불교의 그것처럼 지후의 삶을 이어받은 아이가 있을까 싶어서. 하지만 콘스탄티노플이 끝내는 이스탄불이 된 것처럼, 두 종교가 맞붙다가 결국에는 하나의 종교만 남게 된 것처럼 살아있는 이들과 죽은 이들이 공존하는 세계란 존재할 수 없었다. 그가 있는 곳은 명백하게도 살아있는 이들의 공간이었다. 민우는 당연하게도 살아있는 아이들에게서 지후의 얼굴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미약한 희망을 플랫폼에 남겨 놓은 채 비행기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이스탄불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편 또한 마찬가지였다.

민우는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기 이전에 그동안 연락이 온 것을 확인했다. 현진, 현진, 현진, 이승진 사무장, 현진, 현진, 현진. 평소와 같은 이력이었다.

'이번엔 어디니?'

'어디 간다고 말은 하고 가라니까. 사람 무안하게.'

'살아 있기는 하니?'

'변호사님 이번에 어디로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달 전에 맡으신 뺑소니 사건 다음 주 화요일에 수원지법에서 1차 공판 있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럴 거면 핸드폰은 왜 들고 갔니? 이승진 사무장한테 또 전화 왔어. 당신 어디냐는데?'

'밥은?'

'안전하게만 돌아와.'

평소와 같은 연락일 뿐이었다. 아르헨티나 갔다 왔어 현진아. 그걸 어떻게 까먹어요 사무장님. 평소와 같이 민우는 속으로 대답하고는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했다. 그는 무책임하게 헤드레스트에 머리를 파묻었고, KE9956 편은 그의 발이 닿지 않는 곳으로, 주변인들의 연락이 닿지 않는 곳으로 그를 데려갔다. 민우는 창문 아래로 구름이 깔리는 것을 확인하고 눈을 붙이려고 했지만 언제나 그렇듯 그의 뇌는 휴식을 취할 생각이 없다는 듯 청산되지 않은 그의 과거를 머릿속에 늘어놓았다. 똑똑히 보고 반성하라는 것처럼. 민우는 그에 저항할 수 없었다.

그의 뇌가 처음으로 펼쳐준 장면은 지후를 봉안당에 안치하고 현진과 집으로 돌아온 순간이었다. 여름날의 더위와 습기, 그리고 하릴없이 흐른 민우의 땀을 3일 내내 빨아들인 셔츠 옷깃은 민우의 목을 불쾌하게 짓눌렀다. 민우는 지후의 부재로 인해 생겨난 밑도 끝도 없는 공허함이 두려워 비교적 작은 불편함을 마주하기로 했다. 그 탓에 그의 입은 자식의 상을 치르고 온 사람이 내뱉어서는 안 되는 말을 내뱉게 되었다.

"어휴, 찝찝하다."

민우의 말을 들은 현진은 그 어떤 분노도, 그 어떤 경멸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조용히 응시할 뿐이었다. 지후의 죽음 이전부터 퇴화하기 시작한 거 같은 그녀의 입은 그 어떤 말도 내뱉지 않았다. 현진은 입을 다문 채 두

눈으로 '네가 사람이니?'하는 눈빛을 보낼 뿐이었다. 민우는 현진의 눈이 어떤 말을 하는지 너무나 잘 느낄 수 있었다. 민우는 당황한 눈빛으로 '알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라는 뜻을 현진에게 전달하고자 했지만, 현진은 이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다. 현진의 묵언수행과 금식 투쟁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현진이 무언가를 먹고, 무언가를 말하기까지는 자그마치 1년이 걸렸다. 지후의 첫 기일로부터 3일 정도 지났을 즈음 민우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무자비하게 해치워진 배달 음식과 현진의 주량을 한참 넘긴 소주병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몸을 돌린 현진이 무언가 말을 하려 입을 벌리는 거 또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오랜만에 벌려진 탓인지 그녀의 입은 말을 길게 내뱉지 않았다. 그녀의 입은 단 여섯 글자만 내뱉을 뿐이었다.

"다 너 때문이야."

알아 현진아, 나 때문인 거. 네가 그렇게 말할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민우는 그렇게 속으로 대답하고는 실성한 듯 웃는 현진을 뒤로 하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이제는 민우가 묵언수행과 금식 투쟁을 할 차례였다. 그동안은 현진이 짐을 짊어지고 있었으니 이제는 민우가 지는 것이 맞았다.

사실 현진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민우는 자신의 탓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무책임한 실수와 불가피한 사고 사이의 의뢰인들과 법정에 들어서서 최종적으로 과실 비율과 그에 따른 배상액을 조정할 때마다 지후의 죽음에 대한 자기 과실을 생각해보곤 했다. 민우는 처음 자신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과실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었다. 어떤 때는 30%였고, 어떤 때는 80%, 그리고 또 어느 날에는 무과실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민우를 피고로 세우는 법정은 그에게 나날이 까다로워졌고, 그는 어느 순간부터 100%의 과실 비율을 피해 갈 수 없었다. 현진의 말은 항상 민사 재판에 머물러 있던 그를 형사 재판으로 끌어내어 종신형을 선고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자신의 과실 비율을 알았던 민우는 항소를 포기했고, 현진의 판결을 그대로 수용했다.

알아 현진아, 나 때문인 거. 그러니까 나 찾지 마. 민우는 다시 말하고 먹기 시작한, 자신에게 모진 판결을 선고하고도 수형자 옆에서 평온하게 자는 현진의 얼굴을 보며 그렇게 말하고 첫 항공편을 찾았다.

"어디 가는데?"

첫 항공편을 위해 가방을 싸고 있던 민우를 향한 현진의 물음이었다.

"어디 가."

"그러니까 어디."

"어디."

"유치하게 왜 이래? 내가 지난번에 말한 거 때문에 그래? 그때는 취해서 그런 거잖아."

"내 잘못인 거 나도 알아.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해."

"아니 그거는 또 왜 싸고 있어."

현진은 민우가 백팩에 넣으려던 글러브 한 쌍과 소프트볼을 짜증 난다는 듯 그의 손에서 뺏으려 했다. 민우는 이것만큼은 뺏기기 싫다는 듯 글러브 한 쌍과 소프트볼을 손에 꼭 쥔 상태로 현진을 어깨로 밀쳐냈다.

"제발 그러지 마."

현진이 울먹이며 말했다.

"현진아, 지난 1년 동안은 너 방식대로 지후 생각했잖아. 이건 내 방식이야."

"그거 들고 가서 뭐 하려고?"

민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유가 없었다. 그냥 지후가 퇴원하고 나중에 좀 더 크면 같이 공놀이하기로 했고, 퇴근하던 어느 날 마트에서 갑자기 사 온 거에 불과한 것이었다. 헤밍웨이의 아기 신발과 다를 것 없는 물건에 왜 그리도 집착하는지 민우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냥. 그냥 챙기고 싶어."

"내가 미안해."

현진이 거의 애원하다시피 말했다.

"아냐. 내가 미안해."

민우는 건조하게 대답할 뿐이었다.

민우는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은 건조한 얼굴로 집에 나서기 전 축축하게 젖은 현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현진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모양이었다.

"당신 이렇게 가버리면 나는 어떡해?"

현진의 말이었다.

"당신도……어디를 좀 가."

민우의 대답이었다.

민우는 그렇게 하늘로 날아올랐다. 남들은 여행을 가기 위해, 출장을 가기 위해 오르는 비행기를 아무 목적 없이 그렇게 올라탔다. 주인 잃은 글러브 한 쌍과 함께.

아직도 모르겠네. 어디 가냐는 물음에 그저 어디, 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민우의 생각이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 수 없었다. 현진을 피해 하늘로 오른 것은 맞았지만 어디를 가고 싶었는지는

아직도 몰랐다. 특가로 풀린 비행기표를 볼 때도 총 비행시간만 볼 뿐 도착지가 어딘지는 보지도 않았다. 그러게 현진아, 나는 어디를 가고 싶은 걸까. 민우는 머릿속으로 조용히 질문을 던질 뿐이었다.

그때 에어버스의 엔진이 고주파 음을 내면서 별안간 수평을 유지한 채로 급하게 상승했다. 난기류네. 1년 동안 수없이 비행기에 오르며 난기류에 익숙해진 민우는 침착하게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비행기는 그 이후로도 난기류를 피해 가려는 듯 최대한 수평을 유지하며 위로, 아래로 움직였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민우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난기류일 거라 예상했다.

하지만 에어버스의 기체가 쿠궁, 하는 소리를 내며 좌우로 흔들리는 순간 민우 또한 생각을 고칠 수밖에 없었다. 평소에 항공기 사고 확률보다 교통사고 확률이 월등하게 높다는 근거를 들며 비행기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드러내던 민우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법대 동기 태진에게 맡긴 유언장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게, 현진이한테 재산은 다 넘기는 걸로 했는데 차는 어떻게 처분해달라고 했더라, 하는 조금은 어이없는 생각이었다. 다시 한번 비행기가 위아래로 요동치고, 당장이라도 부러질 것만 같은 잡소리를 내며 기체가 좌우로 흔들리자 민우는 좀 전의 생각을 말끔히 잊을 수밖에 없었다.

민우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려고 했지만 글러브가 든 가방을 끌어안은 두 팔은 그의 바람과 다르게 초조함을 드러냈다. 민우의 초조함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지금 자신이 지후의 글러브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근거했다. 지후의 죽음 이후 민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거의 잊은 듯이 살았다. 이승진 사무장도 이를 느꼈던 것인지 현진에게 판결을 들은 이후의 민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은 적이 있었다.

"변호사님."

민우는 평소와 같이 소장 작성을 끝마친 뒤 사무소가 있는 건물 옥상에서 담배를 태우던 중이었다.

"네?"

"이런 말 좀 그런데, 혹시 나쁜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나쁜 생각이라고 하면?"

"그, 있잖아요."

승진이 조심스럽게 우회해서 물었고, 승진의 의도를 파악한 민우는 가볍게 웃었다.

"아 그거요. 그거는 갑자기 왜요?"

"요즘 너무 생기가 없으셔서요. 그 일 있고 변호사님 잘 견디셨던 거 같은데 요새 좀 많이 힘드신 거 같아서요. 이유도 없이 자주 출국하시기도 하고. 혹시나 힘든 일이 있는데 말 못 하시는 거면 저한테 말씀하셔도 돼요."

다들 왜 자기한테는 말해도 된다고 하는 건지. 민우는 승진의 말이 거슬리기는 했으나 무슨 마음에서 한 말인지 알았기에 모질게 굴지는 않기로 했다.

"말해봤는데 다들 모르더라고요."

"제가 무례했네요."

"아네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스크린도어가 없는 역을 찾아다니지는 않으니까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죄송해요. 요즘 말이 좀 막 나오네요."

"뭐 소장에만 그렇게 안 쓰시면 됐죠."

담배를 깊게 빨아들인 민우가 옥상 턱에 몸을 걸치고 길게 연기를 내뱉었다. 처음에는 곧게 뻗어나가던 연기가 점차 흐려지다가 이내 허공에서 사라졌다. 허공에서 갈 곳을 잃은 민우의 두 눈은 곧 뚜렷한 피사체들이 즐비한 지상으로 향했다.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덜 아프겠죠?"

"어떤 게요?"

민우는 조용히 검지로 지상을 가리켰다.

"아."

민우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확인한 승진은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담배를 깊게 빨아들일 뿐이었다. 민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더 안 물어봐도 자명했으니 말이다.

민우가 승진에게 은유한 것처럼 민우는 죽음에 대해 큰 거부감이 없었다.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서 억울함을 느낄 거 같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 혹자는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는 마음에 바라기도 한다지만 민우는 현진에 대한 책임을 느꼈다. 유언장을 미리 작성한 것도 현진에 대한 책임에 근거했다. 물론 지금은 현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비행기로 도망쳤지만.

민우는 가방을 끌어안으며 지금 자신이 탄 비행기가 추락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본다. 지금 민우가 탄 비행기는 우즈베키스탄 상공에 있었다. 만약 아주 운이 없어서 비행기가 동력을 잃고 추락하기 시작한다면 높은 확률로 바다가 아닌 지상에 떨어질 것이 분명했다. 그렇게 되면 또 높은

확률로 항공유 누출과 그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것이다. 불에 타죽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다던데. 민우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의 상상은 뒤이어 자신이 미처 감싸지 못한 가방이 불타는 장면으로 향했다. 폴리에스테르 재질인 가방은 본래 석유에서 나온 것에 걸맞게 불을 만나자마자 순식간에 불타오를 것이다. 가방을 전부 녹인 불은 뒤이어 가죽 재질인 지후의 글러브를 녹일 것이 분명했다. 불을 만난 글러브는 그렇게 녹고 녹아 민우의 살가죽에 들러붙을 것이다. 글러브의 가죽이 원래 민우의 살가죽이었고, 민우의 살가죽이 원래 글러브의 가죽이었던 거처럼. 민우는 그게 싫었다.

민우는 지후의 것이 자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 싫었다. 지후는 지금도 민우의 기억 속에만 존재했다. 개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민우의 속에 존재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런 와중에 지후의 존재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무언가가 녹아내려 민우에게 들러붙게 된다면 민우는 더 이상 지후를 이 세상에 남길 수가 없을 것만 같았다. 지후의 것은 지후의 것으로 존재해야만 했다. 그 조그마한 것이 아빠의 품에 안겼다가 조금씩 떨어져 나가 결국에는 그 조그마한 두 발로 홀로 걸어 다녔던 것처럼, 지후는 따로 존재해야만 했다. 그래서 민우는 혹시 사고가 난다면 지후의 글러브가 자신에게서 튕겨 나갈 수 있게 안고 있던 팔을 풀고 어깨끈에만 오른팔을 살짝 걸쳤다.

비행기는 계속해서 요동쳤다. 에어버스의 기체는 통상적인 흔들림과 비정상적인 떨림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 나갔다. 기체가 흔들리는 시간이 지속될수록 본능을 따르는 울음소리가 기체에 하나, 둘 누적되기 시작했다. 처음은 영아의 울음소리였다. 그 어떤 언어도 녹아있지 않은 늑대의 하울링 같은 울음소리는 기체 안을 떠다니며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았다. 아이를 품에 안고 울음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부모는 어찌할 줄을 몰랐고, 이와 비슷한 하울링을 여럿 들어본 거 같은 스튜어디스는 능숙하게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아이는 울음을 그칠 줄 몰랐다. 울음소리가 지속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자 유아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하울링에 다른 늑대가 하울링으로 응답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하품하면 다른 이도 하품을 하는 것처럼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울음에 동참했다. 말을 할 줄 아는 아이들은 한마디씩 더하며 서로의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엄마 나 죽는 거야, 나 무서워, 너무 시끄러워 등등. 울음소리를 키움과 동시에 불안한 말들로 서로를 자극했다. 민우는 이상하게도 이런 상황이 반가웠다. 언젠가 한 번 봤던 풍경이어서 그랬던 거 아닐까, 민우는 기억나지 않는 과거를 좇았다. 그의 머릿속은 희미한 과거를 좇다가, 좇다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지후를 봉안당에 안치하려 이동하던 차 안으로 향하게 됐다. 민우와 현진은 8차선의 길고 긴 신호에 가로막혀 있었다.

"지후는 어디로 갔을까?"

현진의 물음이었다.

현진의 물음에 민우는 자연스럽게 핸들에 몸을 얹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평소에 죽음과 하늘을 연결 짓지 않는 그였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글쎄."

신호가 바뀔 즈음에 민우가 대답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아무래도."

"우리가 지후랑 비행기 탔던 적이 있던가?"

"지후 두 살 때 제주도 간다고 탔던 적 있을걸?"

"아 맞네. 그때 탔었지 참."

"이륙할 때 얼마나 울고불고 난리던지. 옆에 앉은 학생이 착해서 다행이지, 불편한 기색이라도 있었으면 아주 미안해서 죽을 뻔했어 진짜."

"맞아. 어찌나 울던지."

두 사람이 오랫동안 묵은 웃음을 터뜨리며 차 안이 가볍게 데워졌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웃음기가 사라지며 차 안의 온도는 이전처럼 차게 식었다. 민우는 다시 찾아온 냉기가 늦여름의 차량 에어컨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지후는 비행기를 싫어했던 거겠지?"

현진의 물음이었다.

"그렇게 울었는데 싫어했던 거겠지."

"계속 싫어했으려나?"

"초등학생쯤 되는 애들 보면 비행기 신기해하고 그러잖아. 지후도 컸으면 그랬겠지."

"그랬겠지."

그랬겠지. 민우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현진의 말을 되새겼다. 그럴 거야, 도 아니고 그랬겠지, 라니. 무슨 생각이었을까.

민우는 자연스럽게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현진과 대화할 때 은연중에 암시했던 것처럼 혹여 지후의 존재가 밖에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계속해서 날아오르는 이유가 그때의 대화가

무의식중에 생각나서 지후의 존재를 느끼려 한 게 아닐까, 하고 추측하기도 했다. 하지만 설득력이 있는 추측은 아니었다. 민우는 아주 가끔, 어쩌면 자주 지후를 잊고 살았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일이 바빠서 그런 거였을 수도, 지후를 생각하는 게 너무 벅차서였을 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지후의 존재가 민우의 머릿속을 항상 가득 채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였다. 민우는 그렇게 하나의 가정을 말소했다.

민우는 아직도 자신에 대해 알지 못했고, 비행기는 계속해서 요동쳤다. 어쩌면 착륙하기 이전까지 계속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점차 잦아들고 있었다. 새로 울음을 터뜨릴 아이도 없었고, 이미 울고 있는 아이들은 더 이상 울 힘이 남지 않았다. 민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 작은 소동도 이제 끝이 나는구나, 생각했다. 하지만 비행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리듯 이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굉음을 내며 크게 흔들렸다. 울던 아이들은 잠들었고, 이제 어른들의 시간이었다. 아이를 달래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희망찬 이야기를 하던 어른들은 기체의 큰 충격을 느끼자마자 눈을 크게 뜬 상태로 자신들이 마주한 절망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들의 큰 눈은 서로에게서 희망을 찾듯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어디를 보아도 자신처럼 절망을 마주한 이들만 마주할 뿐이었다. 민우는 그중에서 가장 침착한 편이었다. 민우는 입을 꾹 다문 채로 다음 주에 예정된 비행은 취소할까 하는 생각을 할 뿐이었다.

비행기가 계속해서 크게 흔들림에 따라 민우가 팔에 걸치고 있는 가방 또한 위아래로 크게 움직였다. 그 순간 '탁, 탁'하고 소프트볼이 글러브에 맞붙는 소리가 났다. 민우는 동요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프트볼이 글러브에 맞붙는 소리에 귀 기울였다.

'탁, 탁, 탁, 탁, 탁'

소프트볼과 글러브 한 쌍은 비행기가 격렬하게 움직일 때마다 그에 맞춰 맞붙는 소리를 냈다. 글러브와 글러브가 맞닿을 때도 있었지만, 소프트볼과 글러브만 맞닿을 때도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소프트볼이 글러브의 정중앙과 맞닿는 거 같지는 않았다. 가방의 움직임에 따라 소프트볼이 어설프게 글러브의 겉면을 때리는 듯했다. 민우는 아무래도 좋았다. 그것만으로 충분히 공놀이를 하는 것만 같았으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그저 조용히 지낼 것만 같던 글러브 한 쌍과 소프트볼은 민우의 가방 속에서, 난기류 속에서 나름의 소리를 내며 합을 맞추고 있었다. 우연한 공놀이 소리에 귀 기울이던 민우의 눈시울이 점차 붉어지기 시작했다. 민우는 눈물을 참으려 했고, 흐르지 못한 눈물은 민우의 각막에 얇게 막을 형성하며 들러붙었다. 민우는 눈물 탓에 흐릿해진 시야 너머로 가지 못할 아파트 공원을 바라봤다. 그 공원에서는 민우와 7살이 된 지후가 공놀이를 하고 있었다.

7살이 되어 글러브를 낄 수 있게 된 지후는 윗니는 두 개, 아랫니는 하나가 빠져 있었고, 던지는 공은 매번 힘없이 바닥에 내리꽂혔다. 민우는 지후가 공을 던질 때마다 괜히 놀러 나오자고 했나 하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이번에 받은 사건 때문에 지후와 놀아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지후가 흘리는 공을 열심히 주워 왔다.

"아빠 제대로 좀 잡아봐! 공이 자꾸 바닥으로 떨어지잖아."

민우와 현진 중 누굴 닮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뻔뻔하게 남 탓을 하는 지후의 말은 열심히 뛰려는 민우의 발목을 붙잡기도 했다. 그래, 어디 인생이 아름답기만 한가. 민우는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지후가 흘린 공을 줍고, 다시 던졌다.

'탁, 탁, 데구루루, 탁, 데구루루'

민우는 지후가 글러브를 낄 수만 있게 된다면 모든 일이 해결될 거라 생각했지만 그게 아님을 여실히 느낀다. 뭐, 이것도 좀 더 크면 해결되겠지. 민우는 그렇게 생각했다.

지후와의 공놀이는 생각보다 재미있지는 않았다. 공놀이 중 절반 이상은 공 줍는 데 시간을 쓰고 있었으니 말이다.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렇게 행복하게들 하던데. 아 그래, 재밌다고는 안 했구나. 민우는 드라마와 영화의 허점을 발견한 거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매체에서 묘사한 게 그렇게 틀리지만은 않았다고 생각한다. 재미는 없을지언정 행복하기는 했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지후의 공 던지는 실력은 눈에 띌 정도로 좋아졌다. 다섯 번 던지면 네 번은 민우가 무리해서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날아가게 됐다. 민우는 그런 지후의 실력에 대해 칭찬했고, 지후는 '내가 아빠보다 잘하지?'하고 으스댔다. 하지만 모든 놀이가 그렇듯 두 사람의 시간 또한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민우는 끝이 다가왔음을 알면서도, 공놀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면서도 말없이 지후를 향해 공을 던지고, 지후가 던진 공을 과장하면서 받아냈다. 탁, 탁, 탁, 탁, 데구루루, 탁.

"아빠!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다음에 또 하면 되잖아!"

지후가 먼저 공놀이의 끝을 알렸고, 민우는 멋쩍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민우는 차마 다음에 또 하자는 말은 할 수 없었다.

지후는 집으로 향하는 동안 식단 관리 때문에 먹지 못할 음식에 대해 나열했다. 민우는 들으면서 그러면 좋겠지만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면 그때 먹자며 지후를 달랬다. 그렇게 먹지 못할 음식을 하나, 둘 바닥에 깔며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 어느새 아파트 입구에 다다랐다. 민우는 끝이 다가왔음을 직감하고 지후를 불러세웠다.

"한지후!"

"응?"

"아빠 사랑해?"

"아빠는 그거 맨날 물어보더라?"

"맨날 듣고 싶으니까 그렇지."

"햄버거도 안 사주면서."

지후가 모른 척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려 하자 민우가 다시 지후를 불러세웠다.

"그러지 말고, 그래서 아빠 사랑해?"

"응, 아빠 사랑해! 이제 집에 가자!"

"아빠도 지후 사랑해. 많이."

지후는 빨리 집에 들어가려 대충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민우에게는 그거면 충분했다. 이가 빠져 '사랑해' 보다는 '타당해'에 가까웠지만 그거면 충분했다.

막을 형성하며 겨우 버텨내던 눈물이 결국 흘러내리면서 민우가 가지 못할 공원은 그렇게 사라졌다. 민우는 혼돈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아냈다. 눈물은 금방 멈췄다. 민우가 느낀 것은 이별의 슬픔이 아닌 안도감이었으니 어쩌면 금방 멈추는 게 맞았다.

비행기의 떨림도 서서히 멎어갔다. 그에 따라 민우의 가방 속에서 흔들리던 글러브 한 쌍과 소프트볼의 움직임도 서서히 멈춰갔다.

'탁, 탁……탁.'

그리고 어떤 소리도 나지 않았다.

몇 시간이 지나자 비행기는 언제 그랬냐는 듯 부드러운 양력으로 날개를 지탱한 채로 순조롭게 하늘을 갈랐다. 민우는 승무원들의 눈치를 보다 조심스럽게 창문 덮개를 위로 올리고 하늘을 내려다보았다. 그렇게 비행기를 많이 탔으면서도 비행 중에 하늘을 보는 건 처음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하늘은 멈춰있는 듯 보이면서도 확실히 움직이고 있었다. 민우는 자신과 현진도, 그리고 지후도 그랬던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지후가 떠난 시점에 시간이 멈춘 것처럼 살았지만 결국에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했던 것처럼. 머릿속에 있던 지후가 점점 크다가 어느새 유치가 빠지기 시작할 나이가 된 것처럼.

"덮개 내려주십시오."

승무원의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날아들었고, 민우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덮개를 내렸다.

헤드레스트에 머리를 뉘인 민우는 이번에 착륙하게 되면 예약해뒀던 3개월 치 비행기표를 모두 취소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더는 날 필요가 없을 거 같아서였다. 이거다, 하고 단번에 짚을 만큼 정확한 이유는 없었다. 계속된 비행에 지친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고, 그동안 현진에게 못되게 군 것에 대한 죄책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고, 장거리 비행기표를 계속해서 구매하는 데서 오는 재정적인 부담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었다. 그리고 지후가 잘 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것도 영향을 주었다. 민우는 어떤 영향이 가장 큰지 대번에 알 수 있었지만, 그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하지는 않기로 했다. 그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 다시 날아오르고 싶어질 것만 같아서.

비행기는 어느덧 착륙을 앞두고 있었다. 몸을 격하게 뒤틀던 에어버스는 천천히 활주로로 내려앉았다. 그리고 비행기가 완전히 내려앉을 즈음 '쿠궁' 하는 소리와 함께 랜딩 기어가 격하게 땅에 내려꽂히는 소리가 났다. 민우에게는 그 어떤 때보다 땅과 가장 격하게 조우하는 순간이었다.

민우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스마트폰을 켜고 비행기 모드를 껐다. 그리고 현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진은 민우의 전화를 기다리기만 한 것처럼 민우의 전화를 곧장 받았다. 민우는 사죄라도 하듯, 아니면 어떤 변화를 암시하기라도 하듯 현진에게 조곤히 말했다.

"나 착륙했어."

| 수필 |

비행으로의 초대

우수상 | 김지원

미술 전시회 초대장을 받았다. 20년 만에 조카에게서 온 것이다. 설레고 짠한 마음이 들었다. 초대 글을 읽다가 그녀의 비행이라고 적힌 문구에서 시선이 멈추었다. 조카의 엄마인 내 동생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전시회였다.

어릴 때 종이비행기를 자주 접었다. 제법 비행기의 모양을 갖춘 종이는 하늘 위로 휙 가볍게 날아갔다. 그렇게 종이비행기와 친했던 나는 35세가 되기까지 비행기를 타보지 않았다. 멀리서 하늘로 날아가는 비행기만 바라볼 뿐이었다.

비행기를 처음 탄 것은 동생의 죽음을 앞둔 날이었다. 퇴근 후 귀가했을 때 엄마는 핏기 없는 얼굴로 결혼한 동생의 위독함을 알려주었다. 내일의 어두운 그림자를 예감한 듯 다음날 휴가를 내고 난생처음 비행기에 올랐다.

여행 목적으로 비행기를 탔다면 설렘과 기대가 가득 찼겠지만, 죽음을 앞에 둔 동생을 보러 가는 길은 착잡하기만 했다. 내면에는 우울감이 가득했으나 비행기 창문 밖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은 흰 구름과 함께 내 시선을 끌어당겼다. 호기심에 하늘과 그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논일 것 같은 지역이 바둑판의 네모처럼 보였다. 사람은 찾아볼 수도 없었다. 나의 눈은 자꾸 창밖을 보게 했다. 하얀 솜이불처럼 펼쳐진 구름이 시야에 들어오자, 내 눈동자는 더 커졌다. 사람이 그 위를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나의 흥분이 아픈 동생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동생은 다섯 자매 중 유난히 예뻤다. 쌍꺼풀의 눈, 하얀 피부, 가녀린 몸매의 그녀는 비율이 좋아서인지 미인에 속했다. 동생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그녀에게 눈먼 착한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부모에게는 자식의 첫 혼인이라서 동생의 결혼식 준비는 분주했다. 언니인 나는 철없이 덩달아 좋아했다. 우리 집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은 없다며 할머니는 내게 결혼식에 가지 말라고 했다. 나는 결혼 못 한 죄인이 되어 동생의 결혼식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괌으로 신혼여행을 갔다 온 후 많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녀가 보여준 세상은 신기했다. 공항과 비행기 안에서의 사진, 바다에서의 스노클 등 모두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었다. 어릴 때부터 나보다 똑똑했던 동생은 처신에도 능했다. 아버지는 딸들에게 과외나 학원 교육은 못 해주니 알아서 공부해서 대학에 가면, 그 공부를 시켜준다고 말했다. 나는 책상에 앉아 엉덩이 싸움을 하며 대학에 가기 위해 힘썼고, 대학에 가서도 자신의 꿈을 위해 또다시 도서관에서 엉덩이 싸움을 해야 했다. 그러나 동생은 일찌감치 공부를 접고 미술을 택했다. 엄마는 아버지 몰래 동생에게 미술 학원을 보내기 위해 뜨개질 일을 부업으로 하며 그 길을 가게 했다. 그렇게 공부한 동생은 인생에서 가장 예쁠 때 결혼했다. 예쁜 그릇이 먼저 깨진다고 했던가? 질병은 그녀의 예쁜 것을 질투하듯 찾아들었다. 그녀의 육체는 전이된 암으로 고통받으며 하늘로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다.

어릴 때 동생과 자주 싸웠다. 서로의 가치관이 달랐고 노는 방법도 달랐다. 집에서 혼자 책 보는 것을 즐겼던 나와는 달리, 그녀는 여러 명의 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놀았다. 우리는 특히 옷을 가지고 다퉜다. 그녀의 감각은 탁월해서 예쁜 옷을 많이 갖고 있었다. 옷 가게에서 멋진 옷을 봐도 나는 선택하지 못했는데 그녀가 사 온 옷은 평범해 보여도 입으면 세련되어 보였다. 나는 아픈 동생을 보러 가는 날에도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했다. 동생은 내가 자주 빌려 입던 옷을 준 적이 있었다. 그 옷을 꺼내 입었다.

병실에 도착하여 동생을 보니 미모는 어디로 가고 복수가 가득한 배만이 그녀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었다. 내 동생 같아 보이지 않았다. 동생은 나를 보더니 내가 입고 온 그녀의 옷도 쳐다보았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진한 남색의 블라우스였다.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던 나는 마치 장례식의 옷을 미리 입은 것처럼 보였다. 의사는 오늘을 보내기 힘들다고 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도 5개월을 버티고 있는 동생이었다. 그래서 그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어 하지 않았다. 나는 병실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내일 출근을 위해 서울로 향했다.

서울행 비행기를 탔다. 나의 두 번째 비행기 탑승이었다. 기내 창밖은 캄캄한 밤하늘로 어둠만이 가득했다.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오고 있는 동안 동생은 돌아오지 못하는 먼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 그 소식을 듣고 다음 날 비행기 티켓을 다시 예약해야 했다. 동생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준비해야 했다.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한 그녀의 시댁 어른들의 옷 품새가 남달랐다고 한다. 신경 쓰였다. 동생의 가족 대표로 참석하는 나는 그녀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백화점에 들러 검은색 정장을 사 입었다. 옷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무시하지 못하고 그 절박한 순간에도 그것에 맞추고 있는 자신이 서글펐다.

장례식장을 향해 다시 비행기를 탔다. 세 번째 탑승이었다. 창밖의 하늘은 더 이상 내게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세상을 보는 것이 속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 보였다. 어제는 동생이 살아있기에 한 줄기 희망이라도 걸고 싶었다. 기내 창문 밖을 볼 여유도 있었다. 그런데 죽음을 알고 난 후의 마음은 캄캄함 그 자체였다. 기내 창문 밖 하늘은 어둑한 회색빛으로 보였다.

장례식장에 도착하여 동생의 영정 앞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바닥에 굴리며 놀고 있는 조카를 보았다. 내 마음도 허망한데 유치원생의 아들을 남기고 떠나는 동생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젊은 나이에 죽는 것에 대해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해야 할까? 남보다 예쁘고 더 많이 누리고 즐겼으니 빨리 떠나는 것에 대해 세상은 공평하다고 해야 할까? 누군가 신의 뜻이라고 말한다면 용인할 수 없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친하지 못했다. 철이 들 무렵 그녀는 결혼하고 내 곁을 떠나버렸다. 내가 직장인이 되어 동생에게 옷도 사줄 수 있게 되자, 그녀는 옷이 필요 없이 환자복만 입고 있었다. 동생과 인생의 본격적인 게임은 아직 해보지도 못했는데 여기서 기권해야 했다. 살아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부모에게만 해당하는 줄 알았다. 내리사랑이 자식에게만 해당하는 줄 알았다. 동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이었다.

동생의 삶은 비행기의 속도처럼 신속하게 전개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탐내던 자기 옷을 주었듯이,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을 주고 갔다. 그녀는 서른이 넘도록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는 언니에게 자기 죽음 앞에서 비행기 탑승을 선물해 주었다.

장례식에서 나는 다짐을 했다. 어린 조카에게 신경을 쓰고 자주 연락을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키지 못했다. 동생의 남편이 재혼하면서 멀어져갔다. 제부가 조카를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싶다고 말했을 때, 우리 가족은 앞으로 조카의 삶이 평탄하지 않을 것을 예측했다. 자식은 부모가 키워야 한다며 외할머니인 내 엄마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 거절이 제부의 마음을 서운하게 했는지 그 이후 우린 서로 연락하지 않았다. 때때로 엄마는, 조카가 사춘기일 때 새엄마에게도 눈치 안 보고 반항도 하는지,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도 다니는지 알고 싶어 했다.

드디어 전시회 날이 왔다. 제법 큰 화분을 들고 갔다. 엄마는 손자인 조카가 입을 옷을 여러 벌 준비했다. 남편과 딸은 내 조카를 처음 만나는 날이었다. 이산가족 만남처럼 들떠 있었다. 엄마의 눈에는 쉬지 않고 눈물이 흘렀다. 조카는 생모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다. 새엄마와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동생의 사진을 모두 없앤 것일까? 전시된 그림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비행이라는 제목의 글이 눈에 띄었다. 그 글과 함께 있는 그림 앞에 멈추어 섰다. 생모가 암 투병 중일 때를 기억하며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린 작품이었다. 그림 속에는 커다란 한 송이의 노란 장미가 있고 그 뒤에 먼 거리에서 작은 비행기가 밤하늘을 날고 있었다.

그녀의 영혼을 태운 비행기는 편도였다. 일반적으로 비행기를 탄다는 것은 다시 꼭 비행기를 타고 돌아온다는 약속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비행기를 탈 때 기대가 있고 설렘이 있다. 탑승할 때 살고 있던 지역에 미련을 두고 쳐다보지는 않는다. 도착할 곳의 기대를 하고 아쉬움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떠난다. 그런데 새로운 곳에서 여행이 끝나고 돌아갈 때는 다시 못 올 수 있기에 뒤를 돌아본다. 그래서 죽은 몸을 이 땅에 두고 홀로 떠나는 영혼의 여행은 편도 비행이기에 가슴 한구석이 아련한 것이다.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이기에 아쉬움이 큰 것이다.

조카의 전시회는 그만의 예술성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동생의 유전인자를 이어받아 나온 작품이었다. 동생과 조카의 합작품으로 보였다. 동생은 이 땅에 없지만 조카를 통해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 있었다. 마치 꽃이 지면서 씨앗을 떨어뜨려 다음 해에 그 꽃이 피도록 하는 것과 같았다. 조카가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은 하늘에 있는 동생이 돌봐준 덕분일까?

나의 첫 비행기의 우울한 경험은 더 이상 오지 않았다. 동생은 하늘과 우주를 넘어 저편 천국으로의 편도 비행이 순조로웠는가 보다. 그 이후 나는 결혼을 하고 남편의 해외 출장에 동반하며 비행기로 많은 곳을 여행했다. 다시 내가 사는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비행기는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과 활력, 그리고 감사를 선물했다.

언젠가 다시 열게 될 조카의 전시회 초대장을 기다리며 기대하고 있다. 저 멀리서 비행기 활주로에 아주 커다란 흰색의 종이비행기가 착륙하는 것이 보였다. 종이비행기에도 문이 있던가? 문이 열렸다. 노란 장미 한 송이를 든 여인이 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뒤엔 하얀 후광이 빛을 내고 있었다. 너무 밝은 빛이어서 그녀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동생의 자태와 비슷했다.

오늘부터 나는 종이비행기를 접기로 했다. 이것은 저 멀리 하늘로부터 여기 지상으로 날아오게 하는 초대 티켓이다. 이미 조카의 몸에는 동생의 씨앗이 들어와 있지만, 전시회에 그녀의 영혼이 다녀가길 바란다. 다시 올 전시회에는 조카에게 화분 대신 종이비행기를 선물할 것이다.

| 수필 |

날개

✽ **우수상** | 박선영

아이가 칭얼대더니 결국 울음을 터트렸다. 그리고는 좀체 그치지 않았다. 잠자고 있던 아이는 입양 관계자의 확인 절차를 거쳐 위탁모에게서 내 품으로 왔다. 얼마나 운 것일까. 아이를 건네받을 때 위탁모의 눈은 발갛게 충혈돼 있었다. 눈물을 글썽이는 거로 보아 그녀도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아이를 조심스레 안고 비행기에 올랐다. 위탁모의 안타까움이 따라왔는지, 아이는 여전히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입술을 삐죽거리며 손을 휘저었다. 다리를 곧추세우고 우는 아이를 달래느라 나는 진땀을 뺐다. 아이에게도 어떤 본능이 존재한다면 강한 두려움에 사로잡혔거나 달라진 환경에 당황했을 수도 있었다.

아이는 특별한 인연을 만나러 가는 중이었다. 나는 교육 받은 대로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병에 우유를 타서 입에 물렸다. 아이는 도리질하며 우유를 먹지 않았다. 많은 사람과 소음, 일반적이지 않은 환경 때문이라 짐작했다. 평소 좋아한다며 위탁모가 건네준 과자도 거부했다. 오직 강아지 인형만 꼭 끌어안고 있었다. 스튜어디스가 와서 달래보았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미국 9.11 테러 발생 직후여서 뉴욕까지 논스톱으로 가는 건 불가능했다. 비행기를 여러 번 갈아타야 하므로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아이는 그 어린 나이에 비행기를 타게 될 줄 어찌 알았겠는가. 차라리 비행기가 없었다면 좋았을 텐데 부질없는 생각을 하는 사이 우린 벌써 드넓은 바다를 건너고 있었다. 첫 비행이 아이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경계였다. 아이의 처지를 생각하며 눈물을 훔쳤다.

앞으로 닥쳐올 운명은 뻔한 것이었다. 좋은 양부모를 만나면 다행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삶이 쉽지 않을 것이다. 국내가 아닌 머나먼 이국땅에서 살아야 할 아이의 운명을 아는지 모르는지 비행기는 고도를 높이고 있었다.

한국에서 뉴욕까지 직항은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 걸리지만, 돌아서 가는 길은 멀었다. 일본 하네다 공항과 워싱턴 공항을 거친 뒤 또 비행기를 갈아타고 뉴욕으로 가야 하는 힘든 여정이었다. 몸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이

천근만근이었다. 급기야 후회가 밀려왔다.

한국에서 뉴욕까지 가는 비행 삯은 100여만 원 정도라 했다. 그런데 입양아를 데려다주면 43만 원에 왕복 비행기 표를 살 수 있단다. 그 조건에 나는 선뜻 응했다. 교육을 받을 때는 설레기까지 했다. 내가 굳이 이 일을 하겠다고 나선 건, 입양에 관심이 많아서였다. 결혼 십여 년이 되어도 아기가 없어 찾아다닌 병원에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선고를 받았다. 입양에 대해 알아보려고 아동복지 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이 일을 알게 되었다. 의미를 생각하며 선뜻 나섰는데 이렇게 슬픔이 차오를 줄은 몰랐다.

아이가 쉴 새 없이 울자 급기야 승객들이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스튜어디스가 양해를 구했다. 이런 일이 종종 있는데, 갓난아기는 상황을 몰라 잠을 자지만, 유아는 본능적으로 뭔가를 직감한 때문이라 했다. 그러자 승객들이 오히려 동정의 눈길을 보냈다. 아이는 울다 지쳤는지 잠이 들었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했다. 혹시 양부모의 생활이 여의치 않아 파양 당하지는 않을지 안심할 수도 없었다. 어떤 통계에는 입양아의 자살률이 높다고 나와 있었다. 자살 예방 상담사 일을 할 때 공부한 내용 중에 본 수치였다.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걱정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차라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더 옳을지도 몰랐다. 입양 성공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입양아들은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기 때문에 공부도 마음껏 할 수 있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더 많다고 한다. 친부모에 버금가는 양부모를 만난 이들도 많단다. 스티브 잡스와 플뢰르 펠르랭이 그런 인물이었다. 수정이도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나는 속으로 축복해주었다.

드디어 뉴욕 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자 신기하게도 아이는 울음을 뚝 그쳤다. 밖에서는 양부모 가족들과 입양 관련 단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환한 웃음으로 환영해 주었다. 플래카드에 "이수정 환영합니다."라는 글귀가 한글과 영어로 쓰여 있었다. 소중한 한 생명을 위해 인종과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은 감동이었다. 아기는 양부모의 품에 안겼다.

입양아는 정체성에 대한 집착이 많다고 한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뿌리를 알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성장한 후 친부모를 찾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입양아들을 위한 가족 찾기 프로그램과 단체가 있다고 했다. 나는 수정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었다. 올 때는 한국말을 조금이라도 배워서, 자기 뿌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했다. 한국말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입양아들을 TV에서 볼 때면 몹시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수정이를 보내고 와서는 생활이 많이 달라졌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의사의 목소리와 비행기를 타고 가던 수정이의 울음소리가 번갈아 들리는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결국, 신경과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이란 영화를 보았다. 기구한 운명을 지닌 한 여자의 이야기였다. 4살 때 스웨덴으로 입양된 수잔(유숙)은 한국과는 다른 낯선 환경과 생소한 모습에 익숙해지지 못하고 친어머니와 형제에 대한 그리움으로 고단한 나날을 보낸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가혹한 매질과 분노를 드러내는 새어머니의 학대에 지친 유숙은 13살에 첫 번째 자살 시도를 하지만 실패한다.

18세가 되어 자립하게 된 유숙은 방황 속에 한 남자를 만나고 임신하게 된다. 하지만 미혼모가 되고 다시 만난 남자를 친한 친구에게 빼앗기는 아픔을 겪는다. 그런 과정 중 한국에 친모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접한다. 딸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온 유숙은 그토록 그리웠던 친어머니와 해후한다.

23년 만에 친어머니를 만나 한국을 몇 차례 오가며 가족의 정을 느끼기 시작한다. 하지만 한국의 사촌오빠가 수잔의 도움으로 스웨덴에서 사업을 벌이면서 갈등은 시작된다. 수잔은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사촌오빠를 초청했고 수잔과 함께 무역업을 벌인 사촌오빠는 큰돈을 벌어 한국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동업자라 생각했던 사촌오빠가 수잔 몫으로 준 돈은 단돈 200달러였고 실망한 수잔은 "당신은 사촌이 아닙니다."라는 말과 함께 200달러를 돌려주게 된다. 그 후에도 친오빠가 스웨덴 초청을 요구한다. 수잔은 "사업을 하기 위해 온다면 거절하겠다."라는 단서를 달고 받아들이나 오빠는 약속과는 달리 사업을 벌이다가 수잔이 도와주지 않자 돌아가 버린다. 이에 친어머니는 수잔만 질책했고 결국 수잔 브링크는 한국 가족들과 절연한다. 그녀는 가족으로부터 행복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내용이다.

수정이가 나중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할 때 수많은 수잔 브링크 중 한 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잔이 선교사에게 배운 아리랑을 피아노 연주와 함께 부를 때 가슴이 뭉클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수정이도 자신의 삶에 날개를 활짝 펼 수 있기를 염원했다.

수정이를 보내고 난 뒤, 한 번 더 제안이 들어왔지만 거절했다. 어린아이를 안고 다시 비행기에 오를 자신이 없었다. 그건 너무나 슬픈 비행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세월은 훌쩍 흘렀고 나는 수정이를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좋은 소식을 접했다. 위탁모를 통해 알게 된 수정이의 근황이었다. 훌쩍 커버린 수정이가 자기 뿌리를 찾겠다고 국제 법률가의 꿈을 키우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순간 비행기 안에서 그토록 울던 수정이의 빨간 볼이 생각났다. 그때 한없이 측은했던 아이가 제 세상을 찾은 것이었다. 광활한 허공이 수정이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 같아 나는 그제야 환하게 웃을 수 있었다.

고니의 하늘

우수상 | 배문석

푸른 물이 사는 하늘 속이 궁금해 편지를 썼어요
물음표를 깃털에 달고
바다를 닮은 속내를 띄웁니다
철새들이 멀미할 때마다 열어 보이는 저 속살,
파랗다는 이유로 달의 횡선을 물고
새들은 저 길을 가요
그 길 정점은 고요의 지문이 산다 지요
맑고 푸른 누리가 너무 깊어
이슬보다 더 둥글어진 어둠까지 읽어낸다는 전설
바람들이 몰고 온
이국의 풍경들이, 그곳의 타인들이, 멀리 날고 싶은 당신의 속내, 나는
하얀 물감을 찍어 쓴 편지의 행렬들입니다
검은 헝겊처럼 어둠을 가두어버린 눈망울이
이슬을 털고 여명의 커튼을 젖히면
나는 아침 햇살을 날개에 얹고 이륙의 광활을 경험하게 되지요
얼굴이 다르고
말이 다른 이방인들의 긴장이
씨줄과 날줄을 넘나들며 쉼 없이 비행하다가
날개에 피곤이 쌓이면 내려앉고 싶은 새벽을 불러와요
하늘이 파란 것도 다 고니의 눈에 맺힌 동경 때문이라죠
지난밤에는 고니 닮은 비행기가 꿈의 궁리에 내려오고
항성 시간에 맞춘 상상을 섬기는 쪽으로
다시 이륙할 채비로 먼저 잠이 듭니다
달의 뒷면 같은 신비 속에
편지의 절반은 날고 싶은 깃털에도 근육이 생기고
이륙의 본성이 붙어갈 즈음, 고니의 숨결은

별을 끌어안고 밤을 날아갑니다
좀처럼 읽히지 않는 극점의 빙하와
오로라의 눈초리가 부리에 얹힌 그날을 기억하며
타조의 속눈썹에 걸린 초승달이나
낙타 발톱에 새겨진 오아시스의 기원이 다시 궁금해집니다
날아갈 차례를 기다리며
깊이 잠든 고니의 하얀 살갗이 열리면
탑승 계단을 오르는 깃털 속으로 나를 융숭 깊게 내려놓지요
때로는 긴 여정의 초침 위로 별들을 불러내며
중세의 기사들이 말굽을 달리던 자오선쯤에서
한 몸처럼 껴안았던 설렘을 누르고
가고 싶은 미지로 상승기류를 탑니다
정글의 사자 갈기에서 뽑아 올린
열대우림의 포효가 귓전을 적시고
복닥거리는 거리를 넘겨받았던
무성해진 이야기가 착륙의 발톱을 내밀면
질주의 활주로처럼 고니들은 물밀듯이 내려앉지요
공항마다 밀려왔다 밀려가는 철새 무리들이
오후 한낮을 지나가며 한 땀 한 땀씩
오수에 빠져든 비행기의 심연에서 지구의 허물을 깁고 있어요
그리운 사람들이 기워 논 바람의 언어 속으로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편지의 끝 문장을 읽고 있어요
푸른 물속에 띄운 너에게 쓴 편지를

밥 주잖아요

❁ 우수상 | 신경희

며느리는 승무원이다. 결혼 전부터 다니던 직장으로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직하면서부터 아들 집을 오가며 손녀를 보아주고 있는데 아기가 처음 얼마간은 엄마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울기도 하는 등 분리불안 증세가 있었지만 TV 상담 프로그램에서 엄마가 꼭 다시 온다는 약속에 익숙해지면 분리불안이 없어진다기에 비행 나갈 때마다 꼭 안아주며 몇 밤 자고 온다는 것과 선물을 사 온다는 것을 알려 주고 몇 번 그렇게 하는 동안 차츰 우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래도 어린이집을 다닐 때는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우는 날이 있어 선생님의 전화를 받기도 했지만 유치원에 다니면서부터는 부쩍 줄었고, 가르쳐준 적은 없는데 어른들이 주고받는 말을 듣고 알게 된 것인지 엄마는 승무원이라고 말하길래 승무원이 무엇 하는 사람인가 물으니 '비행기 타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새는 며느리가 비행을 나가면 세계지도를 보면서 어디를 갔는지 우리나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는 곳인지, 엄마가 있는 곳이 낮인지 밤인지를 알려 주면서 페이스 톡으로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어 3박 4일 길게는 4박 5일의 일정도 편하게 다녀오고 있다.

이렇게 손녀가 이해한 비행기를 타는 엄마가 하는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 주고 싶은 마음에 '엄마는 비행기에서 무슨 일을 하지?' 하고 물었다. 물어보는 속마음은 승무원에 대한 멋스러움과 여행객을 위해 일하는 자랑스러움을 이해시켜주려는 의도였는데 질문을 던지자 바로 "비행기에서 밥 주잖아요" 한다. 생각할 겨를 도 없이 그대로 나오는 답변 '엄마는 밥 주는 사람'

맞다, 승무원은 밥을 준다. 아직 어리지만 몇 번 해외여행을 통해 엄마와 같은 옷을 입고 일하는 승무원들을 보면서 스스로 터득한 엄마가 하는 일은 '밥 주는

사람'이었기에 며칠 뒤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 날, 집 나서는 엄마에게 '엄마 오늘은 밥만 주고 오는 거지?' 하고 물어본다. 며느리 출근 뒤 너도 이다음에 커서 승무원 할 거냐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밥 주는 거 힘들어서 하기 싫다고 하다가 그래도 비행기 밥은 맛있으니까 엄마 같은 승무원이 되면 좋을 것 같다고 한다.

왜 싫다고 했다가 다시 좋다고 할까를 생각해보니 아이가 말하는 '밥'은 단순히 밥이라는 명사형이 아니라 비행기 여행 중 배고플 때쯤 나오는 맛있는 식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루한 여행 중에 먹는 기내식은 어른들에게도 행복을 주기에 기내식이 먹고 싶어 비행기를 타고 싶다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엄마처럼 밥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에는 어린 소견이기는 해도 엄마가 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나도 비행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먹는 맛난 음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이니 내 엄마는 밥 주는 사람 곧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최상의 칭찬인 것이다.

승무원 교육과정을 잘은 모르지만 며느리를 보면서 승무원들이 받을 교육을 상상해보면 비행 중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한 순발력을 겸한 담력과 판단력, 갑질하는 승객을 대처하는 인내심과 성실성 등의 기본적인 소양에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긍심과 주어진 임무에 대한 책임감이 요구될 것이기에

삶 속에서 급박하게 닥쳐오는 어려움에도 평소에 배우고 익힌 교육과 철학이 인생의 여정에서 발휘될 것이라 단정한 용모와 환한 웃음의 겉모습보다 고운 얼굴만큼 예쁜 마음과 사려 깊은 행동과 가족들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자랑스럽다.

남들은 잘 해줘 봤자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라고 하면서 내 눈에 며느리 콩깍지가 끼었다고 하지만 며느리는 집에서뿐 아니라 어디를 가든, 누구에게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기에 친척들 모임 후에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면 며느리 칭찬을 잘하신다.

가끔씩 아들이 회사 승무원 칭찬 게시글에 며느리 이름이 오른 것을 보여주는데 어린아이 동반 승객이 힘들지 않게 편의를 봐주었다거나 상냥하고 최선을 다하는 서비스에 기분 좋은 여행을 할 수 있었다는 내용 등으로 보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서도 샌다'라는 말을 '집에서 잘하는 며느리가 나가서도 잘한다'는 말로 바꾸어 본다.

며칠 전 며느리가 10년 근속패를 받아왔다.

결혼 전에는 혼자 몸이었지만 결혼 후 육아와 병행하며 비행을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로 더구나 새벽에 나가는 날도 많고 또 밤새 비행하고 들어와서 나와 교대를 하고 나면 곧바로 아이를 돌봐야 하는 일이 힘겨울 텐데도 "괜찮아요"라고 하면서 힘든 내색 없이 늘 밝은 모습으로 지내 온 시간들이 고맙고 대견하다.

근속 패를 받은 이튿날 며느리는 3박 4일의 장거리 비행을 가고 손녀에게 엄마가 회사 다닌 지 10년이 되었으며 십 년은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다닌 무척 긴 시간이라는 것과 힘든데도 너를 이렇게 이쁘게 자라게 해주는 고마운 엄마지 그래서 회사에서 저렇게 상을 주는 것이라며 근속패를 보여주었더니 '우와' 하면서 자기도 엄마한테 주어야겠다면서 색종이 몇 장을 구겨서 꽃을 만들고는 넓은 종이에 인제 배우기 시작한 한글로 "엄마 추카해. 사랑해"를 썼다.

드디어 며느리가 밤새 장시간 비행에서 들어오는 날, 책상 위에 만들어 두었던 꽃과 종이를 들고 현관으로 달려가 내밀며 엄마 품에 안기자 "고마워" 하면서 아이를 꼭 껴안는 며느리 눈에 눈물이 글썽인다. 10시간 넘는 비행에 만석이었단다. 딸이 주는 선물로 피로가 가시고 힘든 여정이 위로받는 듯한데, 글썽이는 눈을 모른 척해가며 집에 갈 채비를 하는 마음이 영 짠하다.

마음 같아서는 잠시 더 있으면서 옷을 갈아입고 씻는 동안이라도 아이를 보아주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부모가 있으면 아무래도 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 얼른 인수인계를 하고 나왔다. 늘 이렇게 며느리가 들어오면 바로 가는 것이 생활화되었고 이제는 어쩌다 사흘 쉬는 날이 될 때 가족들이 한데 모여 식사도 하고 밀린 대화도 나누는 일상에 익숙해졌다.

"항공기 승무원은 좌석 상태 점검과 좌석 안내, 구급약·비상용 장치의 확인 및 승객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하여 승객의 안전을 꾀하고, 필요한 안내방송과 음식물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승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일을 담당한다."[네이버 지식백과]고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안내 뒤에는 항상 기쁜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된 웃음으로 자신의 일에 만족하며 승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기에 가정에서의 협조 또한 중요할 것이다.

그러려면 승무원 며느리와 시어머니 둘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조화는 어느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문제이므로 손녀가 7살이 되도록 육아와 직장생활 두 가지를 모두 잘해 나가고 있는 내 며느리에게 높은 평점을 준다.

여러 일 중에서도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이라는데 아무리 직업이라지만 적은 수의 승무원들이 몇백 명 승객을 위해 최선을 다해 행하는 일들에 작은 고마움이라도 가질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행객들이 많아지길 바라면서 이 글을 통해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 사랑의 인사를 전한다.

세비아의 밤

❁ 우수상 | 오미향

창가 쪽 좌석을 찾아 자리에 앉자마자 안전벨트를 맸다. 휴우, 기다란 한숨을 내쉼과 동시에 눈은 창밖을 향했다. 활주로를 따라 느린 걸음을 옮기던 비행기는 굉음에 가까운 엔진 소리를 내더니 힘차게 도움닫기했다. 약간의 흔들림이 있나 싶더니 비행기는 하늘 위로 가볍게 안착했다. 이어 숨 고르기하듯 지상의 풍경을 내보였다. 타원형 창으로 영종도의 갯벌이 내려다보였다. 숨구멍 사이로 꼼지락대며 호흡하는 뻘 속 작은 생물의 숨소리가 이곳까지 들리는 듯했다. 기분 탓일까. 그것들의 여리고 힘든 숨이 내 호흡과 비슷한 강도로 다가왔다. 잘 떠나는 것일까. 이 여정을 선택한 것은 그동안 참아왔던 숨을 내뱉고 싶어서다. 숨구멍 하나를 뚫어보고자, 그래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나의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비행기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손목시계 바늘은 9를 가리키고 있었다. 방 커튼을 열어 하늘을 보았다. 건물들 사이의 고여있던 햇살이 들어왔다. 눈이 부셨다. 세비아는 여전히 대낮이었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기 싫어 꼭꼭 숨어드는 사람처럼 줄곧 나와 함께 했던 태양은 아직도 빛을 떨어뜨리지 않았다. 이 도시에 밤은 찾아오기는 하는 걸까.

14시간에 걸친 비행 끝에 마드리드 바라하스 공항에 도착했다. 다시 세비야로 7시간 가까이 버스로 타고 이동했다. 날짜 변경선을 넘어오고 썸머타임이 있는 나라지만 아직도 낮인 것이 낯설었다. 오는 여정 내내 밤은 찾아오지 않았고 안달루시아주의 세비야는 잠들지 않았다. 눈을 좀 붙이고 싶었다. 만 이틀을 자지 못해 수면의 영양이 빠져버린 몸은 걸어만 다닐 뿐 내 몸이 아니었다. 축쳐져 늘어져 있는 나뭇가지에 새 이파리를 싹틔우고자 먼 길을 에둘러서 왔다. 길고 긴 비행 동안 내 뇌리를 떠나지 않는 것은 그 누군가를 지우는 일이었다. 깨끗이 지우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야 할 것 같아 왔을 뿐이다.

택시 기사는 더는 들어갈 수 없다고 너스레를 떨며 한참이나 떨어진 대로변에 우리 모녀를 내려놓았다. 유럽의 길은 편하지 않았다. 그 많은 관광세와 체류 비용을 먹고 살아도 보도블록의 경사는 여전했다. 딸그락 딸그락, 트렁크 바퀴가 떨어져 나갈까 걱정스럽기까지 했다. 짐가방을 끌고 골목을 돌고 돌아 구글 지도가 안내한 곳에 멈췄다.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있는 5층 건물들 중 제일 낡고 보잘 것 없는 건물에 태극마크가 있었고 '책 읽는 침대'라는 글씨가 보였다.

민박집은 3층부터 2개 층을 쓴다고 했다. 집주인은 엘리베이터가 작아 트렁크 두 개 실으면 꽉 찬다면서 짐부터 올려보내고 나서 다음 차례로 우리 둘이 타고 올라오라고 했다. 자신은 짐을 부리고 다시 내려오겠다고 했다. 이렇게 작은 엘리베이터가 나무 난간을 타고 오르내리는 게 신기했다. 안내받은 방은 크지도 작지도 않았다. 곧장 침대로 쓰러졌다. 밤이 오지 않아서일까. 스페인에 도착했다는 안도감 때문일까. 몸은 엄청 피곤한데 잠은 오지 않았다. 딸아이도 뒤척거리긴 마찬가지여서 동네나 한번 돌아보고 오자고 했다. 모자와 선글라스를 챙기고 밖으로 나왔다.

공기는 서울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미세먼지 없는 하늘, 온종일 내리쬐는 태양, 그러나 아침저녁으로 쌀쌀하다고 느껴지는지 이곳 사람들은 제각각 얇은 오리털 파카를 걸치기도 하고 반 팔을 입기도 했다. 거리마다 모퉁이마다 작은 테이블이 있었고 가벼운 술 한 잔이 오고 갔다.

"엄마 이거 어때? 차멀미에 그만이래요."

딸은 포도주에 탄산을 곁들인 샹그리아 잔을 높이 들며 내 기분을 살폈다. 레드와인 빛깔이 상큼해 보여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아졌다. 길게 자른 멜론 위에 얕게 저민 하몽이 나왔다. 들쩍지근한 기름끼가 훈제 향으로 덧입혀진 하몽은 달콤 쌉싸름한 멜론과 어울릴 것 같지 않았지만, 맛은 괜찮았다. 과일과 고기의 조화로움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와 나도 이렇듯 하몽과 멜론 같은 사이였을까.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음식 궁합처럼 각자의 주변에서 맴돌기만 하다가 번듯한 요리가 되어 테이블을 장식하는 것일까. 왁자지껄한 밤 분위기는 여기가 서울인지 스페인이지 모를 정도로 정겨웠다. 옆자리의 외국인은 나와 눈이 마주치자 '치얼스'라고 말하며 방긋 웃었다. 건너편의 여성은 가볍게 잔을 들어 건배하듯 거리를 두고 내 술잔과 부딪치는 모습을 연출했다. 한 잔의 술을 앞에 놓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얼굴이 다름이 장소가 익숙지 않음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를 만나면 이렇듯 그동안의 일은 잊어버리고 샹그리아의 보랏빛 색감과 향만을 음미할 것이다. 어떻게 지냈냐는 궁금증이랑 묻어버리고 왜 자취를 감췄는지, 내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알려고 하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취하도록 마시고 잠을 청하리라. 그저 술 한 잔에 이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첫날 세비야의 밤은 깊어만 갔다.

남편에 대해 들었다는 P의 전화를 받았다. S전자 바르셀로나 지점에 근무하는 P는 스페인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을 여행하다가 남편과 비슷한 한국인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잔잔한 수면 위로 물수제비가 총총총 세 번씩이나 뜨듯 파문이 일었지만, 심장이 순간 멎어버리는 줄 알았지만 애써 마른 침을 삼키며 침착하려 애썼다.

남편은 20년 전 스페인으로 혼자 떠난 이후 갑자기 사라졌다. 시간은 내게 잊는 법과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될 일도 삼키는 방법을 견디게 했다. '증발 = 죽음'이라는 공식을 애써 믿게 하는 힘이 있었다. 그렇지만 확인이 된 게 아니니까 살다 보면 어느 한곳에 정착했을 테고 그러다 보면 우연히 눈에 띌 수도 있었겠지. 여러 겹의 시간이 흘렀지만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어디서든 잘 지내고 있으면 그만이라고 떨어버리려 했지만 아니였다. P가 흘리는 단어 하나, 지명 하나까지 단서를 찾아보려고 의미를 부여해보려고 애를 써가며 전화기를 힘주어 잡았다. 호수 밑바닥 심연에서 긴 잠을 자던 그가 내가 수없이 던진 돌멩이들 가운데 하나가 만든 파문을 드디어 알아챈 걸까. 배시시 깨어나 팔다리를 흐느적거리며 참았던 숨을 수면 위로 뱉으려는 것일까.

한 달 전 본사에 다니러 왔다던 P가 다시 연락했다. 스페인 현지 교민들을 대상으로 대사관 측에서 마련한 행사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전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은 다를 바 없었던지 특이한 이력으로 성공한 사람과 이러저러한 사연들로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다. 부러 한국인이 아닌 척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인상착의나 분위기로 봐서 아무래도 남편인 것 같다는 거였다. P는 남편의 단짝 친구이기도 하고 그의 증발에 대해 일종의 부채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있었다. 나 못지않게 P는 그의 스페인으로의 출국, 연락 두절과 사라짐, 그를 찾기 위한 노력 등을 해왔다. 그를 알아보려 수소문해 봤지만 이름, 연락처, 사는 곳도 모르고, 기이한 인물로 가끔 회자 되기만 했다며 P는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 남편일지도 모른다는 아득함이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사실로 구체화 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가 일었다. 그를 찾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망방이질 쳤다. 이제는 남편과 비슷한 사람을

보았다는. 분명히 그였는지 그와 닮은 사람이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발자국이어도 좋았다. 그가 내디뎠던 땅의 아스팔트라도 그가 숨 쉬었던 공기라도 맡고 싶었다.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라도 그를 마지막으로 볼 수만 있다면, 그다음 어떻게 할지는 그때 생각해보겠다. 물어야 할 것도 혼자 지낸 시간의 억울함도 이제는 색이 바래고 빛을 잃은 지 오래였으므로 그의 얼굴을 한 번은 봐야 정리가 될 것 같았다. 우듬지에 새순이 생겨나듯 봄햇살에 기운이 솟아나듯 갑자기 삶의 목표가 생겼다. 용기를 내서 스페인에 가보기로 했다.

한편으론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얘들 말처럼 우리에겐 남편은 아빠라는 단어는 기억이고 추억일 뿐이다. 두 아이는 잘 자라주었다. 아빠를 찾을 때마다 먼 곳에 있다, 조만간 선물 들고 돌아올 거라는 말이 산타 할아버지의 존재만큼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을 아이들은 철들며 알아버렸다. 바지런히 움직이던 낮이 지나고 밤이 찾아와도 잠들기가 어려웠다. 혼자 빈 우물에 들어앉아 있는데 자꾸만 지하에서 물이 샘솟아 발버둥치며 빠져나오지 못하는 꿈을 자주 꾸었다. 수원이 말라버린 깊은 어둠 속에서 우물 벽을 박박 긁으며 지상으로 올라오고자 몸을 뒤틀다가도 물이 서서히 차오르면 허우적대곤 했다. 우물 밖에는 남편이 아이들이 있었지만 바라만 볼 뿐 두레박을 건네지도 얼른 나오라고 외치지도 않았다. 심드렁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살려줘, 라는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잠이 깨곤 했다. 우물의 테두리가 자꾸만 좁혀지면서 내 목을 죄어오는 것 같았다. 가족사진의 네 귀퉁이를 단단히 붙들어 매야 할 대못 하나가 빠진 채, 덜거덕거리는 책상 모서리를 붙들고 살아온 시간들이 위태위태했다.

"우리에게 아빠가 있었나요? 저는 아빠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아들이 말했다.

"지금 와서 아빠를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빠는 우리를 버리고, 잊어버리고 찾지 않았잖아요?"

엄마만 바보같이 아직도 그러고 사냐고 딸은 울먹였다. 부부로 산 몇 년의 짧은 시간이 평생을 이어지게 하는 끈이었을까. 한 번 인연이 끝까지 가는 것일까.

"마음이 거기로 이끌고 있어. 엄마를 이해해줘."

딸은 엄마가 힘들어하는 게 마음에 걸린다며 여행 계획을 짜보겠다고 했다. 단 아빠라는 명제를 빼고, 기분 전환하고 마음 추스르라며 유럽의 문화를 즐겨볼 것을 당부했다. 때마침 집시 축제가 안달루시아 주 세비아에서 열린다며 그쪽으로 알아보겠다고 했다. 아빠 없이도 잘 살아왔다며 엄마의 인생을 또박또박 걸어나가라며 내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딸의 말처럼 이제 와 찾아 나선 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다. 의미는 없었다. 만난다는 희망도 없었다. 단지 알고 싶을 뿐이었다. 묻고 싶었다. 그날 그 시간 이후로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지? 당신은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한참을 딸그락거렸다. 민박집은 벨이 없었다. 둔탁한 현관문을 직접 열고 들어오라고 주인이 열쇠를 세 개나 줬다. 하나는 방 키이고 둘은 위아래로 꽂아 옆으로 밀면서 여는 현관 키였다. 딸아이가 이리저리 열쇠를 돌려봤지만 잘 열리지 않았다. 문은 퍽이나 오래되고 낡아서 틈이 미세하게 벌어져 있었고 열쇠를 돌릴 때마다 삐그덕 소리를 냈다. 요령껏 손에 힘을 주면서 살짝 들어올려야 했다. 첫날부터 주인을 부르기가 뭐해서 한참을 문을 여느라 헤맸다. 딸이 하는 대로 지켜만 보았다. 힘들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번엔 엘리베이터가 문제였다. 계단을 올라가는 입구에 얼기설기 엮인 빗살문이 잠겨 있었다. 버튼에 빨간불이 켜졌으나 엘리베이터는 내려오지 않았다. 잠시 막막해 서 있었는데 외국인이 들어왔다. 그가 자연스럽게 버튼을 누르자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우리보고 탈 거냐는 손짓을 했다. 괜찮다고 먼저 올라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어떻게 엘레베이터가 작동을 한 건지. 아까는 분명 안 됐었는데. 가끔은 우리가 모르는 신호 체계가 이국의 낯선 곳에 잠재해 있었고,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우리를 작아지게 만들었다. 잠시 후 천천히 내려온 엘레베이터에 무사히 올라타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숙소에서 가까운 '오 드 파라솔'은 최근에 지었졌으며 태양이 양산처럼 펼쳐지는 장소이자 광장이라고 했다. 건축물과 계단이 환상적으로 펼쳐진 광경이 아름다울 거라고 딸이 얘기했다. 그녀는 엄마가 유명한 관광지를 원치 않는 것 같아 민박집 주변으로 소박한 몇 군데를 찾았으니 가볍게 걸어보자고 했다. 숙소 주변 입구에 자리 잡은 커다란 미루나무를 중심으로 길이 오거리를 만들며 뻗어있었다. 유럽의 거리는 로터리 같은 구조가 많았다. 별모양을 만들며 사람과 말이 걸었던 거리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다. 이 건물을 올리기 위해 터파기 작업을 할 때 많은 유품이 나왔다고 했다. 그 유물과 유품들은 지하 공간에 투명한 유리를 씌운 방에 잘 보존돼 있었다. 우리가 청계천 변의 피맛골 개발할 때 유적지라고 표시해 둔 그 모양새였다. 저 사물의 터 안에서 밥을 지어 먹으며 울다가 웃다가 한낮의 태양을 고스란히 받고 살았던 사람들의 의식주가 담겨있겠지. 유골 하나에 각 부위의 뼈 여러 개가 크기를 달리한 채 어지럽게 나열돼 있었다, 유명한 사람의 시신이라면 저리 놔두지 않을 텐데. 이곳 민초들의 삶이 구겨진 채 누워서 유리창 너머의 미지의 외국인과 눈을 맞추고

있었다. 저 유리관 안에서 이 건물이 있기 전 숨을 쉬고 노동했던 한 사람의 냄새와 자취를 더듬는다고 하면 무리일까.

그도 저렇게 차가운 지하실에 누워 있는 것은 아닐까.

엄마 무슨 생각을 그리 해? 여기로 올라오라는 딸의 손짓에 위를 올려다보니 '오 드 파라솔'의 굴곡진 지붕이 눈앞에 나타났다. 듬성듬성 서 있는 세 건물 지붕 위로 기찻길처럼 레일을 만들어 걸어갈 수 있게 배치한 구조는 길게 주단을 펼쳐놓은 듯 늘어져 있었다. 긴 그림자가 뇌리를 훑고 지나갔다. 옷감을 길게 늘어뜨린 듯한 저 형상은 그를 처음 만났을 때 밟았던 기차의 뒤꼬리와 흡사해 보였다.

최루탄이 빈번하게 남발되던 시대. 나는 닭벼슬 머리를 한껏 매만졌다. 뽕이 달린 원피스는 가녀린 어깨를 풍성하게 만들어 자신감을 불어 넣기에 충분했다. 눈두덩이는 보라색 아이섀도우로 신비로움을 돋보이게 했다. 신촌 사거리 찻집에서 한참을 기다려도 미팅을 주선한 친구도 상대방도 나오지 않았다. 그날은 도서관 옥상에서 아는 사학과 선배 언니가 삐라를 뿌리며 동참하기를 외쳐댔었다. 비겁하게도 나는 그 난리 통을 피해 정문을 빠져나오고 약속 장소로 내 달렸다. 사회문제와 데모라는 현상은 나랑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고 자위하던 때였다. 예쁘게 차려입고 조그만 핸드백을 메고 불어사전과 원서를 손에 안고 사뿐사뿐 걸어 다니던 교정에는 이념과 방관이 혼재하던 때였다. 서클에서 야학을 준비하며 농활을 떠나는 모습을 애써 외면하며 나는 세기의 실존을 잔뜩 안고 있는 이방인같은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날 그 난리 통을 피해 찾아간 '난다랑'이라는 찻집에서 약속한 미팅 상대는 나오지 않았다. 아마 근처 세 학교 연합 집회에 동참해서라고 주선한 이가 나중에 얘기했을 뿐이었다. 생크림이 잔뜩 올라가고 계피가루가 살짝 얹힌 비엔나커피는 맛이 있었다. 홀짝거리며 차를 마신 후 20 여분을 걸어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작은 교문을 지나면 철길이 나왔다. 철길 위 다리에 서서 교외선 기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기차의 마지막 꼬리를 밟으면 재수가 좋다고 학생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있었다. 한 번도 운명이라는 것을 믿을 나이가 아니었기에 그냥 지나쳤었다. 그날은 일부러 기다렸다. 천천히 기차의 여운을 듣고 심호흡을 하며 두 손을 벌려 공기를 마시며 기다렸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꼬리를 밟아보리라. 어떤 행운이라도 받을 게 있다면 받아보리라. 간절히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나의 의지에 관계없이 행운을 받아보고 싶어서였다. 기차가 오는 소리가 고막을 찔렀고 길지 않은 기차는 단숨에 지나갔다. 아주 잠깐 햇살은 보일락 말락, 메르쏘가 서 있었던 알제리의 해변가의 그 강렬함은 아니었다.

오후 수업이 있었으나 교정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철교 위에서 한 시간 가까이 서 있었다. 돌아서서 좀전의 그 다방으로 향했다. 이번에도 비엔나커피를 시켰다. 혼자 있는 내가 낯설었는지 힐끔힐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했다.

"죄송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갑자기 한 사람이 내 앞에 앉았다. 이마를 수건으로 동여매고 한복차림이 어디 시골 장터에서 물건을 팔다가 뛰쳐나온 사람 같았다. 비 오듯 땀이 흘러내리는데도 수건을 벗어 닦을 생각도 못 하고 머뭇거리기만 했다. 우스꽝스런 양반 탈과 장비를 의자에 놓는 것을 보아 한바탕 탈춤을 추고 온 모양새였다. 교내시위가 끝나고 그 여세를 몰아 동대문까지 행진하고 오느라고 늦었다면서 미안해 어쩔 줄 몰라 했다. 매캐하고 질척거리는 냄새가 그의 옷에서 나는 게 아니라 얼굴 가득한 자잘한 솜털에서 흘러나왔다. 그는 지금까지 있을 줄 몰랐다면서 의아해하는 눈치였다.

"아니거든요. 기다린 게 아니라 기분이 그래서 다시 왔을 뿐이에요. 혼자 넘겨 집지 마세요."

연신 미안하다는 말과 더불어 직전에 있었던 상황을 보고하는 사이 다시 시킨 비엔나커피가 나왔다. 수북이 올린 생크림이 아까보다 풍성해 보였다. 계피의 향이 코끝을 자극하며 신경계를 돌아 온몸으로 퍼졌다. 나른하고 달달한 오후였다.

오 드 파라솔 옆 카페에서 시킨 샹그리아는 알코올이 적다고 했지만, 피곤한 근육을 이완시켰고 혀끝에 와 닿은 향은 감미로웠다. 딸은 엄마가 이틀 만에 술맛을 알아버렸다며 농담을 건넸다. 딸은 내 모습에서 눈치를 챈 것인지 그냥 하는 소린지, P 삼촌이 얄밉다고, 괜히 엄마의 마음을 헤집어놨다면서 구시렁댔다. 아빠를 봤다느니 찾아보겠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엄마 그동안 고생했으니 유럽의 중세문화를 보고 즐기며 힐링하라며 잔을 부딪쳤다. 연신 나에 대한 배려와 걱정으로 그녀는 여행 내내 자잘한 웃음과 조크를 아끼지 않았다. 그렇지만 처마 밑의 해묵은 먼지를 털어내듯, 오래되어 빛바랜 가구와 살림살이들을 버릴 수는 없었다. 아날로그적 정서와 감성으로 똘똘 뭉친 향수와 기억들을 이삿짐에 실지 않고 떨어뜨린 채 집을 나설 수는 없었다.

처음에는 실타래였다. 수북이 바구니에 담긴 한갓 실뭉치였다. 하나, 둘씩 실매듭들이 꼬이고 엉키다 보니 본래의 실을 찾을 수 없었다. 출구를

빠져나오지 못한 남편도 그랬다.

"또 늦어요? 맨 날 친구야? 그렇게 친구들하고 만나 놀았으면 이제 좀 그만 봐도 되잖아?"

"……"

"아이고 형수님,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 워낙에 잘 생겨서요, 남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용서하십쇼."

술자리에서 나랑 통화하는 소리를 들은, 곧잘 어울려 다니던 P가 수화기를 빼 들고 대변했다. 말이 없고 무뚝뚝한 그에 비하면 P는 여자처럼 섬세하고 나긋나긋했다. 내 기분을 헤아리기도 하고 비위도 잘 맞췄다. 남편이 내게 미안해할 일을 후배이면서 친구인 P가 역성을 들어주는 모습이었다. 남자들 사이에서 잘생긴 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터인데 인기가 많다고 하니 웃음이 나왔다. 남편은 항상 나보다 친구가 우선이었다. 잡아 놓은 물고기에는 죽지 않을 만큼의 먹이만 의무적으로 줬다. 눈길도 없었다. 당시 샐러리맨이 그렇듯 회사에 목매달며 충성해야 한다는 이유로 술자리가 필수이다보니 가족은 자연스레 열외가 될 수밖에 없었다.

어항 속의 가둬놓은 물이지만 햇살을 받으며 출렁이고 싶었고 때론 윤슬처럼 반짝이고 싶었다. 나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말이 없던 그는 집에 들어설 때면 항상 구둣발로 리듬을 맞추듯 딸각딸각거리며 들어서곤 했다. 술 취하면 흐느적대느라 넘어지기도 했다. P를 위시한 다른 친구나 회사 동료의 어깨를 빌리거나 팔짱을 끼고서 새벽이 되어서야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다. 부축을 받는 건지 서로 즐기는 건지 헤어지기 싫은 건지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일일이 살피기에는 나는 여유가 없었다. 한가하게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챙기고 배려할 만큼의 에너지가 없었다. 연달아 딸과 아들을 출산한 것이다.

그는 술자리가 없는 날이면 퇴근 후 학원에 등록해 영어회화를 배웠다. 열심히 사는 줄만 알았던 그가 나중에 밝혀졌지만 영어가 아니라 댄스를 배웠다고 해서 놀랐었다. 젊은 회사원이 넥타이를 매고 종로에서 서양 댄스를 배우러 다니는 게 말이 되는가 싶었지만, 스트레스 해소쯤으로 생각하고 넘어가 주었다. 그러느라 독박육아를 쓰게 된 나는 점점 우울해져만 갔다. 육아와의 전쟁으로 피폐해져 갔다. 그러던 남편이 갑자기 회사를 휴직하고 스페인에 가겠다고 했다.

"스페인? 그 먼 곳을? 이 어린 것들을 놔두고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나를 모르겠어. 지금이 아니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 조금만 참으면 돼. 일 년만 고생하면 올 수 있을 거야."

"회사일이 아니면 무슨 일로 가는데? 해외 파트 파견 신청하고 기다리면 되잖아요?"

서류 가방 안에 빽빽이 들어 있는 게 뭐냐고 물어도 그는 별거 아니라고 둘러댔다. 그냥 회사에서 필요한 자료와 물품이라고 했다. 어느 때인가는 궁금해서 가방을 열었더니 무용 슈즈가 떨어졌다. 이게 뭐냐고, 발레 배우냐고 물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만 했다. 귀가 시간이 늦어지면 피로가 많아질 텐데 더욱 활기찬 모습이었다. 혼자 콧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다. 톡톡톡 발을 구르기도 했다. 아들을 안으면서도 흥얼거렸고 딸 아이 손 잡고 하나, 둘 셋 리듬에 맞춰 발을 맞추기도 했다. 흥이 많아서 대학생때 민속문화연구회에서 탈춤을 배우고 마당극 같은 공연을 관장해서 그런가 보다 했다.

"왜 하필 스페인이야? 스페인에서 연구해보고 싶은 공부나 일이라도 있어요?"

끊임없이 쏟아지는 나의 질문에 남편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의 이상향이 스페인이라니? 1년간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그 나라에서 그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역사학을 전공한 그가 우리나라 것에 대한 애착이 강한 줄은 알았지만 유럽문화를 연구해 비교논문을 쓰려는 것인지, 사업 아이템으로 잡을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하겠다는 말인지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한 나는 불안이 극에 달했다.

책상 위에 늘 세계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지식에 대한 욕구 때문에, 공부를 위해서 그 나라로 가는 거라면 그나마 용서가 됐지만, 나와 아이들은 뭔가, 라는 질문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는 나의 물음 어느 것 하나에도 명쾌한 답이 없었다. 그저 말없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지우려는 것 같았다. 딱 1년이라 버텨 보자고 생각한 게 우리의 인생을 바꿔 버렸다. 투사는 시위대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떠나지 못할 것 같다는 그 긴박감이 무엇인지 알아봤어야 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서라도 따라나섰어야 했다. 세상 경험도 연륜이 없었던 새내기 주부였던 나는 용기가 없었다. 유난히 병치레가 심했던 두 아이를 낯선 땅에서 혼자 키우기가 버거웠다. 옆에서 이따금씩 봐주던 친정엄마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때였다. 그 당시는 해외 자유여행이 흔하지 않을 때라 해외에 나가려면 다소 번거로울 때였다. 스페인 땅이 그렇게 크고 각 주마다 자치정부의 역할이 커서 나름 독립적인 구조라는 지식도 없었을 때였다. 그저 가야겠기에 이유도 묻지 못하고 나를 버리지는 않으리라는 확신 아닌 신뢰에 억지로 나를 욱여넣던 때였다. 시골에 있는 남편 명의의

과수원에서 수확하는 감귤이 우리의 생계를 책임졌다. 가끔씩 전해오는 소식으로는 그는 잘 지내고 있고 계획했던 일이 생각보다 길어져 예상보다 길어질 것 같다는 불길한 말들을 쏟아냈다. 한 번도 나와 아이들을 잊어본 적이 없다고, 자신 또한 외롭고 힘겨운 길을 왜 가야 하는지 먹먹하다고 했다.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는 게 버거웠다. 육아에 전념하느라 나는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했다. 그렇다고 기약도 없이 떠난 남편만을 기다릴 수는 없었다.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잎이 나고 줄기가 굵어지면서 자라나는데…… 잘 마무리 하고 돌아오겠거니 잠시 영혼의 자유를 준다고 생각하자. 알뜰살뜰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곳의 안부를 묻고 그곳의 안부가 시베리아 사막을 건너 몽골의 초원을 뛰어넘어 두어 차례 오고 갔다. 그러던 어느 해인가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다. 그 누구를 붙들고 하소연할 수도 없는 그 머나먼 곳. 그곳 대사관과 지인들을 통해 확인된 바로는 어느 날 갑자기 연락도 없이 그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시간의 추는 누구에게나 공정했다. 한 치의 흔들림이 없이 무거우면 무거운 쪽으로 기울었다. 가볍다 싶으면 무언가를 얹어 중심을 잡았다. 그렇게 그가 떠나고 10여 년이 흘렀다. 그날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두 아이를 학교로 내몰고 일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을 때였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아침 햇살을 갈랐다.

"나요, 잘 있었소?"

"동 동 동후 ㄴ, 동훈, 동훈씨 맞죠? 왜 이제야……"

소식이 끊기고 나서 기적적으로 중간에 한 번 연락이 온 것이다. 그저 잘 있노라고. 자신을 찾지 말라고. 미안하다고. 다음 생에선 당신과 아이들을 챙기겠다고,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했다. 마지막까지 이기적인 사람. 살아만 있는 걸로 안심하라는 뜻일까? 가정에 대한 직무 유기, 배우자에 대한 불신, 파탄의 책임을 물어 헤어져야 할 이유는 분명했다. 그가 먼저 나를 버렸다. 인연이 아니다 싶으면 나도 버리면 되는 것을. 그래도 포기가 되지 않았다. 최루탄이 빗발치던 그때 허연 분가루를 뒤집어쓰고 마스크를 벗으며 들어섰던 그 모습이 잊히지 않았다. 아무 말 없이 기차 꼬리를 밟았던 그 석양빛이 그리웠다. 늘 친구의 어깨를 빌려 귀가했던 술 취한 모습까지도. 그가 사는 하늘 그 언저리에라도 가보고 싶었다.

"플라멩고 쇼가 근사하대요? 기분도 그런데 보러 가요. 제발 아빠 생각일랑 접어두고요."

저녁과 곁들여 샹그리아를 마시며 한참 추억에 젖어있을 때였다. 내 모습이 심각했던지 딸은 빨간 빌로도 드레스를 입은 무희가 웃고 있는 팜플렛을 들어 올리며 일어나자고 했다. 딸은 냉정했다. 아빠의 증발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꿋꿋하게 살고자 했다. 단지 엄마가 마지막으로 마음 정리할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며 기꺼이 나를 이곳으로 데려다 주었다. 훌훌 털어버리라고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엄마 마음 가닿는 데로 열심히 살고 그걸 즐기면 된다며 쿨하게 얘기했다.

내키진 않았지만 따라나섰다. 때마침 플라멩코 축제가 있어 스페인 전역에서 찾아든 집시 아닌 집시들로 거리는 출렁였다. 스페인 여성들은 잘룩한 허리 아래로 펼쳐진 인어 꼬리 같은 치맛자락으로 바닥을 쓸다시피 하며 거리를 활보했다. 빨간 장미 송이를 앞머리에 옆, 혹은 뒤에 꽂고 밤마실을 축제를 즐기는 것 같았다. 순전히 손과 목소리로만 애잔한 세계를 불러내는, 캐스터네츠로 박자를 맞추며 홀연히 자신의 몸 하나에 집중해 춤사위를 만들어내는 플라멩코는 눈가의 우울 없이는 감상할 수가 없었다. 손에 땀이 맺혔다. 이상하리만치 비 오듯 땀이 흘렀다. 날짜 변경선을 넘어오면서 누적된 여독 탓이려니 생각했는데 앉아 있기가 힘들었다. 실례를 무릅쓰고 맨 안쪽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 틈을 비집고 나왔다. 걱정스러운 표정의 딸을 안심시킨 채. 잠시 바깥 공기를 마시니 살 것 같았다. 그사이 한 차례의 춤사위가 끝났는지 숨을 몰아쉬며 남자 무용수가 밖으로 나왔다. 이마에서 흐르기 시작한 땀방울이 목 아래까지 흘러내리다 못해 상의가 질펀하게 젖어있었다. 나이가 있어 보이는 데도 몸에 꽉 끼는 남자의 바지 매무새가 다소 민망했다. 한주먹도 안 돼 보이는 가는 허리가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몸의 곡선이 부드러웠다. 말미잘처럼 흐느적대는 몸의 흐름과 톳처럼 갈색의 피부가 바다 속세계를 연상시켰다. 이마에 흘러내린 검은 머리 한두 가락이 땀에 빗질하듯 가지런했다. 남편을 찾고자 하는 일말의 미련이 있었는지 혹시 마주치지나 않을까 하는 마음에 뭘 봐도 특별히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단지 피곤에 절은 남자 무용수의 고단함만이 수시로 찾아드는 나의 피로도와 겹쳐 보였다.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처럼 부질없는 일 일런지도 모르겠다. 그저 남편이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안달루시아 지방을 여행하면서 그와의 추억을 되새기는 걸로 마음을 다잡기로 했다.

어제보다는 힘들지 않게 현관문이 열렸다. 엘레베이터도 바로 도착했다. 둘이 타고서 닫힘 버튼을 누르는데 한 남자가 '잌스 큐즈 미'를 외치며 들어왔다. 어 안 되는데 이건 2인용인데요. 말할 사이도 없이 그는 끼여 탔고

문은 닫혔다. 흡사 가족끼리 꽉 얼싸안고 있는 듯이 포옹하는 이 자세가 한없이 어색하고 불쾌했다. '아임 소리'를 연발하는 퀴퀴한 향수 냄새의 그 남자는 차라리 가만히 있어 주는 게 더 나았다. 외국의 엘레베이터는 정말 느렸다. 3층까지 올라갔나 싶었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다. 엘레베이터가 꼼짝을 안 하고 멈춰서 버린 것이다. 갇힌 걸까. 소리라도 쳐야 되지 않을까. 서로 맞붙지 않으려는 이 자세가 불편했다. 같이 탄 사람은 이국적인 눈매에 검은 머리칼이 무성하게 자란, 그렇지만 어딘가 낯이 익었다. 한눈에 봐도 아시아인인 것 같아 말을 걸면 한국말을 할 것 같았다. 아웃 오브 오더, 고장이 난 것 같다며 그 사람은 입김 뿍뿍 내 쉬며 전화로 엘레베이터 문을 따 달라고 했다. 알고 보니 민박집에 같이 머무는 사람이었다.

딸은 피곤했던지 옆 침대에서 곤히 잤다. 잠이 오지 않아 나는 일어나 가디건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매번 고장 나는 엘레베이터와 잘 열리지 않은 현관문을 걱정하면서도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며 밤공기를 들이마셨다. 성당 종탑을 따라 조금 걸어가니 미루나무가 보였다. 그 주변 선술집에서는 몇몇 사람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샹그리아와 하몽 두 조각을 시켰다. 모르는 이방인의 언어 사이에서 낯선 곳에 홀로 앉아 있으려니 또다시 남편 생각이 났다.

"헬로, 책 읽는 침대 엘리베이터 오케이, 한국 사람?"

의외의 한국어 소리에 쳐다보니 아까 엘레베이터를 함께 탄 그 남자였다. 나도 모르게 반가움에 아, 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다. 그 사람은 반갑다며 자신은 한국계 스페인사람이라며 한국어를 어머니에게서 조금 배웠다고 했다. 민박집 주인하고는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했다. 그러냐고 세비아의 밤이 참 아름답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과 함께 살았던 남자도 한국인이라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고 말했다. 세비아에 언제까지 머무를 거냐고 묻기에 3일 정도라고 했고 모레 아침 그라나다로 이동한다고 했더니 플라멩고 쇼를 꼭 보고 가라고 했다. 안 그래도 오늘 봤는데 인상 깊었다고 춤이 화려하면서도 아련한 슬픔 같은 것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는 알고 지내던 친구가 무용수라며 명함 한 장을 내밀며 이곳에서 일하니 제대로 된 플라멩고 쇼를 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감사하다고 전하고, 반쯤 남아있던 샹그리아 잔의 얼음을 돌려가며 시원함이 녹아들길 기다렸다 마저 마셨다.

민박집에서 뒹굴거리는 게 답답했던지 딸이 광장에 가보자고 했다. 혼자 갔다 오라고 나는 조금 쉬고 있겠다고 해도 막무가내였다. 다시 스페인 여행 오기도 쉽지 않은 일이라며 나가자고 했다.

세비야 스페인광장에는 햇빛을 피해 그늘진 궁전 회당 한쪽에서 이름 없는 버스 킹 공연이 한창이었다. 흰머리가 희끗 내비치는 마른 여성이 한이 맺힌 듯한 곡조의 기타와 민속 타악기를 우렁차게 연주하면, 초록색 빌로드천으로 된 드레스를 한손으로 걷어 올린 무희는 한 발자국씩 발을 내리찍었다. 짝짝짝짝짝 짝짝짝, 구두 뒷굽에서 나오는 소리가 요란했다. 한물간 관기처럼 처연한 얼굴과 매력적인 몸매로 춤사위를 펼치는데 왠지 애잔해 보였다.

쨍그랑, 동전이 조그만 바구니에 떨어지는 순간, 격렬하게 손과 허리를 비틀던 무희의 입가에 가는 미소가 일었다. 눈은 가볍게 웃고 있었다. 연이어 쨍그랑, 이번에는 파란 눈의 어린아이가 고사리손으로 동전을 넣고서는 겸연쩍다는 듯 돌아서 엄마품에 안겼다. 이번에도 놓치지 않고 무희의 눈은 미소로 답했다. 예술의 한 동작을 연기하고 있는데도 동전 한 잎에 활짝 웃음이 배어 나오는 고단한 삶의 끝은 어디일까. 무심한 듯 이어지는 공연은 더위가 사그라들지않을 것처럼 계속됐다. 처음에는 눈이 뚫어져라 신기하게 보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빠져 나가고 얕은 판 위에 올라서 오롯이 몸으로 표정으로 춤사위를 펼치던 집시는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춤을 추었다. 어제 극장에서 보았던 집시들의 화려한 춤사위에 비하면 소박했다. 무대를 딛고 화려한 조명과 관객이 없어서였을까. 이들은 이국의 태양을 등지고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에 감사하며 자리를 옮겨가며 판을 즐기고 있었다. 돌아서 나오려는 순간 남자 무용수가 다음 공연을 위해 내 옆을 스치듯 지나갔다.

"Hola! Buenas tardes! Hola!" (올라, 안녕하세요)

그는 고작 몇 사람 없는 관중을 향해 중저음 목소리로 깍듯하게 인사했다.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는 남자가 앞을 향하자 그 모습이 낯설지가 않았다. 스페인사람 사이에서 유독 동양인의 모습을 한 남자. 무심코 눈을 돌렸는데 너무나 낯이 익어서 잠시 쳐다보았다.

아! 나도 모르게 가는 신음소리가 배어 나왔다. 짙은 검은 머리에 구레나루가 얼굴 전체를 가렸으나 검은 눈동자의 동양인. 다져진 근육과 타고난 동안으로 커버했을지 모르지만 눈가에 가늘게 펴진 잔주름이 있는 중년의 사내.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는 순간이 찾아왔다. 행여 나를 알아보기라도 할까 봐 얼른 몸을 돌려 걸어갔다. 몇 발걸음이나 걸었을까. 뒤를 돌아보았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20년이란 시간이 흘렀어도 유난히 몸 전체에 털이 많아 '털복숭이'라 놀려댔던, 몸에 비해 유난히 머리가 컸던 두상은 그의 것이었다. 지켜보던 사람이 모두 떠나고 몇 사람 없는데 그는 잠시 쉬고 나서 무대도 아닌 판 위로 올라가 힘차게 왼발을 굴러 스텝에

시동을 걸었다. 딱딱 탁탁탁, 둔탁하게 떨어지는 소리가 내 심장에 쿵쿵 대못을 박았다. 그는 왜 거기에 올라갔을까. 무대도 아닌 조그만 판대기 위에서 그는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가, 라는 생각이 미치기도 전에 춤은 시작되었다. 여자 무희의 아름다움을 보완해주고 배경이 되어주는 느낌이랄까. 신체적 나이에 아랑곳없이 그의 춤은 박력이 있었다. 각이 서고 절제미가 있는 완벽한 춤사위,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조차 리듬을 타듯이 미끌어지듯 묘하게 비트는 몸의 곡선은 매력적이었다. 힘이 있어 관중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김동훈, 그는 집시가 되어있었다.

놀라움과 더불어 허전함이 밀려왔다. 한참을 앞서가던 딸이 뒤를 돌아보더니 내쪽으로 걸어왔다. 딸이 뭘 그렇게 유심히 보냐는 말에 얼른 고개를 돌렸다. 딸이 알아챘으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앞섰다. 서둘러 말을 둘러대며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숨이 막혔다. 돌아서는 발걸음과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그를 쳐다보는 게 힘이 들었다. 식은땀이 삐질삐질 흘러내렸다. 확인하는 순간 그를 인정하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져 버릴 게 뻔했으므로.

광장 초입 공터에서 몇몇 남자아이들이 커다란 보자기를 들고 투우사 놀이를 하는 게 보였다. 키가 큰 남자애가 보자기를 휘날리면 작은 몸집의 아이가 펄럭거리는 움직임을 따라 쾌속으로 달렸다. 잡아먹느냐 잡히느냐의 게임은 꽤 진지했다. 저 아이처럼 용기 하나만 갖고 보자기를 뚫고 그에게 돌진해야 하나, 잠시 머뭇거렸다.

다리 이름이 이사벨 2세 다리라고 했다. 거기까지 무슨 힘으로 걸어갔는지, 내가 걸었는지조차 기억에 없었다. 딸은 내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석양을 바라보며 마음의 묵은 짐 내려놓고 소원이라도 빌어보자며 내손을 이끌었다. 우리가 머무는 동안 아빠의 그림자라도 밟을 수 있도록, 그래야 엄마가 살 수 있답니다, 그러면서 딸은 기도하듯이 중얼거렸다. 엄마도 빌어보라는 말에 그냥 멋쩍게 웃기만 했다. 이곳은 해가 떨어지지 않았다. 상가의 불이 하나, 둘씩 켜지면 밤이었다. 다리 중간쯤 화약고가 보이는 곳, 시끄러운 남미 음악이 흐르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쿠바 광장이라 간판을 내건 곳으로 들어갔다. 중간중간 집시 복장을 한 여자들이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웃으면서 지나갔다.

살짝 신열이 났다. 정열적인 리듬의 음악이, 사물의 어딘 가에 닿지 못하며 주체하지 못하는 내 손의 움직임을 붙들어 맸다. 그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무희가 되어 버린 남편. 고작 춤이라니. 집시 춤을 추기 위해 스페인으로 왔나. 연락은 왜 못하고. 오래전에 잊혔다고 용서했다고 자위했으나 아니었다. 분노가 하늘을 찔렀지만, 딸에게 감정을 숨기기 위해 무엇보다 아닌 척하고 자연스러워 보이려 애썼다. 자꾸 괜찮냐는, 병원에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딸의 물음에 약간의 피로감과 여독으로 인해 어지러웠을 따름이라고 둘러댔다.

"리드므 조아았써, 안벽해~~요, 퍼펙트, 굿 잡, 굿. 굿."

"오올 라잇, 탱큐~유, 댓스 굿."

"달링은 머 이 있어. 베스트야."

"포에버, 포에버, 아이 러브 유."

세비야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이사벨다리 한쪽 귀퉁이에서 관광객도 아닌 듯한데 어눌한 영어 발음 사이사이 우리 말소리가 얼핏 들렸다. 외국인의 모습이 비슷비슷해보이긴 하지만 낯이 있어서 기억을 더듬어보니 첫날 저녁 쇼에서 봤던 그 집시 같았다. 여전히 꽉 끼는 검정 바지를 입은 그 사람을 마주보며 내게는 등을 돌리고 앉은 사람, 그 남자를 얼핏 본 나는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스페인 광장에서 춤을 추던 그, 남편이었다. 딸아이가 볼까 봐 다시 한번 얼른 자리를 돌려 앉았다. 자리가 불편하다며 딸과 자리를 바꾸어 멀찍이서 둘을 엿봤다. 둘은 티격태격, 늙수그레한 동양 남자와 젊지도 늙지도 않은 스페인 집시는 흡사 사랑싸움을 하는 연인 같았다. 아니 연인이었다. 그들은 한참을 설전을 벌이더니 다정스레 포옹을 하고 서로의 어깨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몇 마디를 더 주고받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윽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더니 가벼운 키스를 나눴다. 술에 취해 늘 친구의 어깨를 빌려 찾아들던 그때처럼 남편은 그에게 기댔다.

황홀한 석양빛이 그 두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한 폭의 살아있는 그림 같은 정물을 몰래 훔쳐보던 나는 딸이 이 여행에서 얻은 것은 석양빛에 물든 중세 스페인 왕국의 찬란한 유산이 아니라 엄마와의 행복한 한때라며 힘주어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현실로 돌아왔다. 말갛게 해가 비친 얼굴을 한 딸이 지구의 반대쪽 낯선 곳에서 해가 떨어지며 밤이 찾아오는 모습을 바라보는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하는 소리도 꿈속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그들에게서 잠시 눈을 뗐다. 딸이 극찬하는 풍경의 아름다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았다. 성의껏 들어주는 척을 하다가 다시 그쪽을 봤다. 남편이 먼저 일어서더니 계산을 하는 것 같았고 그 둘은 다정스레 팔짱을 끼고 걸어나갔다. 한폭 한폭 내딛는 그들의 뒷모습이 아름답다면 질투가 나는 것이었고 아련했다면 애뜻함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생각이 없다. 그저 저 석양빛이 야속할 뿐이었다.

길가에 아름드리 서 있던 오렌지 나무의 선명한 노란빛에 주황인지 보라색이 섞인, 개와 늑대의 시간 같은 모호함과 음흉함이 뒤섞인 석양의 모습은 짧지만 강렬했다. 해는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나면 내일을 기약하며 사그라들고 마는 것을, 그 한순간에 찾아드는 마음의 고요와 평정을 다잡고 싶어서,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눈을 떼지 못했다. 아니 현실의 그와 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하늘만 쳐다봤을 뿐이다. 다시 찾아오지 않을지라도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훔쳐볼 수 있었음이. 내가 그렇게 잡고 싶었던 것이 그 스칠듯한 잠깐의 밝음이었는지 어둠이었는지, 환희였는지 슬픔이었는지 도무지 분간되지 않았다. 내 마음은 소리 없이 주저앉아 내리고 있었다.

남편은 평생에 걸쳐 자유로운 춤을 통해 자신의 영혼에 다가갔을까. 매일 새로운 꿈을 꾸며 날아가고픈 욕망을 잠재웠을까. 그에게 영감을 주고 아름다움에 도전하게 한 것은, 그를 춤추게 한 것은 몸이 지시하는 흐느낌이었을까. 자신을 이해 못 하는 현실의 옥죄는 고통에서 벗어나고픈 숨 가쁜 탈출구가 이 땅이었고 춤이었다면 나의 존재는 무의미했으리라. 그렇지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일을 찾아 나선 그의 행동은 충분히 이기적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몇 개의 성당을 지나쳤는지 모르겠다. 카톨릭의 정신은 죽고 신자는 없는데 스페인 곳곳은 이름 모를 성당으로 가득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대성당도 많았지만 마을 곳곳에 아담하고 정감 어린 성당이 많았다. 심지어 호텔 옆에도 성당이 있었다. 낮에는 보지 못했던 성당이 숙소로 들어가기 전 미루나무 공원 끝쪽에 있었다. 지붕 위 첨탑에 불 밝힌 고딕풍 성당은 저 자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봤겠지. 서울에서도 들어가 보지 않았던 성당에 들어가고 싶었다. 무릎 꿇고 이 운명의 고리가 어떻게 꼬였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그저 하염없이 기도하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으려나. 구체적인 확답을 얻고 싶어 혼자 몸부림치던 잠 못 들던 시간들, 그러나 나를 지켜낸 건 나였다. 고즈넉한 성당, 오고 가는 타국의 사람들, 저멀리 '오 드 파라솔'의 지붕은 무한한 빛으로 반짝이는데 계단을 올라갈 힘이 없었다. 내가 소진해 버린 에너지의 양에 비례해 세비아의 곳곳은 아름다웠다. 여전히 타파스 가게 앞에는 의자와 탁자들이 즐비하고 밤늦도록 이야기꽃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었다. 세비야에 온 지 삼 일밖에 안 됐는데. 그가 이 공기 속에 섞이고 여기 사람을 사랑해서일까. 밤늦도록 불면이 이어졌다.

나머지 일정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서둘러서 짐을 챙겼다. 몸이 안 좋다는 이유를 대고 딸에게 마저 여행을 마치고 오라고 했다. 이제 여행의 이유는 확실해졌다. 돌아가도 울지 않을 수 있다. 그가 원했던 삶이 이거라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안의 에너지를 이해하는 쪽으로 굳혔다.

다음 날 아침 이유를 묻는 딸 아이를 뒤로하고 세비야에서 바르셀로나로 와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코노미석의 자리는 언제나 그랬지만 오늘은 더 불편했고 나는 기진맥진 상태였다, 진정되었다고 믿었던 가슴은 또다시 타들어갔고 사지는 오그라들고 있었다. 이상 기류 때문인지 오늘따라 기체의 요동이 아주 심하여 멀미가 났다. 아예 응급 봉투를 들고 있다. 성에 낀 반투명 창유리 너머 저 아래에는 우랄산맥이 거대한 등을 구부리고 있었다. 아직 눈으로 덮인 시베리아 들녘도 보였다. 나는 꼬박 열세 시간을 뜬눈으로 대양과 대륙 위를 날아갈 것이다.

세비아에서 보았던 어둠이 지금 기내에 조그만 차창 너머에 가득 찼다. 눈을 감았다. 이 어둠은 교정 아래를 내 달리던 기차의 뒷 꼬리를, 삶의 굴곡진 마디마다 찾아들었던 어슴푸레한 전등 빛처럼 마주한 식탁에도, 스페인광장 한쪽 귀퉁이에 주인 잃은 널빤지 위에도 찾아들었다. 조금이라도 눈을 붙이고 싶었지만, 생생히 찾아드는 어둠은 걷힐 것 같지 않았다. 뒤척이는 내가 신경 쓰였던지 딸은, 엄마 다 잊어버려요. 어둠이 힘들면 그냥 받아들여요. 라고 옆자리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보지 않아도 딸의 눈가도 촉촉했으리라. 눈을 뜨고 싶지 않았다. 이대로 창공이라는 망망대해로 떨어지고 싶었다. 한 줄기 뜨거운 기운이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왔다. 딸이 내 손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쥐었다.

기운을 내보려 창유리 가림막을 올렸다. 빠른 속도로 비행하고 있었지만, 얼굴만 들이댈 수 있는 타원형 창을 통해 내다보는 하늘은 무한하고 넓었다. 어느새 새벽이 찾아드는지 뭉게구름이 솜사탕처럼 퍼지더니 잿빛 하늘도 가릴 듯하다. 이유 모를 연이은 구토와 역겨움 뒤에 두 번의 기내식을 모두 물린 뒤 찾아든 안도감은 내가 서 있을 땅이 가까워졌기 때문이었다.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착륙준비를 하겠습니다. 등받이와 좌석받침대를 제자리로 해주시고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안전벨트 사인이 들어오며 스튜디어스들이 자리를 돌아다니며 체크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를 떠올리는 순간 댄스 외에는 생각이 나지 않았다. 연락이 없었지만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시간을 보냈다는 생각은 나만의 착각이었다. 가정을 이루고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집착했던 감정은 사랑이 아니었다. 그동안 사랑이라 굳게 믿어왔던 건, 기다림은 나만의 성지였다. 그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자신의

세계를 향해 날아갔을 뿐이었다.

갑자기 말랐다고 생각한 눈물이 고였다. 그를 영원히 보내줘야 할 것 같다. 자꾸만 미끄러지는 내 몸을 붙들고자 벨트의 끈을 부여잡았다. 금속성 고리를 버클에 끼웠다. 벨트를 몸에 맞게 조였다. 한치의 틈도 없이 꽉 조여야 내가 바로 설 수 있을 것 같았다. 착륙준비시간이 길게만 느껴졌다. 한차례의 미동이 느껴지는가 싶더니 쿵, 하고 비행기는 지상으로 내려앉았다. 이제 하늘에서 부유하던 감정들은 모두 버리고 내릴 것이다. 감았던 눈을 떴다. 오늘의 태양빛이 기내에 스며들었다.

여객기에서 독서

우수상 | 최일걸

나는 몇 개의 별자리를 거치면
순한 잠으로 풀어질 수 있는 걸까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여객기에 탑승한 채
생떽쥐베리의 야간 비행에 나를 내어줬다
나는 운신의 폭이 제한된 가운데
엄청난 속도에 편승한 채
프랑스 파리를 향해 곧장 날아가고 있었다
동행을 자처한 이카루스의 꿈이
창을 통해 손에 잡힐 듯하다
문득문득 난기류를 만난 여객기가
덜컹거릴 때마다 소설책 속의 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질 것처럼 진저리쳤다
생떽쥐베리의 창공을 향한 의지를 집약한 야간 비행은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 것일까
도대체 목숨보다 값어치 있는 게
무엇이기에 그는 족적조차 남기지 않은 걸까
지상에 불시착한 어린 왕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제트 기류에 편승한 듯 속도를 높이는
여객기는 어떤 결말을 도출하려는 걸까
구름을 옆구리에 끼는 일이란
이렇듯 아찔한 탄성을 연발하게 한다
내가 여태까지 깊은 속에 감추고 있던 희망 사항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전생의 기억은 물론이고
다음 생의 언약까지 가시권에 모두 들어왔다
나는 항로를 이탈하지 않으려

야간 비행에 시선을 고정한 채
심장의 거센 박동을 그대로 반영하여
떨리는 손가락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제9회
항공문학상
수상작품집

제9회
항공문학상
수상작품집

02

중고등부

수필

4시간 반 여행

최우수상 | 문시우

여자의 손을 꼭 붙잡은 젊은 남자는 늦은 밤 비행에 피곤한 듯 약간은 지쳐 보였지만, 눈가의 설레는 웃음이 역력했다. 그들은 복도 끝에서부터 걸어와 내 앞 좌석에 나란히 앉았다. 아마 이번 여행은 신혼여행이었겠지. 한편 뒷좌석에 앉은 단체여행객들은 비행기가 신기한지, 등받이에 있는 여행잡지를 이리저리 넘겨보기도 하고, 창문 밖, 불이 들어온 활주로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 앞다퉈 고개를 내밀었다. 잇몸이 다 드러나 보일 정도로 활짝 웃고 있는 그들의 얼굴에서도 여행의 즐거움이 묻어났다.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진한 선팅이 되어있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인지, 쌀쌀한 가을바람이 부는 한국에 비해 사람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서인지는 몰라도 비행기 안은 여름휴가의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여행을 끝마치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피부는 햇빛에 보기 좋게 탔고, 늦은 시간 비행으로 피곤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여행의 분위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다들 들떠 보였다.

야간 비행이 시작되었다. 곧이어 실내 불이 꺼지고 창문 덮개를 닫아도 된다는 방송이 들리자. 들떠 있던 분위기도 잠시, 긴 여행 끝에 지친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졌다. 시끄러운 비행기 엔진음이 귀를 먹먹하게 하는데도 사람들은 코까지 드르렁거리며 잘만 잤다. 나는 창문 덮개를 닫지 않았다. 창문으로는 비행기 날개 부분의 옅은 불빛이 새어 들어왔고, 그 사이로 보이는 도시는 정말 작게 보였다. 비행기는 위로 올라가다가 구름을 뚫고, 결국은 대기권 위로 미끄러지듯 안착했다. 모두가 잠든 시간, 나는 잠들지 않았다. 나는 무릎 위에 누나를 한 번 바라보았다. 무릎 위 누나는 작아보였다. 거짓말이 아니라, 작은 단지에 담긴 누나는 품 안에 들어올 정도로 작았다. 단지 안에는 누나의 유골이 있었다. 나는 단지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다.

누나는 나랑은 다르게 여행 다니는 걸 참 좋아했었지. 필리핀으로 배낭여행을 떠난다는 누나를 공항으로 바래다주었던 일이 어제 기억처럼 생생했다. 누나는 내게 언제나처럼 같이 여행을 가자고 말했지만, 평소 멀미가 심한 데다가, 여행보다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나는, 심드렁해서 누나의 제안을 거절했다.

"다음에는 꼭 같이 가야 한다."

누나가 말했다. 조심히 다녀와. 그러나 누나는 돌아오지 못했다. 누나의 죽음은 허무할 정도로 한순간이었다. 뎅기열이라나. 누나는 여행지에서 모기에 물려 죽었다. 누나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타지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했다.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4시간 30분. 필리핀으로 가는 비행기에서는 누나의 죽음이 실감 나지 않았는데. 타지의 병상에 누워 차갑게 변해있는 누나를 보니 그때야 마지막을 지켜주고 못 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오며 누나의 죽음이 실감 났다. 여행을 같이 갔더라면. 이제 와선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걸 알지만 머릿속에 자꾸만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나 누나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자꾸만 나를 덮쳤다. 누나와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산더미였다. 게다가 필리핀에서는 사망 후 고인의 시체를 14일 이내에 매장 혹은 화장해야한다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누나를 화장할 수밖에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나는 누나의 유골이 담긴 단지 하나를 들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기는 성수기 여행객들로 붐볐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이 묻어나왔지만 저마다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러나 여행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금세 현실을 직시했다. 나는 웃을 수 없었다. 같이 여행을 가자는 약속도, 돌아와선 밥 한 끼 하자는 약속도. 이젠 전부 이룰 수 없게 되었으니까 말이다. 모두가 잠든 비행기 안, 유골함을 들고 있는 나는 동떨어져 있었다.

유골이 든 단지는 비행기 바닥에 내려놓을 수도, 그렇다고 수화물로 붙일 수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까부터 단지를 무릎에 올려둔 채로 앉아있었다. 행여 깜빡 졸아서

단지를 떨어뜨리진 않을까. 나는 조마조마해하며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이리저리 자세를 바꾸는 것도 이젠 한계가 있었다. 꼿꼿이 세운 등허리는 아프고, 골반이 한 편이 뻐근했다. 그러나 나를 더 괴롭게 하는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몸이 불편하고 피곤한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피할 수 없었다. 시선은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부터 느껴졌다. 흠칫 놀라는 사람. 신기하다는 듯 뚫어져라 쳐다보는 사람. 심지어는 누군가는 재수 옴 붙었다는 듯 노골적인 욕설을 뱉고 가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시선은 비행기를 타고 나서도 계속 이어졌다.

배에서 꼬르륵하는 소리가 나며 속이 쓰려왔다. 그러고 보니 아침부터 먹은 게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물이라도 마시기 위해 손을 들어 승무원을 불렀다.

"저 물 좀 주세요."

저 멀리서부터 컵을 들고 다가오는 승무원이 보였다. 그러나 승무원은 내 무릎 위에 있는 단지에 놀란 표정이었다. 역시나. 승무원은 가지고 오던 물도 잊고는 비행기 뒤편으로 들어가 황급히 다른 승무원들과 숙덕거리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예상하던 일이었다. 나는 한숨을 한번 푹 쉬고는 옷가지로 단지를 가렸다.

그때, 뒤편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얘기를 나누던 승무원 한분이 다가와 내게 뜻밖에 이야기를 전했다.

"A3좌석 손님 맞으시죠? 좌석을 잘못 앉으신 거 같은데. 연락 못 받으셨나요?"

"네?"

나는 주머니에서 티켓을 확인해 보았다. 그러나 승무원의 말과는 달리 A3좌석이 맞았다.

"누나분과 타신 거 맞으시죠? 비행 전, 연락받았습니다. 누나분과 마지막 여행 불편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따로 자리 준비했습니다. 비즈니스석 두 자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승무원을 따라간 곳에는 정말 좌석 두 개가 비워져 있었다. 나는 유골함에 담요를 감싸

하늘이 보이는 창문 쪽 좌석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벨트를 채웠다.

"남은 시간 편안한 여행되세요."

길고 긴 여행. 나는 좌석에 앉아 기지개를 켰다. 어두운 창문 밖으로는 드문드문 도시의 유성우처럼 항공유도등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다. 비행기가 지상에 가까워지자. 착륙 방송이 나오고, 복도 실내등이 켜지자 사람들은 하나둘 잠에서 깨기 시작했다. 비행기는 활주로에 들어섰고, 착륙을 시도했다. 평소에도 비행기 타는 걸 좋아하던 누나. 그리고 지금 타는 이 비행기는 길고 긴 여행을 끝마치고 돌아가는 누나가 타는 마지막 비행기일 것이다. 자기 몸집보다 큰 캐리어를 끌고 여행을 온 젊은 커플. 무일푼으로 배낭여행을 온 새내기 대학생들. 저마다 사연을 실고 비행기에 탄 모든 사람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이 묻어나왔지만 저마다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 사이에 있으니 마치 나도 누나와 여행을 끝 마치고 돌아가는 여행객들 중 하나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대한민국 인천까지 누나와 함께 장장 4시간 30분의 비행을 마치고 돌아왔다. 나는 여행에서 돌아온 누나가 조금은 피곤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사람들은 짐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갔다. 창밖의 눈부신 하늘, 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인천은 아침이었다. 나는 사람들이 다 나갈 때까지 누나와 나란히 앉아서 비행기 창문 밖을 조금 더 바라보다가 나왔다.

탑승구로 나온 우리는 긴 무빙워크를 탔다. 제1터미널 방향으로 가는 탑승구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다. 나는 두 팔로 누나를 감싸 안았다. 인천의 날씨는 필리핀 마닐라보다 조금 쌀쌀한 것 같았다. 누나의 길고 긴 필리핀 여행은 이렇게 끝났다. 나는 멀어져 가는 비행기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공항에서 잡히는 것

우수상 | 김민수

공항에는 잡히는 것들이 있어요낮에는 파란 도화지에 여울이 흐르듯 비행기가
구름을 가르고
밤에는 은하수의 잔광이 여행객을 아련히 비추죠.
미로 같은 복잡한 곳에서 내 신발은 턱 멈추지만공항조차 닮을 수 없는 저
광활한 하늘 속엔
구름을 반주 삼아 춤추는 우리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의 모자 중앙에 그려진 금빛 날개는
기다란 여객기 맨 앞에서 휘날리며 허공에 길을 놓아요.
모든 발걸음이 하얀 구름 아래를 거쳐 땅을 밟으면
그제야 두꺼운 책을 얼굴에 휙 덮고 눈을 붙이시죠.

드넓은 하늘에서 얻은 시차는한 가닥, 한 가닥 얽히고설켜서 피로로 가득한
천을 만들고
쉽사리 가족을 보지 못하도록 자꾸만 눈 앞을 가려요.
오로지 다른 땅의 시간을 따라 아버지의 날개가 움직이죠.

어디에나 있을 것 같았던 자신의 가족들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곳에서 그리워하는 우리 아버지
난 오늘, 다시 공항으로 돌아오는 그 애틋한 발걸음을 맞이해요.

공항에는 잡히는 것들이 있어요굳은살 가득한 아버지의 손이 기념품을 집기
전에땅보다 하늘의 추억을 더 많이 기억하기 전에오늘따라 유독 반갑게
뛰어가서, 아버지의 손을 살포시 잡아보네요.

다정한 비행

우수상 | 신로아

처음 비행기에 탔을 땐
안전벨트 착용법이 어렵다고 생각했다

어렵다는 것은
낯설다는 것
알게 되는 것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는 것

복잡한 수학 공식을 풀다 보면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날이 오듯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들도
어렵지 않은 날이 올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안전벨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나누는 말에는
가시가 없었으면 좋겠다
눈을 감았다 뜨면
어느덧 도착한 낯선 나라와
저무는 해와
달짝지근한 온도
낯선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속에 섞여
나는 너의 안전벨트가 되어주고 싶다

공항에 있는 사람들은 어쩐지
낯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이다

설렘이 두려움을 앞서가는 눈빛이다
나는 너의 손을 잡는다
두 손의 온도는
우리가 도착할 나라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을 닮았을 것이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새벽 어스름에 담요 한 장 덮고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도착할 나라는
온통 여름뿐인 나라라길래,
담요 한 장 크기인 오늘의 추위는
이곳에 남겨두고
분홍빛 하늘이 있다는 나라로 향한다

하늘의 동화 - 비행기 덕분에

❁ 우수상 | 이율희

눈부신 하늘을 날아본 적이 있는가
멀리 빛나는 태양을 가장 가깝게 볼 수 있는 곳
끝이 없을 것만 같은 하얀 융단을 아래에 두고
어딘가에 있을 잭의 콩나무를 찾는
나는 낮의 하늘을 사랑한다
쿵쾅쿵쾅 거인이 나타난다면
저 융단 어딘가에 숨어 숨바꼭질을 해도 좋을 듯
그러다 잠이 들었다 눈을 뜨면
어느새 나는 잭의 콩나무 아래에 있을 듯

별이 빛나는 밤을 날아본 적이 있는가
어두운 하늘 촘촘하게 박아놓은 별들 사이로
달이 수줍게 인사를 하고
어디선가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알라딘과 자스민 공주가 창밖으로 인사를 할 것만 같은
나는 밤의 하늘을 사랑한다
마법의 램프는 없지만 지니에게 부탁해
숨 막힐 듯 쏟아지는 별들 사이
헤엄을 치듯 유영해가리
그런 때는 잠들지도 않고도
밤새 날 수 있으리

낮의 하늘이든
밤의 하늘이든
나는 사랑한다

네 덕분에
사랑하게 되었다

| 수필 |

종이비행기 아톰

✸우수상 | 이혜인

초등학교 2학년때 항공우주과학대회에서 금상을 탔어요.라고 말하면 대부분은 "그거 물로켓으로 받은건가요?" 라고 물어본다. 그럼 나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허공에 시선을 두며 탄식하는 어조로 대답한다. 아니요. 반에서 종이비행기를 제일 멀리날렸어요.

내가 비행기라는 단어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이색넘치는 해외여행도 아니고, 비행기 내부에 좀비가 나타난 박진감 넘치는 영화의 한 장면도 아닌 꼬질꼬질한 종이비행기이다. 그 당시 유행하던 종이비행기 트렌드는 오징어접기였고, 나는 그 도면까지 인쇄해 가져갔지만 내가 접은 것은 오징어보다는 심해어와 유사했다. 자신있는 아이들은 벌써 비행기를 날렸고, 유력한 우승 후보도 있었다. 나는 한 장 남은 A4용지를 대충 접어 긴 비행기를 만들고 아쉬운 대로 스케치북으로 접은 미니 비행기를 앞에 달았다. 선체의 앞을 뭉툭하게 접고 날개를 세워 바람의 저항을 줄인 우승 후보의 비행기에 비하면 내 비행기는 테이프가 덕지덕지 묻은 조잡한 장난감이었다. 나는 땅에 꽂히지만은 말아달라고 빌며 가볍게 비행기를 날렸고, 내 비행기는 하늘을 향해 비상했다.

고도는 낮지만 안정적으로 날던 내 비행기- 후에 아톰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우승후보의 경악한 표정을 도도하게 지나가고 거리를 측정하시던 선생님의 발치에 떨어졌다. 아톰의 아주 멋진 활공이었다. 모두가 왕좌를 차지한 아톰의 꾀죄죄한 자태에 황당해하는 것 같았고, 그 순간을 가르고 맑은 웃음 소리가 울려퍼졌다.

"아하하, 저런 허접한 비행기가 제일 멀리갔어!"

명백히 우리 아톰을 비하하는 말이었지만 기장인 나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라 그걸 기분좋게 칭찬으로 받아들였다. 무엇보다 우승후보였던 친구가 웃기 시작하자 다른 친구들도 따라서 소리 높여 웃었다. 그렇게 아톰은 2학년 4반의 우승비행기가 되었고 아직도 우리 집에는 아톰의 영광스러운 상장이 남아있다. 그 날 내 꿈은 비행기가 되었다. 시간이 지나고 그 꿈은 비행기파일럿으로 바뀌고, 더 긴 시간이 지나자 나는 진로조사서에 의사를 적어냈다.

비행기가 좋았다. 하지만 이건 마치 환상적인 여행을 다녀오고 집에 도착했을 때 마주하게 되는 현실과 같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원하는 탈력감과 어린 자신을 실망시킨 수치심 같은게 머리속에서 뒤섞이고 그 끝에서는 그 모든걸 잊은 채로 나는 10대의 끝을 달리고있었다. 내가 나른하게 봄의 햇살을 받으며 엎드려있었는데 누군가 반에 뛰쳐오면서 큰소리로 말했다.

"우리 수학여행 제주도로 간대!"

와! 친구들이 환호했다. 코로나19로 현장체험학습을 집에서 10분 거리의 케이크 공방에 갔던 억울했던 과거의 나날들과 예정된 수학여행의 설렘에 머릿속이 짜릿했고 오랜만에 내가 살아있음을 일깨워주었다.

그렇게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학생증으로는 제주도에 갈 수 없다네요. 나는 여권 가져온 친구들을 비웃었는데 그들이 현자였다. 선생님들이 당황하시며 직원분들과 대화를 나누셨다. 야, 도넛이나 먹으러 가자. 나는 친구들과 공항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뛰어갔다. 설렘 가득한 사람들의 높아진 목소리와 밝은 미소가 퍼진 얼굴이 옆으로 스쳐지나갔다. 그리고 내가 공항의 반짝이는 유리벽 너머의 비행기와 눈이 마주쳤을 때 내 기억 구석에서 먼지를 마시던 아톰이 떠올랐다. 인간이 만든 환상 속의 피조물. 바벨탑을 쌓던 인간의 오만함과 우리를 여기까지 진화시킨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비행의 역사가 여기까지 이르다니 놀라움을 넘어 경외롭기까지 했다. 무엇보다도 오랜만에 비행기를 보니 어린 시절 가지고 놀던 미니카를 발견한 것 같은 그리운 향수에 잠겨있었다. 선생님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학생에게 돌아왔고 아슬아슬하게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 자리가 어디지. 아, G4번, 창가 옆옆 자리였다. 창가 바로 옆자리 친구와는 초면이었다. 조심스럽게 옆에 앉아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려고 했다. 알고보니 그 떨림은 내 옆 친구의 다리에서

흘러나오는 것 이었다. 그 친구가 유독 불안해보이길래 말을 걸어봤더니, 자기는 비행기 타보는게 처음이라고 고백했다. 첫 비행이 너무 걱정되어서 보잉 추락 사고 다큐멘터리도 보고왔다고. 불나방마냥 불안의 근원에 엑셀을 밟은 친구가 정말 무서워하길래 우선 다른 반 친구에게 선생님을 불러줄 것을 부탁하고 친구를 진정시켰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쩌지 어쩌지 하다 아톰이 재빠르게 내 기억을 스쳐 입밖으로 튀어나왔다.

"너 혹시 종이비행기 잘 접어?"

친구는 당황했으나 너무나 쌩뚱맞은 말에 오히려 흥미가 생긴 것 처럼 보였다. 나는 아톰의 우연한 탄생과 그의 탑건 못지 않은 활약상, 그리고 황당하게 받은 상장에 대해 얘기했다. 중간에 선생님께서 상태를 확인하려고 오셨는데, 친구는 괜찮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종이비행기의 이름이 아톰이라고 하자 친구는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고 깔깔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초등학교때의 해맑은 웃음소리에 겹쳐지며 심장이 터질듯 죄어왔다. 비행기의 랜딩기어가 천천히 돌기 시작하고 점점 빨라지더니, 곧 이륙하는 듯한 부유감이 느껴졌다. 손을 떨던 친구는 비행기가 공중에 뜨니 두려움보다는 신기함이 앞섰는지 창밖을 내다보며 감탄했다. 멋진 비행이었다. 출발한 비행기는 얼마 걸리지 않아 제주도에 도착했다. 아이들은 아쉬운듯했으나 다가올 여행이 더 설레는 듯했다. 내가 멍하니 하늘을 유영하는 감각에 빠져있을때 친구가 말했다.

"아직도 사람들은 왜 비행기가 뜨는지 모른대. 만들어봤는데 뜨니까 타고다니는거라고 그랬어. 계속 그 생각을 하니까 무서워지더라."

근데, 막상 타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다. 친구가 작게 말을 덧붙였다. 그제야 잊고있었던 감정이 밀려들어와 포말을 새겨넣었다.

아 맞아, 나 그래서 기장이 되고 싶은 거였어. 비행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해주니까. 인간의 본성은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고, 갖지 못한 날개의 결핍을 오직 비상을 향한 갈망만으로 채워, 결국 하늘을 날게 되었다. 그리고 금단을 넘은 듯한 짜릿함과 평소에는 느낄 수 없는 감각의 전환. 드넓은 하늘의 찬란한 청명이 어지럽게 뒤섞인다.

무엇보다도 비행의 아름다운 점은 끝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이 아니다. 또 다른 세상이다. 랜딩기어가 땅에 닿으면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마주하게 된다. 그곳에서의 행복은 저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겠지. 그렇기에 비행은 맹렬한 기세로 상승하는 것이 아닌 안온하게 추락하는 것이다. 아톰의 낮은 고도 비행으로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은 것처럼, 모든 이들의 비행이 행복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

| 소설 |

나비

우수상 | 임수아

어느 잔잔한 시골 마을에서 "그르륵 그르륵" 캐리어 끄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캐리어에 주인은 바로 자연스러운 갈색머리에 긴 생머리, 곱디고운 흰 피부, 유난히 초롱거리는 눈망울을 지닌 '한나비'였다. 나비는 초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에 작은 시골마을에 이사를 왔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조용한 시골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싶다는 아버지를 따라서였다.

나비는 모험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아이였다. 그래서였는지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와 아빠의 손을 잡고 비행기에 올라 타 하늘을 날아다니며 이곳저곳 다른 나라들을 여행하는 것이었다. "위이이잉 위이잉"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오면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어디론가 날아가는지 모르는 비행기를 자신의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나비의 이런 비행기사랑은 자연스럽게 진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어느 비행기나 다 타있는 단정한 머리와 깔끔하고 세련된 옷차림, 그에 걸맞는 길쭉길쭉한 팔다리에 상냥한 웃음을 띠고 있는 승무원들을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되었다. 텔레비전에서 승무원을 소개하는 영상을 본 이후로 나비의 꿈은 비행기를 타고 곳곳을 날아다니는 승무원을 선망하게 되었다. 전 세계를 눈으로 직접보고 우리나라와는 또 다른 문화들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지식과 폭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이 직업은 자신에게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비는 자신의 진로를 정한 후부터 승무원이 갖춰야 할 것들은 무섭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무엇이든지 한번 빠지면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성격 덕에 나비는 하루하루 꿈을 향해 나아갔다.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던 똑부러짐은 자신감과 해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끌어나갔다. 나비는 학교 성적을 상위권으로 유지할뿐더러 중학교 때부터 영어와 제2외국어인 불어를 열심히 공부하였다. 워낙에 언어를 좋아했던 터라 나비에겐 비교적 수월하게 해내갔다. 마침내 고등학교 2학년 때에는 영어와 불어를 원어민 못지않게 할 수 있는 실력을 지니게 되었다.

나비가 열매를 맺으면 제일먼저 기뻐해 주는 사람은 나비의 아버지 한남철씨였다. 동네 어르신들이나 친구들을 만나면 딸 자랑거리를 얘기하기 바빴다. "아니 우리 딸이~"로 시작해서 딸 칭찬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그 덕분에 남철씨는 딸 바보라는 별명이 지어지게 되었다. 아내를 잃고 딸만 바라보던 아버지는 하루하루 너무나도 예쁘게 크는 나비가 정말 사랑스러워 보였다. 아버지의 힘에 북돋아 더 뚜렷한 목표가 생긴 나비는 인하공전을 가야겠다는 목표가 생기게 되었다. 인하공전이란 인하공업전문대학교의 줄임말로 항공서비스과로 유명한 곳 이였다. 뚜렷한 목표가 생기니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매일 매일 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나니 나비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그렇게 중요한 수능날도 지나가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인하공전에 원서를 넣을 수 있게 되었다.

나비는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기다렸고 아버지도 그녀에 못지않게 두근거리는 마음을 애써 삼키고 있던 중 결과가 나오는 날이 다가왔다. "아빠 나 어떡해 너무 떨려……. " 나비가 아침을 먹다가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딸 너무 걱정 말고 어여 밥 먹어. 저 저 장조림 아빠가 어제 해놓은거야. 엄청 맛있어" 라며 장조림에 있던 쇠고기를 한 움큼 집어 나비의 밥그릇에 올려주었다.

아침을 다 먹고 짐을 챙기며 나가려던 찰나 아빠가 급하게 무엇을 갖고 왔다. 포크로 집어진 떡을 나비의 입속에 넣어주었다. 그리고는 "찹쌀떡이야. 붙으지 마라해도 착 붙을 거니까, 어여 학교 잘 다녀와.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게."라며 나비에게 환한 미소를 띠고 말하였다. 나비는 코끝이 찡해지는 느낌을 애써 억누른 채, "학교 끝나면 바로 올게" 라고 하며 집을 나섰다. 버스에 올라타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던 중 푸릇푸릇한 논들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집을 나서기 전 코끝이 찡했던 여운이 어디 안가고 나비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양이었다.

어느덧 학교 근방 버스정류장에 도착하고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기를 기다리던 중, 반대편에서 손을 흔드는 담임 선생님의 모습이 보였다. 생글생글 웃으시며 신나게 손을 흔드시는 담임 선생님이 어딘가 낯설어 보였다. '무슨 기분 좋은 일 있으신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자신도 얼떨결에 손을 흔들었다. 금세 신호가 바뀌고 선생님 쪽으로 가니 싱글벙글 하시며 한껏 들뜬 목소리로 나비에게 말씀 하셨다. "나비야 붙었어! 인하공전 합격했어!!" 나비도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정말요? 저 진짜 합격했어요?" 들뜬 목소리로 되물었다. "응 나비야 너무 고생 많았다. 축하해"라며 '축하해' 세 글자로 합격했다는 것을 더욱 더 실감시켜주셨다. 신호등 옆에 있는 만두집 앞에서

나비와 선생님은 서로 부둥켜안고 방방 뛰며 너무 좋아하였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쳐다볼 만큼.

나비는 학교가 끝나고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달하러 부리나케 집으로 달려갔다. "아빠~아빠~" 다락방에서 전구를 갈던 아버지가 나비의 부름에 한달음 달려왔다. 나비는 아빠의 품에 와락 안기며, "나 합격했대~!" 행복에 가득찬 목소리로 전했다. 나비의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고 나비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주 해주던 공주님안기를 번쩍 해주며 너무 자랑스럽다고 그동안 수고했다고 나비의 합격을 그 누구보다 진심 어리게 해주었다.

그렇게 나비는 어느덧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고 승무원을 준비하며 열심히 살아갔다. 나비는 학교에서 또렷한 이목구비와 하얀 피부, 모델처럼 긴 기럭지를 가지고 매일 특유의 미소를 띠며, 누구에게나 상냥하게 대해 사람들에게 인기가 되게 많았다. 학교에서 조별과제를 내주면 조장으로써 팀 내를 이끌어가며 제일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학교 교수님들에게도 신뢰를 쌓아 매번 높은 학점을 가져가게 되었다. 그렇게 항공과 에이스라는 별명을 지니게 된 나비는 본인의 신념을 갖고 승무원이 되기 위해 더 열심히 준비하기 시작했다.

높은 토익 점수와 불어, 중국어 자격증까지 어느 정도 준비됐던 나비는 본격적으로 면접에서 가산점이나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유도 단증을 따야겠다고 생각하고 유도 학원도 다니며 자신의 체력도 기르기 시작했다 비행을 타다 보면 무슨 일 발생할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비는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던 터라 유도를 배우는데 큰 거부감도 들지 않았다. 오히려 배우다 보니 유도가 너무 재밌기까지 했다. 그렇게 꾸준히 수련을 하다 보니 유도 단증을 딸 수 있을 만큼에 실력이 되었고 유단증까지 보유하고 있는 멀티형 승무원 준비생이 되었다.

하지만 이런 나비에게도 한 가지 어렵고 무서운 것이 있었다. 바로 '수영'이었다. 승무원이 되려면 수영테스트는 필수였다. 항공사마다 규정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의 경우 25m를 35초 안에 완영해야하고 티웨이항공의 경우 25m를 40초 안에 완영해야 했다. 나비는 승무원이 되기로 마음을 먹지 않았더라면 평생 수영에 도전해 볼 일이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비는 8살 때 바다에서 자신의 발이 안 닿던 곳까지 떠밀려가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뒤로 물 공포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나비에게 바로 수영은 무리였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물과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이었다.

나비는 어쩌다 한번 놀러 바다를 가도 바닷물에 몸을 담구는 일은 없었다. 그래서 대학 친구들과 곧 다가오는 여름방학에 바다에 가서 행복한 기억으로 물이랑 친해져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얼마 되지 않아 여름방학이 되었고, 동기 6명과 함께 값싼 렌터카를 빌려 바다로 떠났다. 바다에 도착하고 튜브를 빌려 제일 친한 친구인 가연이와 먼저 바다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가연이는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체조를 해야 한다며 나비와 열심히 몸을 풀었다. "헛둘셋넷, 헛둘셋넷"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가연이의 목소리는 나의 긴장감을 덜어내게 되었다.

체조가 끝나고 드디어 바다에 들어갈 차례가 되었다. 둘은 허리에 튜브를 감싸고 함께 바다에 들어갔다. 물이 허벅지까지만 왔을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네.' 라는 느낌이었지만 허리춤까지 와서 튜브가 둥둥 뜨게 되니 발이 땅에 닿을락 말랑 한 게 느껴졌다. 나비는 급히 가연이를 불렀다. "가연아! 가연아!" 가연이는 나비에게로 와서 웃으며 손을 내밀어주었다. 두 손을 잡으니 안정감이 생기면서 자연스레 물살에 자신의 몸을 맡기게 되었다. 가만 보니 물이 자신의 몸을 감싸는 느낌이 생각 이상으로 더 기분 좋았다. 그렇게 친구랑 튜브를 끼고 발헤엄을 치며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면서 놀기 시작했다. 그러다 나머지 애들도 들어와서 서로 물장구를 치며 더 재밌게 놀기 시작했고 어렸을 때 트라우마였던 바다의 기억은 점점 행복한 기억으로 덮여 들어가기 시작했다.

한창을 바다에서 놀고 점 점 추워지기 시작해 하나둘씩 모레위로 걸어갔지만 물을 제일 싫어하던 나비는 언제 그랬냐는 듯 "애들아 조금만 더 놀자! 들어와~"라며 아쉬워하며 말했다. 가연이는 "물 만난 물개가 따로 없네."라며 귀엽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나비와 친구들은 조개구이를 구워먹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갔다.

나비는 본격적으로 아침마다 수영을 다니기로 하였다. 처음에 '음-파 음-파'부터 시작해서 자유형에 이르기까지 꼬박 월, 수, 금 한 달 반이 걸렸다. 자유수영도 다니고 수영강사인 친구에게 자세 교정까지 받아가며 연습했다. 다재다능하던 나비는 시간이 좀 지나니 수영선수 마냥 자유롭게 물 위 아래를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나비에게 어려웠던 난관인 수영 실기시험도 한 번에 붙어버렸다.

그렇게 바빴던 나비의 대학생활 2년은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고 졸업 날이 다가왔다. 졸업식이 되자 나비의 아버지와 친구들은 나비를 축하해주러 새벽에 버스를 타고 왔다고 했다. 나비의 대학교는 경기도 인천이고 아버지가 있는

본가는 전라북도 정읍이었다. 인천에서 정읍까지 왕복 7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나비는 당연히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고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기에 무척이나 반가웠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축하를 받으며 대학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나비는 열쇠 구멍에 열쇠를 끼워 넣게 되었다. 바로 대한항공에 입사지원서를 넣게 된 것이다. 그리고 며칠 후 면접을 오라는 통보를 받게 된 나비는 면접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항공사 취업준비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비중이 큰 부분은 바로 "면접" 이기 때문이었다.

항공사 면접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이미지이다. 즉 이미지 메이킹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한 나비는 미소, 표정, 서 있을 때 자세, 걸음걸이, 발성, 목소리, 말투 등을 승무원 서비스직에 맞는 태도로 연습하고 답변 또한 승무원의 자질에 맞게끔 연습하고 또 연습하며 면접날만을 기다렸다.

드디어 내일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면접날이 왔고 나비는 그동안 추려왔던 예상 질문들을 다시 한 번 훑어보며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혼자 질문하고 대답하고를 반복하였다. 다음 날 아침 나비는 어느 날 보다 일찍 일어나 과하지 않게 인상이 더 부드러워 보이는 화장을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한 후 옷도 깔끔하고 세련된 옷을 빼입은 뒤 면접시간 10분 전에 도착하게 되었다.

면접장에 도착하니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빼곡하게 안을 채우고 있었다. 앞에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하며 발성연습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머리와 얼굴을 손대며 다시 한 번 세심하게 단장하는 사람들도 보였다. 나비는 자신의 차례가 오기까지 아버지가 주신 청심환을 먹으며 기다렸다. 평소 붙임성도 좋고 무엇이든지 똑부러지게 하던 나비이지만 첫 단추가 끼워지는 날인만큼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긴장감이 나비의 몸을 감쌌다. 다시 한 번 머릿속으로 준비한 자기소개를 곱씹고 있는 순간 'E조 김하연, 이나린, 정서진, 김지연, 윤설, 한나비님 들어가세요.' 라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나비는 속으로 6인 1조인걸 다행으로 생각하며 보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는 미소를 띠고는 마음을 다 잡고 면접장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가니 면접관들 3명이 나란히 앉아있었다. 두 면접관은 조금 지쳐 보이는 기색이었지만 환하게 웃으며 면접자들을 반겨주는 뉘앙스를 뽐내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은 남자면접관 이었는데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면접관을 맡기엔 다소 어려 보였다. 그 면접관은 무쌍에 옆으로 좀 찢어진 예리한 눈빛으로 웃음기 없는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언뜻 보면 무서워 보여 쉽게 말을 못 붙일 것 같은 인상이었다. 나비는 그 남자면접관의 눈치를 살짝 보며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곧바로 면접이 진행되었다. 나비의 청심환이 한 몫 했는지 어느 때보다 얌전하고 차분하게 면접에 임했다. 다른 면접자들이 얘기할 땐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태도를 보였고, 나비의 차례에선 밝은 미소를 유지하며 활기차게 자기소개를 시작했다. 여자 면접관 두 분은 웃으며 나비에게 추가 질문을 하였고, 남자면접관은 다 이 정도는 한다는 얼굴로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나비는 최대한 면접관들과 골고루 아이컨택 하며 말을 이어나갔지만 근엄한 얼굴을 한 남자면접관 눈은 잘 쳐다보지 못하였다. 나비에게 한 여자 면접관이 "나비씨는 자신이 제일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고 나비는 최대한 자연스럽고 자신있게 대답했다.

"승무원의 자질에는 친절함과 인내심, 협동적인 팀워크, 안전업무 수행에는 단호함, 승객분들을 대할 때에는 경청하는 자세와 지혜로움이 있죠, 저는 학창시절부터 이 자질들을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꾸준히 인정받아오며, 친구가 어려워하는 일이 있으면 귀를 열고 경청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책임감을 지고 도와주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승무원의 자질에 맞는 장점을 가졌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나비가 희망찬 목소리로 똑부러지게 말하자 질문한 면접관은 엄마미소로 웃으며 서류에 무엇인가 적었고 나비도 자신의 대답에 만족하고 있던 찰나, 남자면접관이 예리한 질문을 던졌다. "학창시절에 책임감을 지고 친구들을 도와줬다고 하는데 나비씨가 그 일을 도와줌으로써 그 문제들이 확실히 해결 됐나요?" 라며 나비의 눈을 보고 말했다. 나비는 다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지만, 잠시 고민하다 말하였다.

나비는 또 한 번 자신 있는 목소리로 "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친구들이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성적이고 지혜롭게 판단해 자신들의 문제들을 현명하게 조언해 주어 많은 의지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도와준 일들이 확실하게 해결됐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저를 믿고 의지하는 많은 친구들을 보고 자부심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야무지게 대답했다. 그러자 그 남자면접관은 같은 얼굴로 조용히 서류에 무엇인가 적기 시작했다. 그렇게 마지막 질문이 끝나고 인사를 끝으로 나비의 1차 면접은 끝이 났다.

집에 돌아가니 수고했다고 차려주신 아버지의 삼계탕이 나비를 기다리고 있었다. 싹싹하게 깨끗이 다 먹고 나니 남아있던 긴장감이 사르르 녹는 듯 했다. 그렇게 삼계탕을 배불리 먹고 다음날 결과가 나올 생각에 설렘과 걱정을

안고 평소보다 늦게 잠이 들었다. 다음날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기를 열어보니 "합격"이라는 단어가 나비의 눈에 들어왔다. 나비는 너무 기뻐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졌다.얼마 되지 않은 후 나비는 또다시 면접장에 오게 되었다. 2차 면접을 보기 위해서였다. 1차 때보단 아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들 와 있었다. 2차 면접은 영어 구술 TEST와 롤플레잉, 임원면접 순으로 진행됐다. 2차와 3차 면접은 실제 대한항공 유니폼을 입고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빠르게 환복 후 면접장 안으로 들어가니 영어구술 테스트를 해주실 과하지 않은 웨이브가 되어있는 금발에 아름다운 파란 눈을 한 면접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영어구술 테스트는 1대 1로 진행이 되어 조금은 부담되는 면접형식이었다. 게다가 외국인과 말을 섞어볼 일이 별로 없던 나비는 잔뜩 긴장을 하고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자리에 앉았다. 외국인 면접관은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는 듯 유니폼이 참 잘 어울린다며 칭찬해주었다. 그리고는 좋아하는 음식 등 가벼운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나갔다. 그리고 영어로 자기소개를 한 뒤 추가 질문 몇 개와 롤플레잉 테스트를 받고 1차 면접 때와는 비교적 빨리 끝나 나비는 바로 임원면접장으로 이동했다.

임원면접장으로 들어가니 낯익은 얼굴이 하나 보였다. 바로 1차 면접장에서 예리한 눈빛이 인상 깊었던 가장 진지하게 임하고 있어 보이는 그 남자면접관이었다. 그때보다 더 지쳐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임원면접 또한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고 질문이 이어갔다. 나비는 임원 면접인 만큼 최대한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하려고 노력하며 대답했다. 한번 해 봐서 그런지 처음 면접 볼 때 보다 더 수월한 느낌이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하는 물음에 나비가 손을 번쩍 들었다.

"저요!! 저는 오른쪽 면접관님을 오늘 두 번째 뵙습니다. 지난 1차 면접에서 한번 오늘까지 두 번입니다. 저의 이상형과 닮으셔서 기억합니다. 오늘은 면접관님이시지만 앞으로는 상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나비는 그분과 다른 면접관들의 지쳐 보이는 얼굴에 웃음을 주고 싶었고, 그 결과 항상 진지한 얼굴만 하고 있던 그 면접관에 입가에는 미소가 고이더니 세 명 다 빵 터지게 되었다. 그 덕분인지 나비는 2차 면접도 합격하게 되었고, 며칠 뒤 마지막 3차 면접인 체력테스트를 하러 가게 되었다.

최종면접인 만큼 임원면접 때와는 달리 꽉 꽉 차 있던 대기 장소가 다소 한산해진 것이 몸소 느껴졌다. 체력테스트는 바로 수영이었다. 물 공포증을 이겨내고 친구에게 자세 교정까지 받으며 아침 수영을 다닌 나비의 수영 실력이 드디어 빛을 내게 되었다. 삐- 소리와 함께 물속에 뛰어든 나비는

25m를 35초 안에 완영하면 통과하는 것을 31초로 여유 있게 완영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체력테스트로 악력측정과 눈감고 외발서기, 민첩성, 좌전굴 등 학창시절부터 남다르게 체육을 좋아하던 나비는 면접자들 사이에서 제일 수월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나비는 그렇게 최종면접도 합격하게 되었다. 최종면접을 합격 하였다는 문자를 받고는 이게 꿈이라면 영영 깨지 않고 싶을 만큼 행복했다. 나비보다 더 기뻐한 건 딸 바보인 나비의 아버지 한남철씨였다. 자기 딸 승무원 됐다며 입이 귀에 걸려 내려오지 않을 지경이었다. 나비는 잔잔한 시골마을에서 "그르릉 그르릉 캐리어를 끌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대한항공으로 출발했다. 나비는 먼저 기본교육부터 차근차근 받고 드디어 첫 비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불어를 전공으로 했던 나비는 프랑스항공으로 첫 비행을 하게 되었다. 비행하기 전 파우더 룸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다. 나비는 오늘따라 유난히 얼굴에 생기가 가득했다. 살굿빛 반짝이는 섀도와 핑크빛 블러셔가 매끈한 피부에 차르르 감기듯 표현되어 혈색을 더했다. 스프레이는 얼마나 뿌려댔는지 몰라도 잔머리 하나 없이 묶은 쪽머리에서 윤이 반지르르하게 났다. 유니폼도 빳빳하게 다려 입어 구김이 없었다. 누가 봐도 각이 제대로 잡힌 신입 승무원이었다. 마지막으로 고급스러운 향이 나는 향수를 뿌리고 있던 찰나, 벌컥! 문이 열리고 사무장님이 들어왔다. 나비는 교육받을 때 몇 번 본 적이 있어 어색하지 않게 사무장을 보자마자 허리를 꾸벅 숙이며 대차게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FAC비행 한나비 입니다!" 인사를 하고 앞을 보니 고운 얼굴에 호불호 없이 인상이 참 좋아 보이는 사무장님이 서 계셨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합니다. 나비씨 오늘 첫 비행이죠?"

"네, 사무장님! 저야말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장은 너무 각 잡힌 그녀의 모습에 웃음이 슬며시 새어 나왔다.

"네... 브리핑까지 시간 여유가 좀 있으니까, 브리핑 준비하도록 해요."

"네! 사무장님!"

나비는 브리핑 될 시간까지 고개를 매뉴얼에 처박을 기세로 읽기에 한창이었다. 나비는 브리핑 때 사무장이 던질 질문이 조금 무서웠기 때문이다.

기내시설과 장비가 아직 낯설었지만 이론에 빠삭했던 나비는 사무장이 묻는 말들에 곧잘 대답했다. 나비는 회사에서 사무장과 공항으로 향하는 길 내내 긴장을 놓지 않고 허리는 곧추세우고 고개는 빳빳이 들었다. 어느새 비행기에 올라 함께 가는 선임 승무원분들에게 자기소개를 하고 있었는데,

장비 확인과 기내 보안점검을 마친 남자 승무원 두 명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어....잠깐만...저분은' 나비는 잠시 흠칫 놀랐다. 왜냐하면 남자승무원 두 명 중 한명이 나비가 상사로 모시겠다며 빵터지게 만든 임원면접관이었기 때문이다. 나비는 당황스러움은 뒤로 하고 깍듯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신입으로 온 한나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면접 때는 본 적 없던 싱그러운 미소로 나비에게 말을 걸었다. "김태혁입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나비는 속으로 영화 같은 일이라며 신기해하는 것도 잠시 선임 승무원의 옆에 찰싹 달라붙어 선임 승무원들의 동선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러다 기내에서 승객 맞이할 준비를 모두 끝내고 지상직원에게 보딩 사인을 보냈다. 그리고 승객들이 탑승하기 전 김태혁 승무원이 잠시 나를 불러 당부했다.

"나비 씨. 승객 보딩 중에 해야 할 일들 우선순위 숙지하고 계시죠? 비상구열 좌석 브리핑은 제게 보고해주시고요. 승객 짐 케어 잘해주시고....혹시 좌석 이동 원하는 승객 있으면 지상 직원에게 빨리 말해야 하니까 바로 보고하세요.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해도 이상한 징후나 낌새 같은 게 있으면 정보 공유 좀 해주시고요."

그녀는 고개를 위아래로 세차게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비장하게 답하자 김태혁 선임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 "정말 제가 한나비씨의 상사가 되었네요. 기분이 어때요?" 라며 장난스레 말하였다. 나비도 그에 말에 웃으며

말했다.

"하늘을 날 것 같습니다!"

"곧 날아가네요. ㅎㅎ 오늘 즐겁게 비행해요. 이만 나비 씨 구역으로 가서 준비하세요."

곧 승객들이 몰려왔고 나비는 비행기 문 앞에서 환한 미소로 반갑게 맞이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탑승권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안쪽 창가 쪽 좌석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들을 빠르게 안내했다. 썰렁하던 기내가 어느새 가득 들어찬 승객들로 열기를 띠기 시작했다. 탑승이 마무리 될 즈음 한두 명의 승객들만이 뜨문뜨문 비행기에 올라탔다. 그리고 비행기의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고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여행을 대한항공과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행기는 파리까지 가는 대한항공 081편입니다.

오늘 김선중 기장을 비롯한 저희 승무원은 여러분을 목적지인 파리까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저희 대한항공과 함께 즐겁고 편안한 여행되시기 바랍니다."

나비는 교육받은 대로 손님들에게 가 필요한 것을 물으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했다. 비행하는 내내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바짝 긴장해 있었다. 그런 나비를 보고 안쓰러워 보였는지 한 선배승무원이 잠깐 편하게 쉬라며 승무원 휴게실 앞으로 인도했다. 휴게실 옆 창문으로 파란 하늘에 솜사탕 같은 구름들이 보였다. 아까는 승객들을 살피느라 구경 못 했던 하늘을 잠시라도 마음껏 보았다. 나비는 오늘 비행기를 처음 타본다. 처음 보는 하늘 풍경에 왠지 모르게 가슴이 벅찼다. 승무원이 된 것이 제일 실감이 나는 순간이었다. 나비는 하늘을 보고 파리에 가면 할 것들을 생각하며 기대에 찬 얼굴을 하고 있었다. 승무원들에게도 비행 대기시간에 텀이 길어 자유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이곳저곳 가 볼 생각에 신이 났다. 오전에 출발한 비행기는 오후 밤 8시가 돼서야 도착했다. 파리에 도착하고 승무원들은 곧바로 호텔로 들어갔다. 나비는 호텔로 들어가기 전 간단하게 끼니도 때우고 파리의 첫날밤을 구경도 할겸 빵을 사러 나갔다. 파리의 밤은 참 짜릿했다. 난생 처음 보는 이국적인 풍경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그 짜릿함은 이루 말 할 수 없었다. 나비는 호텔 근처인 센느 강을 따라 가볍게 산책 했다. 물 위에 비치는 불빛들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렇게 파리의 거리들을 구경하며 빵을 사가지고 호텔로 돌아왔다.

호텔 방은 2인이서 썼는데 나비는 자신보다 2살 많은 선임과 쓰게 되었는데 그 선임은 파리항공이 주 노선이라 많이 와 보았다고 하였다. 그리곤 자기가 가보았던 곳 중 가장 좋았던 곳 몇 곳을 추천 해 주었다. 나비는 내일을 기대하며 잠에 들었다. 오전 9시 일어나보니 선임은 쿨 쿨 자고 있었다. '어제 많이 피곤하셨나.' 벌떡 일어나 준비하고 서둘러 길을 나섰다. 오늘 나비는 바쁘기 때문이다. 먼저 그녀는 아침 겸 점심을 먹으러 작은 레스토랑에 들어갔다. 식당 외부엔 가지각색에 작은 꽃들이 네모나고 긴 화분에 좌르륵 심어져 있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니 내부가 진한 갈색을 띠며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식당에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나비의 아버지뻘로 보이는 따듯한 인상을 지닌 아저씨였다. 그는 나비에게 영어로 어디서 왔냐고 물었고 나비는 한국에서 왔고 자기는 불어를 할 줄 안다며 불어로 대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식당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소개 해 주기 시작했다. 그 중에 가장 추천하는 음식이 있었는데 바로 라타투이와 그라탕 도피누아였다. 라타투이는 프랑스지역의 대표 요리로 가지, 호박, 피망, 토마토 등의 채소에 허브와 올리브오일을 넣고 뭉근히 끓여 만든 스튜였고, 그라탕

도피누아는 감자와 생크림을 기본으로 만든 프랑스 남동부 도피네 지방의 전통요리였다. 이 두 요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아저씨를 보고 나비는 망설임 없이 이 두 가지 요리를 주문했다. 음식이 나오고 라타투이 스튜를 한입 떠먹었다. 고기도 안 들어가고 별로 들어간 게 없는 듯 했지만 굉장히 깊은 맛이 나면서 토마토 특유의 감칠맛이 입에 맴돌았다. 또 그라탕 도피누아는 부드럽고 든든한 맛으로 기분 좋은 식사가 되었다. 요리를 추천해 주신 아저씨에게 맛있게 잘 먹었다며 감사를 표하고 지금 여기서 가까운 곳으로 갈 곳을 추천해주라고 부탁하였다. 추천해 준 곳은 샹젤리제 거리와 에펠탑, 낭만주의 미술관 이었다. 나비는 제일 먼저 낭만주의 미술관에 갔다. 작품들을 감상하고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정원도 둘러보고 미술관 테라스에서 차 한 잔을 즐기고 있을 때 누군가 그녀에게 말을 걸어왔다. 말을 건 사람은 바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고급스러운 스카프를 멋들어지게 하고 있는 중년 아주머니였다.

"안녕 넌 어디서 왔니? 되게 예쁘다. 꼭 인형같이 생겼네."

나비는 쑥스러운 듯이 말했다.

"나는 한국에서 왔어."

여길 혼자 왔니?" 의아한 표정으로 나비에게 물었다.

"아니~ 난 승무원이야. 비행기 대기 시간이 많이 남아서 파리 여행 중이었어."

"와아~정말? 되게 멋지다. 난 어려보이길래 학생인 줄 알았어.

아주머니는 멋쩍은 듯 웃었다.

"여긴 얼마나 있다 가니?"

아주머니가 묻자 나비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난 이제 곧 가야해.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렇게 아주머니와 이런 저런 스몰토킹을 하고서 다음 목적지인 샹젤리제로 향했다.

샹젤리제를 가기 전 개선문이 있어 잠시 구경하고 갔다. 개선문은 에펠탑과 함께 파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명소이다. 개선문은 그 이름대로, 프랑스군의 승리와 영광을 기념하기 위해 황제 나폴레옹 1세의 명령으로 건립되었다. 개선문을 지나니 샹젤리제 거리가 보였다. 나비도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는 어디선가 많이 들어 봤었다. 샹젤리제거리는 프랑스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라고 자부하는 명소로 유명했다. 거리는 나비가 지금까지 거닐던 거리 중에 정말로 제일 아름다웠다. 거리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여유롭고 한가로워 보였다.

거리를 거닐던 중 달달한 마카롱 냄새가 그녀의 코를 간지럽혔다. 마카롱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마카롱을 한가득 사갔다. 비행기를 같이 타고 갈 선임들의 것도 함께 샀기 때문이다. 마카롱을 먹으며 거리를 거닐고 있었는데 이번엔 향긋하고 싱그러운 꽃향기가 나는 향수가게를 발견하였다. 들어가 보니 어지럽게 나는 향기들이 아니라 은은하게 각기 다른 향들이 서로 어우러지며 나비가 이제껏 맡아보지 못한 향기가 나고 있었다. 나비는 하나하나 섬세하게 맡아보고 마침내 마음에 쏙 드는 향기를 발견하였다. 그 향수는 바로 은방울꽃 향수였다. 은방울꽃의 향은 자스민에 가까운 꽃향기로 나비의 이미지에 아주 잘 어울리는 향기였다. 나비는 자신의 향수를 고른 다음 생전 향수 뿌리는 것을 본 적 없는 아버지의향수를 골랐다. 그 향수는 톤친한 우디 향과 신선한 시트러스 향이 섞인 향수였다. 건조한 터치와 짙은 향기가 어울리며 중년 남성의 성숙한 매력을 한층 더 해주는 향기였다. 나비는 만족한 표정을 지으며 향수 집을 나갔다. 어느새 밖은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나비는 슬슬 에펠탑 쪽으로 걸어갔고 에펠탑을 보면서 먹을 마늘바게트도 사갔다.

밤이 되니 에펠탑은 눈이 부시게 빛이 났다. 사진이나 그림으로만 보던 에펠탑을 실제로 가까이서 보니 신기하고 더 아름다워 보였다. 에펠탑 앞 벤치에 앉아 바삭한 마늘바게트를 먹으며 에펠탑을 감상하였다. 파리의 아름다움을 한 것 느끼고 숙소에 돌아왔다. 다음날엔 센느 강에서 크루즈를 타였고, 다시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었다.

기내를 점검하고 있는 나비에게 태혁이 다가와 나비에게 말을 걸었다.

"나비 씨 승무원 되고 첫 여행 어땠어요? 음식은 잘 맞던가요."

"네ㅎㅎ 음식들이 다 너무 제 스타일이었어요! 선배님은 뭐하셨어요?"

"저는 첫날엔 너무 피곤해서 호텔에서만 있고 다음날부터 루브르박물관이랑 보쥬광장 다녀왔어요."

그러자 나비가 아쉬움이 가득한 얼굴로 말하였다.

"전 조금 더 구경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한 달 뒤에 또 이 스케줄이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요. ㅎㅎ 그땐 파리여행 같이할래요?"

"네! 좋아요" 나비는 혼자 돌아다니는 것보다 둘이 가는 것이 더 재밌고 안전하겠다고 생각했다.

비행기 출발시간이 다가왔고, '우아아아아왕' 거리며 날아오를 시동을 걸었다. 이번 목적지는 영국 런던이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여행을

대한항공과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행기는 파리까지 가는 대한항공……." 안내방송이 흘러나왔고 비행기는 출발하였다. 승객들의 안전을 점검하던 중, 벨이 울렸다. 나비가 맡은 승객이 벨을 누른 것이었다.

"부르셨습니까. 고객님"

나비는 미소를 지으며 상냥하게 말하였다. 나비가 물으니 화려한 가죽 자켓을 걸치고 있던 여성이 말했다.

"아몬드 좀 가져와."

나비는 무턱대고 하는 반말에 기분이 좀 나빴지만 일을 하다보면 더 한 일도 많을 것 같아 차분하게 대답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저희 기내에는 아몬드만 따로 있지 않고 다른 견과류들과 섞여져 있습니다. 그거라도 가져다 드릴까요?"

"그럼 그러던가."

나비는 견과류를 가져와 그 고객 테이블 위에 견과류 봉지를 올려놨다.

"주문하신 견과류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네? 주문하신 견과류……."

"아니 이걸 왜 봉지째 갖고 오냐고! 접시에 담아서 줘야하는 게 예의 아니야?!"라며 나비가 가져온 견과류를 지적하고 질책하였다.

나비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교육받은 대로 먼저 사과하였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접시에 다시 담아서 가져다드리겠습니다."

고객은 언짢은 표정으로 말하였다.

"빨리 갖고 와"

나비는 말로만 듣던 진상고객을 상대 해 보니 생각보다 더 기분이 안 좋고 마음이 안 좋았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며 승무원석에서 쉬고 있던 나비에게 아까 전에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사무장이 나비에게 말했다.

"나비씨 아까 너무 당황스러웠지? 좀 전엔 내가 봐도 그 승객이 심했어. 그치?"

"ㅎㅎ 아니에요 괜찮아요."

"앞으로 이것보다 더 심한 진상고객들이 많을 거야. 하지만 나비씨는 잘 대처할 거라고 믿어. 잘 할 수 있죠?"

"네! 그럼요"

나비는 힘차게 대답하였다.

사무장은 이어서 자신이 당했던 진상짓들과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야기를 풀며 엄마가 아이에게 타이르듯 조곤조곤 말해주며 나비에게 이런 저런 조언을 해주었다.

나비는 이렇게 말해주는 사무장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파리에서 사온 마카롱을 건넸다.

시간이 지나 비행기는 목적지인 런던에 도착하였고, 어린아이 승객처럼 나비도 들뜬 마음을 애써 감추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브리핑 시간은 하루밖에 되지 않아 런던을 구경할 시간이 많지는 않았다. 나비는 먼저 숙소에서 짐을 풀고 런던 내셔널 갤러리로 향했다. 고흐의 작품을 워낙 좋아했던 나비는 그림에 푹 빠져 내셔널 갤러리에만 3시간이 넘도록 있었다. 내셔널 갤러리에서 나와 런던의 상징인 큰 시계탑. 빅 벤으로 갔다. 다리로 이루어져있는 강이 빅벤과 아주 잘 어우러져있어 눈이 즐거웠다.

나비는 시계탑 근처에 오픈 되어있는 음식점에서 밥을 먹었다. 메뉴는 피시 앤 칩스와 선데이 로스트였다. 먼저 피시 앤 칩스는 맛있는 생선과 감자를 튀겨 나비에게 익숙한 맛이었다. 하지만 튀김은 바삭하지만 느끼하지 않았고 안에 생선은 부드러우면서 씹는 맛이 일품이었다. 선데이로스트는 영국의 전통적인 식사로 나비에게 좀 새로운 맛이었다. 그리고 영국이 차로 유명한 만큼 찻집도 들려서 티타임을 즐겼다.

나비가 마신 차는 홍차였다. 쌉싸름하게 퍼지는 홍차의 맛과 같이 먹는 치즈케이크는 제법 잘 어울렸다. 짧지만 행복으로 벅찼던 런던의 여행은 아쉬움이 많았지만 나비는 만족 하였다. 첫 비행을 끝내고 돌아와 나비는 곧바로 본 집으로 향했다.

집에 가서 아빠에게 해 줄 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르륵 그르륵" 하늘색 캐리어를 끌며 집으로 향했다.

"아빠~!"

활기차게 아빠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구~! 우리 딸 왔어~"

"아빠 보고 싶었어~"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사실 나비는 여행하는 내내 새롭고 멋진 풍경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마다 아버지의 생각이 제일 먼저 났었다. '아… 이거 아빠도 보면 좋아했을텐데…,어이거 아빠도 먹었으면 맛있게 먹었을텐데..' 하고 말이다.

아빠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던 나비는 얼른 캐리어에서 마카롱을

꺼내었다.

아빠와 마카롱을 먹으며 기내에서 처음 비행기에 탔을 때부터 파리와 런던을 여행한 것 까지 그리고 기내에서의 진상손님까지 아빠 옆에 붙어 조잘조잘 참새처럼 얘기하였다. 다시 대한항공에 가기 전까지 나비는 아버지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해 먹고 아버지의 농사도 도우며 행복한 시골생활을 하였다. 또 어느새 비행기를 탈 시간이 되었고 아버지와 따뜻한 인사를 주고받으며 대한항공으로 떠났다,

먼저 회사에 도착해 파우더 룸에 들어가 반지르르 생기를 돋우며 빳빳하게 다려 입은 유니폼까지 입고 비행 준비를 시작하였다.

9월 11일 이번 비행은 북아메리카 노선을 타고 가는 아메리칸 항공AA11편이었다. 이 항공기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으로 향했다.

이번 승객들은 외국인 승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탄 것으로 보였다. 나비는 외국인 승객들이 많이 타는 것을 보고 살짝 긴장 해 있었다. 긴장한 것도 잠시 상냥하게 대해주는 외국인 승객들이 많아 평화롭게 비행하던 중 동남아 사람들처럼 보이는 20대 남성들이 눈에 띄었다. 기내에선 시끄럽게 떠들면서 크게 웃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승객들이 있으면 승무원들이 조용히 가서 주의를 주었다. 나비는 잘은 모르지만 아랍어로 보이는 듯한 언어를 하며 자기네들끼리 웃으며 떠들고 있었다. 나비는 조용히 가서 영어로 예의 있게 말하였다.

기내 안에는 다른 승객들도 있으니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자 나비와 가장 가까웠던 그 중 한명이 나비를 쳐다보며 알았다는 제스처를 하고는 정적이 흘렀다. 나비는 다시 다른 승객들을 살피고 있는데 "까아아악" 쇠를 긁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렸다. 나비가 놀라 그 쪽으로 가보니 아까 나비가 조용히 해주라고 부탁했던 남자 승객들이었다.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난 것을 보니 15명 즘 돼 보였다. 그 중 한명은 총을 소지하고 있었고 그 총으로 다른 여성승객을 위협하고 있었다. 한순간에 일어난 듯 한 것으로 보였다. 그들은 나비를 포함해서 기내에 있던 승무원들을 모았고 그 남성들 중 몇 명은 승객들을 칼로 위협하며 통제하고 있었다. 그리고 승무원 중 다른 선배 승무원에게 총을 겨누며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실로 안내하라고 말했다.

정신없고 조금 소란스러운 상황에 나비는 옆에 있던 김태혁 선배에게 작게 입을 열고 조용히 말했다.

"저희 이제 어떡해요. 기장실로 가려나 봐요."

태혁도 작게 입을 열고 조용히 말했다.

"일단 아까 제가 비상상황실에 보고했어요.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올거에요."

나비는 처음 겪는 이 말도 안 되는 영화 같은 상황에 너무 불안하고 두려웠다. 한편 선배승무원에게 총을 겨누던 남자는 기장실로 가 파일럿들도 제압에 성공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조종을 하였다. 승객뿐만 아니라 승무원, 파일럿도 공포에 떨고 있던 순간 상황실에서 연락을 받고 경호원들이 달려왔다. 하지만 그 단체에 비해 머릿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제압이 어려워 보였다. 나비는 이대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무리 중 한명에게 화장실이 너무 급하다고 제발 보내주라며 부탁하였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인상을 쓰며 안된다고 하였고, 나비는 계속해서 너무 급하다며 조르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승무원들을 통제하고 있던 사람들은 나비에게 시선이 쏠리며 잠시 방심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승무원들을 통제하고 있던 3명을 남자승무원 3명이 각각 한명을 맡아 무력으로 그들을 제압하였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남자 승무원들은 유도와 주짓수 등 호신술을 배워 제압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상황실에서 온 경호원들도 합세해 승객들을 통제하고 있던 그 사람들을 하나둘씩 억압하고 있었다. 승객실은 한바탕 소동으로 어린아이들은 무서움에 울고, 그런 아이들을 혹시라도 해코지 할까, 엄마들은 쉬쉬 거리며 자신의 무서움은 뒤로 하고 아이들을 달래고 있었다.

승객실은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 되었고, 남은 건 비행기에서 가장 중요한 조종실 이였다. 조종실에선 자신의 단체들이 제압당한 줄 모르는 두 명이 조종실을 장악하고 있었다. 두명 중 한명은 파일럿과 보조를 총으로 통제하고 있었고 다른 한명은 비행기를 조종 중이었다. 그 중 한명은 총을 지니고 있어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조종실로 진압했다. 조종실로 들어가자 그 두 명은 당황한 기색으로 경호원에게 총을 겨누었다. 그 사이 옆에 있던 김태혁 승무원이 한순간에 총을 발로 차버렸다.

총이 없어지자 그들도 순식간에 제압당하고 승객실에서 위협하던 그 사람들과 함께 묶여져 창고실에 감금되었다. 몇 시간 뒤 비행기는 워싱턴에 도착하였고 그들은 미국 경찰들에 의해 연행 돼 갔다. 알고 보니 그 단체는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인 알카다에 의해 구성된 하이재킹 및 자살테러 조직이었다.

그들의 계획은 항공기를 납치해서 미국 뉴욕의 110층짜리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 충돌시켜 자살테러를 할 목적이었다고 한다. 나비는 이 소식을

든고 비행기 안에서 제압된 것을 감사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다. 다음날 이 사건은 신문이나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실리며 엄청나게 크게 보도 되었다.

아버지에게도 바로 전화가 와 이게 무슨 일이냐며, 상황을 물어보곤 나비를 달래주었다. 아메리칸 항공 AA11편에 타고 있던 승무원들은 모두 유급휴식기간을 갖게 되었고 나비 또한 주어진 휴식기간에 의해 한 달간 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마음 편히 쉬게 되었다. 다행이 인명피해로 크게 다친 사람이 없어 시간이 지나서는 술자리 얘기에 항상 나오게 되는 영화 같은 일로 뽑히게 되었다.

일 년 뒤

나비는 신입 승무원 티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우수한 실력으로 승객들을 편안하게 모시게 되었다. 그리고 김태혁 승무원과는 연인 사이로 발전 해 서로 일정이 없는 날이나 브리핑 시간이 남으면 함께 여행도 다니며 특별한 연애를 하게 되었다.

"나비야, 아 아니 나비씨.."

태혁이 이렇게 가끔 실수 할 때도 있지만 공과 사는 확실하게 구분해가며 두 명 다 서로 배려해 가며 일에 집중하게 되었다. 나비는 진상 손님들을 현명하게 잘 대처하는 법을 터득하고 일반 승무원 중 에이스라는 별명이 붙여지게 되었다.

나비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이룬 꿈을 이뤄냈다고 자만하거나, 자신에게 관대해 지지 않았고 항상 겸손하며 살아갔다.

나비는 그렇게 아름다운 비행들을 하며 오늘도 하늘을 날았다.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비행

우수상 | 정가은

당신의 첫 비행은 언제였나요? 누구와 함께하셨나요? 비행기는 교통수단 중에서 가장 값이 비싸고, 탑승 과정이 철저하므로 다른 교통수단보다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몇십 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저에게도 비행은 항상 특별하고,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교통수단이죠. 그런 저의 기장으로서의 마지막 비행에 한 소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저와 아주 특별한 첫 비행을 하게 된 소년이 있습니다. 이름은 동희라고 해요. 정말 귀여운 이름이죠? 동희는 인천의 한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이제 막 10살이 된 동 휘는 푸른 바다를 볼 수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지요. 동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골 소년이 어쩌다가 특별한 첫 비행을 하게 되었을까요? 순수한 소년과 저의 이야기를 들어봐 줄래요?

동희는 공부와는 거리가 참 먼 아이예요. 그저 할머니의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의 하소연도 다 잘 들어주는 소리여요. 제가 동희 아버지와 술 한잔하며 대화해 봤는데, 제 옛날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보다 지루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동희가 얼마나 배려심 깊은지 아시겠죠? 동희는 매일 창문 밖을 보며 비행기의 개수를 셌다고 해요. 하얀 비행기, 하늘색 비행기, 초록색과 노란색 무늬가 있는 비행기…. 학교 선생님이 나무라도 뭐 어쩌겠나요. 동희는 비행기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선생님께서 받아쓰기 시험을 하루에 10번 보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셔도 동희의 비행기 사랑을 말릴 수 없었어요. 그런 동희가 드디어 100번째 비행기를 타던 날, 동희의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된 절 만났습니다.

바가지머리를 한 동희는 머리가 너무 촌스러워 저의 어린 시절 친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동희는 너무나 귀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동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낯선 아저씨에서 할아버지의 중간 정도 되어 보이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 있자 동희는 너무나 놀라고 말았어요. 하지만 제가 집에서 지내게 된 사람이란

걸 알고는 금방 친근하게 인사해 주었답니다. 자기는 동희고, 비행기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 어른이 되면 비행기를 꼭 탈 것이라 말했죠. 그 말을 듣고 당시 마지막 비행을 앞둔 저는 동희에게 저의 직업이 기장이라고 말해줬어요. 갑자기 자신의 집에서 살게 된 한 할아버지가 처음 듣는 직업을 가졌다고 하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10살에게는 너무 어려운 기장이란 이름은 낯선 감정과 두려움을 동시에 주었습니다. 동희가 절 이상하게 쳐다보자, 저는 저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기장은 어떠한 직업이고, 제가 얼마나 소중한 비행을 앞두고 있는지를요.

"난 비행기 기장이란다. 배를 운전하는 선장처럼 비행기를 운전하는 기장이 있어."

동희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이 구슬처럼 똥그래지더니 헉!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동희의 눈빛은 공포영화에서 한순간이 로맨스 영화로 변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진짜로 비행기 운전해요?"

"그럼, 근데 이제 난 마지막 비행을 앞두고 있단다. 비행기는 점점 더 안전한 방향으로 변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승객들이 안전하게 비행을 하도록 발전하고 있지. 또 젊고 유능한 기장들이 많아졌어. 나도 이제 자리를 내려놔야지."

"그런데 우리 집에서는 왜 주무시는 건가요? 이곳이 고향이신 가요?"

" 아니, 실제 고향은 아니지만, 나의 마음속의 고향이긴 하지·인천은 한국에서 세계로 갈 수 있는 도시야, 나에게는 너무 의미 있는 도시거든, 매일 아침, 밤, 새벽… 인천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비행하게 된 난 인천의 땅을 밟아보고 싶었어. 이 집의 빨간 지붕이 가장 마지막으로 보이거든."

초등학생인 동희에게는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어른의 속 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희는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그러곤 쭈뼛거리더니 어렵사리 한 마디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비행이 내 첫 비행이 되었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생각지도 못한 동희의 답변에 전 동희에게 너무 궁금해 비행기에 왜 그렇게 빠졌는지 물어봤습니다.

동희는 웃으며 자신이 비행기를 사랑한 계기를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우리 집에서 걸어서 30분이나 걸려요. 할아버지 같은 어른이야 긴 다리로 빨리 갈 수 있지만, 저에게는 무척 힘든 길이에요. 한여름이 되면 정말 다리에서 고기 냄새가 난다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구우우웅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하늘에서 비행기가 날아갔어요. 엄청난 속도로 비행기는 제가 걸어온 길을 지나갔죠. 그때 처음 비행기와 사랑에 빠졌어요. 전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비행기를 타는 걸 바라고 또 바랬어요." 소년의 순수한 애정에 전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비행을 함께하자 말했습니다. 그 말은 들은 동희의 표정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소년의 아버지와 할머니께 양해를 구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소년의 여권을 만드는 거였어요.

머쓱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는 동희에게 저는 비행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함께 탈 비행기의 색이 하늘색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자 동희는 활짝 웃었고, 그때 '찰칵!' 하며 사진기사분이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여권 사진을 찍은 후 사전 답사를 핑계를 대며, 전 인천 국제공항에 동희를 데려갔어요. 한창 여행용 가방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을 본 뒤 저는 동희에게 여행용 가방을 하나 사주었지요. 한참을 심사숙고한 후 고른 여행용 가방은 파란색 여행용 가방이었습니다. 바다처럼 새파랗다고 제가 말했지만, 동희는 하늘의 색깔과 같다고 좋아했죠. 그 아이가 커서도 그 여행용 가방을 들고 다니는 생각을 하니 벌써 뿌듯하더라고요. 이번 여행을 통해 아이가 저처럼 기장이 되는 상상도 해 보았습니다. 바가지머리를 한 이 꼬마가 훗날 왁스를 바를 생각하니 저절로 흐뭇해졌지요. 넓고 넓은 공항과 많고 많은 사람을 동희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쳐다봤어요. 외국인과 대화하는 승무원과 바쁘게 회사 일을 하는 회사원까지…제가 샌드위치를 먹으며 보자고 샌드위치를 사줘도 동희는 한 입도 먹지도 않고 끝까지 공항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학교에서 배운 어설픈 영어로 표지판도 읽어보고 외국인에게 손도 흔들어 봤죠. 한 달이란 누군가에겐 길고 누구에겐 짧은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희는 여름방학의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싫어하던 꼬부랑글자의 영어도 열심히 공부했죠. 저에게 '에어플레인'이라며 자기는 '트립'에 가는 '스튜던트'라고 매일매일 말했죠. 낡아서 오래 걸리는 컴퓨터로 인천공항의 보안이 얼마나 좋은지부터 맛집이 어딘지를 혼자 힘으로 다 찾아보았습니다. 동희 아버지는 공부엔 일절 관심 없던 동희가 드디어 공부한다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그 집의 식구는 모두 동희의 꿈을 응원해 주었죠. 생기 넘치는 동희를 보며 아이를 키우는 즐거움이 이런 거다. 동희 아버지와 이야기도 했죠. 하와이에 가게 된 저희는 하와이안 피자를 먹을지 말지 싸우기도 하고, 동희가 저에게 서핑을 같이하자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늙은 저의 몸으로 무슨 서핑이냐 했더니 할아버지는 배의 지방이 많아 둥둥 떠서 걱정하지 말라고 절

설득했죠. 저 또한 그런 동희를 보며 저의 첫 비행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최연소 국내 항공 기장이 된 전 모든 곳의 기대를 받았죠. 설레고 설렌 마음 설렌다는 말 대신 다른 표현을 쓰고 싶었지만, 다른 표현이 생각나지 않았고, 지금도 찾지 못했습니다. 설렘이 저의 그 감정을 담기에는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동희의 첫 비행이 저와 함께라니 기쁘기도 하고, 잘못될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될까, 한 아이의 꿈을 짓밟을까 두려웠죠. 전 저의 고민을 후배 기장님들에게 말해봤습니다. 후배들은 저에게 기장님 같은 베테랑이 뭘 걱정하냐고 전혀 걱정할 것 없이 마음 편히 평소처럼 다녀오면 된다 말해줬죠. 하지만 저의 머릿속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몇십 년을 비행했지만, 이렇게 두려운 건 처음이었지요.

슬프게도 저의 예상은 전혀 틀리지 않았습니다. 비행 일주일 전, 태풍 예고가 뜬 것이었죠. 저는 소식을 알자마자 동희에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어린아이의 꿈이 한순간에 좌절될까 너무나 두려웠죠.

동희의 할머니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리자 할머니는 다 하늘이 해결해 줄 거라며 동희에게 솔직히 말해 주자고 하셨죠. 태풍 소식을 알게 된 그 날 저녁, 동희에게 솔직히 말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늘 준비하는 자리에 동희에게 태풍이 오고 있으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비행이 결항 될 수 있다고 말해 주었죠. 동희는 김을 젓가락으로 열심히 들다가 젓가락을 탁 놓고 말았습니다. 젓가락이 놓이자마자 김은 날아갔고, 열려있던 창문의 바람을 창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동희는 날아가는 감을 보더니 눈물 콧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그런 동희에게 미안하다 사과하다 같이 눈물 콧물을 쏟았죠. 그날 저녁 인천의 한 시골집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엉엉 울고, 미안하다 사과하고….

다음 날 아침 저에게 기적 같은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후배의 전화였습니다. 후배는 저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고, 저의 마지막 비행이 취소되었던 걸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후배는 저와 동희에게 줄 선물이 있다고 공항으로 다시 와보라고 했습니다.

공항에 동희의 여행용 가방을 꼭 가져오라 말하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약간의 기대와 궁금을 안고 간 공항에 도착하니 여러 명의 승무원이 '하와이에 온 걸 환영해요!'라 적힌 피켓카드를 들고, 하와이 초콜릿을 들고, 하와이식 꽃목걸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와 동희가 손을 잡고 공항 체크인 카운터 앞에 도착하자 모든 사람은 손뼉을 치며 목걸이를 걸어주고 피켓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동희와 저는 직원들이 손수 그린 표와 여권을 들고 출국 심사를 받는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박스로 만들어진 출국 심사 기계를 지나가며 저와 동희는 함박웃음을 지었죠. 어설퍼도 너무나 정성스러웠고, 소중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를 알게 된 공항 직원들과 항공사 직원들의 배려였습니다. 뉴스까지도 이 이야기가 실렸고, 많은 사람이 저희의 비행을 위해 후원해 주신 거죠. 승무원들은 동희와 저의 표를 박스 바코드 기계에 찍으며 '좋은 여행 되십시오.'라 말했습니다. 승무원들의 도움을 받아 간 곳에는 한 비행기가 보였습니다. 눈물로 시야가 가려질까 봐 동희는 눈물을 꼭 참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고 동희가 말해 주었습니다. 자리의 안내를 받고, 여행용 가방도 좌석 위에 넣어보며 저와 동희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둘은 기내식도 먹어보고 기장석에서 안내 방송도 해보며 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행기가 비행하지 못해도, 저희의 마음만큼은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철두철미하게 지켜지고, 보안이 철저한 공항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기 너무나 힘들단 걸 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판타지 영화보다 더 판타지 같은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걸 알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기장실에서 함께 운전석에 앉은 저희는 동희가 어른이 되면 꼭 비행기를 타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의 마지막 비행이자, 동희의 첫 비행이 예정되어 있던 날의 하루 전, 비만 내리던 밖이 기적적으로 개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적 없던 일이라 기상청은 당황하고, 공항도 정상적으로 운항을 하기 위해 분주히 준비하였습니다. 저에게도 결항이 취소되었다고 온 공항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풍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거였죠. 점점 올라오던 태풍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어떠한 변화도 없이 말이죠. 저는 아이처럼 밝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웃은 게 정말 얼마 만인가요. 사라진 태풍의 소식에 세상은 난리가 났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일이다. 나비가 날갯짓을 너무나 강하게 한 나비효과라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동희와 저의 이야기를 아는 저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건 동희를 위한 하늘의 일이란 것을요. 비행기 결항이 취소됨을 알리러 동희의 방을 찾아온 저는 동희의 모습을 보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희는 방의 모든 창문을 다 열고 팔을 뻗으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동희를 보며 다시 한번 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난 지금, 전 비행기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었습니다. 뉴스에서 볼 수 있는 큼직큼직한 비행기 사고가 아닌 이상 차 타는 것도 불편한 전 비행기를 접할 기회가 없었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을 동희가 졸업하는 동안, 동희가 비행기와 다시 가까워지는 시간 동안 전 멀어졌죠. 하지만 저는 전혀 속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하죠. 여러분도 저 같은 늙은이가 운전하는 비행기보다 젊고 건강한 동희가 운전하는 비행기를 타고 싶어서 할 겁니다. 되돌아보면, 저라는 사람은 너무나 작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언제나 그렇듯이, 하늘에서 본 세상은 너무나 작습니다. 개미 똥구멍만 하다고 재미난 표현을 써 볼 수 있죠. 어쩌면 그보다 더 작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비행을 하며 소중한 추억을 준다는 희망적인 생각도 했지만, 작고 작은 세상을 보면 인간이란 참 보잘것없는 존재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희를 만나며 저 자신이 감사하게도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닌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동희에겐 처음인 그 비행이 저에겐, 너무나 감사한 마지막 비행이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울고 웃으며 저에게 비행이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전 저의 비행의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이제 동희가 새로운 페이지를 시작하겠지요. 동희가 미래의 아이들에게 저 같은 존재가 되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 그 전에 동희의 편지가 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부디 사양하지 마세요. 동희도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길 원할 겁니다.

존경하는 김석호 기장님께

기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 동희입니다. 그동안 편지를 자주 못 보냈네요. 기장님처럼 존경받는 기장이 되려면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저 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걸 책임지고 이끌어야 하더군요. 십 년이 한참 지나서야 기장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네요.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좋아하기만 한 제가 너무나도 소중한 경험으로 기장을 꿈꾸고, 기장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 과정을 거치고 거쳐서 저는 드디어 꿈꾸던 기장이 되었어요. 이제 선배님으로 불러도 될까요? 엄청 까마득한 선배시지만, 저희는 남들보다 엄청 가까운 사이니까…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비행을 한 선후배 관계입니다. 이제 제가 선배님을 모셔도 될까요? 세상에서 가장은 아니고 두 번째로 특별한 비행이 될 거라 장담합니다.

항상 당신의 팬인 고동희 올림

동희의 편지를 읽으면 동희의 순수하고 희망찬 그 모습은 전혀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바가지머리 꼬마가 드디어 왁스를 바른다고 하네요. 전 저의 인생의 비행기가 잘 착륙하고 있다고 이 편지로 굳게 믿게 되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제자인 동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동희 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비행을 하길 바랍니다. 그런 동희의 비행기를 타게 될 여러분들도 행복한 비행 하십시오!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우수상 | 천일정

속옷을 사야 한다. 열 개면 되려나. 짐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캐리어를 좀 더 큰 것으로 사야 하나. 맞다 우산도 필요하지. 영국은 비가 불시에 내리는 곳이라고 했다. 마치 툭하면 울던 그의 모습과 닮았다는 생각에 무표정했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래, 울보였지. 새벽 비행기를 타게 된다면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좋다고도 했다. 그의 블로그에 검은 글씨로 새겨져 있었다. 하얀 화면에 납작하게 붙어있는 문장들은 귀 옆에서 말해주듯 생생하게 전해졌다. '영국으로 떠나는 열흘' 그의 마지막 블로그 제목이었다. 나도 딱 열흘, 그처럼 영국에서 머물 것이다.

*

엄마는 대학생이 된 나에게 우렁차게 통장 하나를 건네주셨다. 대학교 등록금에 보태라는 것이었다. 어릴 때부터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나는 선뜻 받을 수 없었다. 나도 보통의 청년들처럼 쉽게 구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시작으로 돈을 모았다. 인적이 드문 집 근처 편의점과 학교와 가까운 작은 서점에서 짬짬이 일을 했다. 처음 서점에서의 내 일은 신간도서를 진열한다거나 먼지가 쌓여버린 책을 헌책방에 파는 정도였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카운터 일을 맡게 되었고 취미로 취득한 바리스타 자격증 덕에 커피도 내리게 되었다. 오랫동안 그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 손님들이 책 사이에 끼워두고 간 책갈피들을 종종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손님들이 꽂아두고 간 책의 위치를 기억해 두었다가, 다시 방문하여 그 책을 읽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대개 사람들은 다시 책을 읽지도 책갈피를 찾으러 오지도 않았다. 자연스럽게 책갈피를 끼워두고 간 책들을 카운터에서 마저 읽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대학생활 내내 의도치 않게 모인 책갈피들은 내 오른쪽 두 번째 책상 서랍을 가득 메웠다.

*

홍상민을 처음 만난 곳은 '알아요' 서점이었다. 처음 만난 날은 비가 드세게 쏟아지는 날이었다. 서점 바닥은 입구에서부터 문이 열릴 때마다 날카롭게 내리꽂히는 빗물에 흥건했다. 문이 열리자 이어서 들이닥칠 빗물과 함께 홍상민이 들어왔다. 빗물이 겉을 감싸는 캐리어와 물을 가득 먹은 베레모, 귀 밑 머리카락에서부터 이어진 가지런한 수염, 두 번째 단추가 떨어진 트렌치코트, 사이로 보이는 남색 스웨터를 입은 그. 지저분한 듯 하면서도 깔끔한 듯한 옷차림은 묘한 끌림이 있었다. 격정적이면서도 어딘가 차분한 느낌이 공존하는 것이 그의 인상을 더욱 각인시키게 했다. 손에 쥔 빨간 다이어리의 물기를 털고 나를 향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우산의 물기를 털지 않은 탓에 그가 걸어온 바닥 위에는 듬성듬성 물 얼룩이 짙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기분이 들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 라테 한 잔 주세요."

그는 인상과는 달리 차분하게 음료를 주문했다. 수염에서 떨어지는 빗물은 정확히 단추의 두 번째 빈자리에 연속적으로 스며들었다. 빗물의 규칙적인 낙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러다 문득 이상하게 말을 걸고 싶은 충동적인 감정이 올라왔다.

"누가 또 오나요?"

"왜 두 잔을 주문하시나요?"

이성보다 본성이 앞서 무례한 질문을 던져버렸다. 나답지 않은 행동이었다. 그의 수염에서 코트로 떨어지던 빗물의 규칙성이 무너지고, 물 자국이 요동치며 스며들었다. 나도 재빨리 커피 머신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대답은 원두와 함께 갈렸을 것이다. 아마도.

드립 커피에서 서서히 떨어지는 커피 방울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의 트렌치코트 위로 스며들던 빗물이 연상되었다. 나는 계속해서 드립 커피에 물을 부었다. 멈추지 않는 물줄기에 커피의 농도는 점차 옅어졌다. 커피 향만이 둥둥 떠다니는 탁한 물을 그에게 건네었다. 그는 빨간 다이어리를 겨드랑이에 끼운 다음에 두 손으로 커피를 들었다. 다이어리는 마치 책갈피처럼 보였다. 단순한 행동 하나로 그가 책이 되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주 잠깐, 소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익숙하다는 듯이 단골들만이 아는 계단 뒤의 공간으로 갔다. 내가 종종 점심을 먹거나 책갈피 뒤의 내용들을 읽는 곳이었다. 건너편 골목에서 꽃집을 운영하던 아주머니나 태권도가 끝나고 땀에 젖은 도복차림으로 달려오던 꼬맹이, 그리고 아내의 갱년기에 시달려 도망을 오던 박씨. 적당히 이 정도가 내가 일하는 시간마다 오는 단골들이었다. 그들 각자는 서로 다른 눈짓으로 음료를 주문했다. 그리고 두 시간이든 세 시간이든 계단 뒤에서 책을 읽었다. 하지만 그는 낯선 단골이었다.

그는 저녁 아홉시에 와서는 마감 시간인 열한시가 다되어도 계단 뒤에서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덕분에 계단을 바라보며 화장실을 가지는 않는지, 커피를 두 잔이나 주문하고서 다 마시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하는 관심 없는 생각들을 했다. 그를 기다리다가 카운터와 계단 앞 조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등했다. 마감 시간까지 오 분을 남짓한 순간, 그가 나에게 다가왔다. 빨간 다이어리를 건네면서 말이다. 결말까지 다섯 페이지 정도 남은 기분이었다.

"이렇게 생긴 책갈피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삼 년 전에 이곳에서 잃어버렸거든요."

다이어리에는 영국의 랜드 마크인 빅벤이 그려져있었다. 한눈에 알았다. 꼭 한 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으며 내가 가장 아끼는 책갈피 모양이었다. 그가 찾던 책갈피는 내 오른쪽 두 번째 책상 서랍에 묻혀있었다.

"알아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홍상민은 내 대답을 듣고 커피를 주문할 때와는 사뭇 다른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밝은 얼굴이었다. 때마침 열한시가 되었지만, 나는 한 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서점을 벗어났다.

"아내와의 소중한 기억이에요. 아신다니 기쁘네요."

그가 말한 빅벤 책갈피에 얽힌 이야기는 그랬다. 프랑스로 신혼여행을 가고 싶었던 그와 반대로 아내는 영국으로 가고 싶어 했다. 그래서 아내의 뜻대로 여행지를 영국으로 정했고, 그때 기념으로 산 책갈피이었다. 알고 보니 서점은 그가 아닌 아내가 단골이었다. 아내는 신혼집을 '알아요' 서점 근처로 옮기고 나서부터 줄곧 그곳을 방문했다. 그러고 보니 내가 잊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 반년 전부터 매일 오던 긴 생머리 여성분이 보이지 않았다. 야구 모자를 썼다기보다는 덮은 여자였는데, 바람이 부는 날에도 바닥에 끌릴 듯이 늘어진 원피스를 입고는 계단 뒤에서 꼭 커피를 두 잔씩 주문하던 사람. 내가 기억나는 대로 떠올린 여자는 그의 아내가 맞았다. 그의 아내는 혈관성 치매를 겪고 있었다. 특히 언어능력이 빠르게 저하되었다. 한 글자라도 더 머릿속에

넣어두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아내는 책을 읽고 또 읽었다. 그는 다이어리를 한 장 넘기고는 다시 내 쪽으로 밀었다. 홍상민홍상민홍상민홍상민….

"제 이름이에요."

아내가 기억하는 마지막 글자라고 덧붙였다. 홍상민은 말을 하던 도중에도 연속적으로 다이어리를 쓰다듬었다. 마치 빨간 야구 모자를 덮은 아내의 얼굴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다. 다이어리는 밖이 어두운 탓에 더욱 탁하게 보였다. 온 세상이 진한 커피 원액을 뒤집어 쓴 듯 했다. 다이어리에서 홍상민에게 시선을 옮겼을 때에는 이미 울고 있었다. 내 손은 어느새 빗방울이 겉도는 트렌치코트 위에 얹어져 있었다. 홍상민은 내 어깨에 기댔다. 홍상민이 나에게 내가 홍상민에게 안겼던 것 같다. 거친 숨소리가 느껴졌다.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행위였다.

*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 라테 한 잔 주세요."

하루 종일 나를 기다리게 만들던 홍상민의 주문. 내가 위로란 걸 처음으로 했던 날 이후로 서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지루해졌다. 화 목 토. 오후 세시부터 열한시. 내가 근무하는 시간마다 아내처럼 성실하게 방문했다.

"여기요."

미리 만들어둔 커피 두 잔과 컵홀더에는 오랫동안 내 서랍에 묻혀있었던 홍상민의 책갈피를 꽂아주었다. 정확히 말하면 아내의 것이겠지만. 커피를 받은 홍상민은 침울한 울음을 흘렸다. 책갈피 때문인가 하기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흐느낌이었다. 감정에 정확한 이유를 짐작하기 어려웠다. 지나고 보니 홍상민의 울음에는 항상 무게가 있었다. 눈물 한 방울에도 생각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다. 울음의 소리는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눈물이 떨어질 때에는 묵직한 소리가 연속적으로 들렸다.

계단 뒤에서 마감 시간을 기다리던 홍상민은 언제나 빨간 다이어리와 함께했다. 커피 두 잔과 마주 앉아 또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다이어리를 적고 있을 때면, 양쪽 볼에 빨래집게로 집은 듯이 입꼬리는 코끝보다 치솟아 올라가 있었다. 홍상민은 통상 화요일에 읽기 시작한 책을 목요일에 마저 읽었다. 홍상민이 책갈피를 꽂아두면 나는 수요일마다 몰래 읽어보았다. 내가 먼저 결말을 알고 싶었고 홍상민을 좀 더 알고 싶었다.

홍상민이 커피를 주문하면 나는 오른쪽 서랍에 차고 넘치는 책갈피를

컵홀더에 하나씩 꽂아주었다. 또한 시간이 날 때마다 계단 뒤 그가 남겨둔 메모에 빠짐없이 답장도 했다. 메모의 대부분은 아내에 관한 것이었다.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았다. 중간 중간 나에 대한 궁금증이 담긴 메모도 있었다. 그럼 나는 여러 번 메모에 적을 글씨를 고치고 또 고쳤다.

*

가끔은 홍상민에게서 진한 허브향이 풍겼다. 어디서 맡아 본 향이었는데 막상 떠오르지는 않았다. 어느 날, 손님이 주문한 재스민 차를 우리다가 알게 되었다. 그가 재스민 향수를 뿌리고 온 날에는 어울리지 않게 엉덩이를 덮는 긴 재킷과 복숭아뼈 위에까지 오는 어정쩡한 길이의 정장바지를 입었다. 낡고 힘없는 가죽 가방도 들고 왔다. 가방은 갈색처럼 보였는데 원래도 그 색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단지 구멍 몇 개가 가방 속에 담겨있는 내용물을 보여줄 뿐이었다. 가방 안에는 삼백 페이지 정도 되어 보이는 두꺼운 노트북이 들어있었다. 꽤 오래된 기종의 노트북이었다. 그는 다리를 수십 번 정도 떨었고 고개를 앞으로 떨구기도 했지만, 카운터에서 보면 영락없이 즐거워 보였다. 아내가 혈관성 치매를 앓고 있는 남편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1년 정도 홍상민과 나는 서점에서 책갈피를 주고, 받았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임상심리사로 진로를 정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알아요' 서점에서의 일도 그만두게 되었다.

*

감정을 외우기 시작한 건 표정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부터였다. 감정표현불능증. 한글을 깨우치고 처음 읽은 단어였다. 어린 시절 사각형 방의 네 벽면에는 표정이 그려진 카드가 정리되지 않은 채 덕지덕지 붙어있었다. 전부 내가 보기엔 일그러진 익살맞은 얼굴들이었다. 매일 아침 엄마는 내게 만화를 틀어주고는 주인공이 처한 상황에 맞는 감정을 고르라고 했다. 나는 특히 <아기공룡 둘리>에서 고길동 아저씨의 표정과 감정을 연관시키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고길동 아저씨의 표정과 감정은 항상 상반되게 맞물렸다. 그래도 엄마의 노력 덕에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까지 나는 사각형 방의 감정들을 모두 외울 수 있었다. 하지만 초등학교는 시작에 불과했고 감정만을 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와 엄마는 뒤늦게 알아차렸다.

내가 마주한 고길동 아저씨의 표본으로 초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여자애이었던 최은희를 예로 들 수 있다. 최은희는 부잣집 외동딸이었다. 배경은 가을이었고 상황은 최은희의 생일이었다. 최은희의 어머니는 귀한 딸의 생일을 맞이하여 같은 반 아이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엄마는 내가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에 크게 기뻐했던 것 같다. 엄마가 기뻤했다는 것을 나는 직접적인 웃음이 아닌 달력에 적힌 '우리 딸 초대받은 날'을 보고 알 수 있었다. 엄마는 좋은 일이 생기면 탁자식 달력에 적어 두는 습관이 있었다. 첫머리는 꼭 우리 딸이었다. 최은희의 생일 당일, 엄마는 메모지에 세 가지를 적고는 여러 번 접어 내 주머니에 넣었다. 괄호 속에 갇힌 단어들은 수없이 외워온 감정들이었다. 하지만 현실에 적용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다.

1. 은희 부모님께 배꼽인사하기. (차분함)
2. 축하 노래를 부를 땐 웃으면서 박수 치기. (즐거움)
3. 대화를 하면서 수시로 고개 끄덕이기. (친절함)

최은희의 집은 주택들 사이에서도 가장 큰 집이었다. 높은 현관문이 열리고 머리를 높게 묶은 여자가 있었다. 머리를 높게 묶은 탓에 눈은 양쪽으로 족제비처럼 찢어져 있었다. 여자를 본 옆에 있던 친구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나는 영문을 모르는 상태에서 곧바로 1번을 실행했다. 최대한 차분함을 연출했다. 그러자 최은희는 구두를 벗으며 그냥 일하시는 아주머니야, 했다. 1번을 성공적으로 마치지 못했지만 내 인생에는 늘 최은희 같은 변수가 도와주고는 했기에, 찝찝한 기분은 전혀 들지 않았다. 지금 보면 나는 꽤나 1번을 하기 싫어했던 것 같다.

거실에는 음식들이 줄줄이 차려져 있었다. 한식, 일식, 중식, 양식이 나라별로 펼쳐져 있는 모습은 식탁이 아닌 세계지도 같았다. 새우초밥의 새우 꼬리마저도 두 손 모아 최은희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처럼 보였다. 3단 케이크가 바퀴 달린 쟁반에 실려 나왔고 이어 축하 노래를 불렀다. 아이들을 뒤따라 나도 어영부영 2번을 실행했다. 최은희를 위해 엇박자로 부딪혀 소리를 내는 박수를 쳤고, 더듬거리며 노래를 불렀다. 누군가를 위한 축하는 그때가 처음이었다. 노래가 끝나고 가지각색으로 포장된 선물들이 최은희에게 주어졌다. 최은희는 어금니가 보일 정도로 크게 웃었다. 벌어진 입 틈새 사이로 금니가 네 개 보였다. 선물은 케이크가 실려 온 바퀴 달린 쟁반에 차곡차곡 쌓였다.

세계지도 위를 돌아다니며 각국의 맛을 느끼고 3단 케이크의 바닥이 드러난 후에야 생일파티는 끝이 났다. 3번은 최은희의 집을 들어서면서부터 쉴 새 없이 해야만 했기에 목이 매우 뻐근했다. 집에 돌아와서 방안에 가득 붙어있던 감정 카드에서 고마움 카드를 떼어냈다.

*

사람들은 울고 있지만 슬픈 것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웃고 있다고 즐거운 것도 아니었다.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알 수 없었다. 내가 이를 깨우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엄마는 나를 또 새로운 것과 마주하게 했다. 초등학교 졸업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땐, 책상에 책 한 권이 놓여있었다. 무심코 겉표지를 넘겼고 책의 첫 장에는 '심리, 마음의 작용과 의식의 상태.'라고 적혀있었다. 엄마는 선물이라는 한 마디만을 덩그러니 내뱉었고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난 감정 다음으로 심리라는 것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 책을 세 번 정도 읽고 나서야 감정이 심리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알았다. 하던 대로 심리에 따른 감정 변화와 태도 변화를 빠르게 익히고 외웠다. 심리학을 전공하고 나서야, 최은희는 구두 굽까지도 거만했다는 것을 알았다. 또 나의 감정과 표현에 혼란을 주던 세상의 모든 고길동 아저씨들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도 비로소 알게 되었다.

*

대학을 졸업하던 날, 엄마는 만족한다는 얼굴로 나지막하게 말했다. 우리 딸 이제 연애라는 걸 해봐. 하고 등을 두 번 두드렸다. 연애라. 살면서 딱 한 번, 끌렸던 사람이 있었다. 커피를 두 번 주문하던 사람. 빨간 다이어리를 들고 다니던 사람. 결혼을 한 사람. 홍상민이 곧바로 떠올랐다. 대학원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서점에 들러서 홍상민에게 메모를 남겼었다. 6년이 지났음에도 메모는 그대로 계단 뒤에 붙어 있었다. '홍상민. 당신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내 메모에 대한 답장도 있었다.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내 블로그 이름이에요.'

정말로 그 답장은 홍상민의 메모였다. 6년 만에 알게 된 그의 소식은 블로그 이웃이 2만 명이나 보유한 인플루언서라는 것이었다. 블로그에 게시된 글은 모두 여행에 관련된 글이었다. 첫 게시글의 제목은 '프랑스로 떠나는 열흘'이었다. 6년 전에 올라온 글이었다. 홍상민은 자신의 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이에게 정보를 주고 있었다. 여행 초보자들이 흔히 당할 수 있는 사기나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는 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해 두었다. 게시글에 달린 댓글들은 전부 홍상민을 칭찬하는 내용이었다. 여행에 관련된 게시글 사이사이에 익숙한 다이어리 사진이 반복해서 보였다. 빨간 다이어리가 표지인 게시글을 여러 개 눌러보았다. 그동안 다이어리에는 빅벤 책갈피와 아내와의 추억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홍상민은 여행지의 날씨와 공기, 분위기를 전부 다이어리에 기록해두었다. 그 어디에도 홍상민의 아내와 관련된 것은 없었다. 마지막 게시글의 부제목은 '알아요.' 서점의 메모에 적혀있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이었다. 나는 다이어리를 챙겼다.

*

영국에 착륙하기도 전부터 비행기 창 너머에는 장대비가 내리고 있었다. 홍상민의 블로그를 보고 챙긴 접이식 우산을 캐리어에서 꺼냈다. 내가 부친 짐을 되찾고 공항을 나섰을 때에는 이미 비는 그쳐있었다. 나는 홍상민의 블로그를 참고하여 여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마지막 장은 '빅벤 앞에서 인증샷 찍기'였다.

여행 마지막 날, 나는 정말로 빅벤 앞에 서 있었다. 오랜 시간 나와 홍상민 사이에 끼어있던 책갈피를 실제로 보니 별 감흥은 없었다. 홍상민의 아내는 왜 빅벤 모양의 책갈피를 샀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빅벤을 경치로 둔 작은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했다.

"One hot Americano and one latte, please."

점원의 콧바람은 세게 나를 향해 한 번 불어왔고, 입꼬리는 왼쪽으로만 톡 솟아오르듯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검정 머리에 푸른 눈동자를 가진 백인 점원은 내 주문을 듣고 애매하게 웃었다. 그러고는 말했다.

"I'm sorry. The man just placed the same order as you."

여자가 말하는 남자가 홍상민이었을까라는 생각보다도 먼저 뒤를 돌아봤다. 점원이 말한 커피를 두 잔 주문했다던 남자도 나를 보고 있었다. 카페 안에 재스민 향수가 진동했다. 더욱 정갈해진 수염과 트렌치코트의 두 번째 단추자리에는 새 주인이 들어서 있었다. 홍상민이었다. 커피를 내려두고 홍상민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나를 안았다.

테이블 하나에는 사람 둘과 커피 네 잔이 놓여있었다. 홍상민이 라테를 마시면 나는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당신을 알고 싶어요."

홍상민은 대학 동기였던 아내와 스물다섯에 결혼을 했고 승무원 부부가 되었다. 아내는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고 어쩔 수 없이 승무원을 그만두어야 했다. 그러면서 홍상민이 비행을 하는 동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아내는 서점에 취미를 갖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대학원에 들어간 해에 아내의 혈관성 치매는 더욱 악화되었다. 내 메모를 보았을 때에는 이미 아내는 세상을 떠난 뒤였다. 그때 고작 서른. 지금의 내 나이였다. 홍상민은 아내를 잃고 나서 곧바로 승무원을 그만두고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다. 항공사에 재직하면서 아내와 함께 많은 나라를 다녔지만 모두 생계를 위한 비행이었다. 다이어리처럼 기록을 하면 어떨까 하고 시작한 블로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신혼여행을 왔던 영국에서 블로그를 통해 아내를 정리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다 영국에 눌러앉게 되었고, 나를 이곳에서 기다렸다고 했다.

"나도 당신을 알고 싶어요."

선천적으로 감정표현불능증 앓아 감정을 전부 외웠던 일, 그러다 심리라는 것까지 공부했던 일, 내 머릿속은 온통 표정이 뒤죽박죽 섞이고 있는 일, 아직도 사람들과 말을 섞을 때면 적절한 표정을 고르는 데에 시간이 걸리는 일,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 내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걸었던 일. 그 누군가는 바로 홍상민 당신이었다고.

홍상민은 고개를 세 번 끄덕이고 다리를 한 번 떨었다. 그리고 웃으면서 물었다.

"우리 집에 올래요."

*

그의 집은 제법 살림을 갖춘 집이었다. 방 두개와 화분을 몇 개 놓을 정도의 베란다도 있었다. 바닥은 번들번들 광이 났고, 싱크대에는 물기가 다 마른 그릇들이 가지런했다. 저녁을 차려주겠다고 말한 홍상민은 티브이 앞 소파에 나를 지그시 앉혔다. 소파에는 재스민 향기가 깊이 배어있었다. 티브이에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경직된 얼굴로 남자 아나운서는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런던에는 하루에 대략 일곱 번의 비가 내린다는 내용을 전했다.

아나운서의 얼굴은 나름 진지해 보였을지 몰라도 목소리에서는 지루함이 느껴졌다. 곧이어 아나운서는 왜 아직도 수요일이냐는 불만과 비는 언제쯤 오지 않느냐는 투정이 거세게 담긴 목소리였다. 영국 시민들을 속였을지 몰라도 아나운서는 나를 속이지 못했다. 뉴스가 끝나기도 전에 식탁 위에 음식들이 차려졌다. 열흘쯤 됐으면 한식이 먹고 싶을 것이라며 된장찌개를 끓여주었고, 나는 정말 한식이 그리웠다. 홍상민은 된장찌개 한 그릇을 덜어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냉장고 안은 집만큼이나 깔끔했다. 음식들의 상표들은 하나같이 앞을 향해 정렬하고 있었고, 혼자 먹기에는 많은 양의 채소들이 눈에 선명하게 인식되었다. 강렬한 푸른색이 오랫동안 잔상에 남아 있었다.

열흘 만에 음식다운 음식을 먹어서인지 기분이 좋았다. 후식으로 홍상민은 레드 와인과 포도를 가져왔다. 금시에 와인의 반이 비워졌고 나는 약간 어지러웠다. 손에 힘이 풀렸을 때 잔끼리 서로 부딪혔다. 진한 파동이 손에서부터 온몸으로 찌릿하고 퍼져나갔다. 홍상민의 말이 파동에 휩쓸려 내 귀에 들어왔다.

"침대에 누울래요."

*

침대에 누워서 보이는 창문에는 빅벤이 보였다. 초에, 분에, 시에, 움직이는 시계의 소리가 점점 홍상민의 숨소리만큼 크게 들렸다. 옷장 옆 책꽂이에는 빨간 다이어리가 있었다. 한, 열 권정도. 모두 똑같은 다이어리였다. 그리고 옆방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내가 고개를 돌리자 홍상민은 일어나면서 말했다.

"레트리버야. 아직은 아기이지."

홍상민이 레트리버에게 밥을 주러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심심해서 꽂혀있는 다이어리를 아무거나 하나 집어 들었다.

'7월 10일 은희가 드디어 홍상민을 기억하지 못한다.'

옆방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불 꺼진 거실 바닥에 문 틈새로 새어 나오는 빛이 길게 누웠다. 그림자 두 개가 나란했다. 거실로 나와 틈새에 눈을 끼워 넣었다.

"홍상민. 홍상민."

"최은희, 언제까지 그 자식 이름만 부를 거야."

"홍상민홍상민홍상민……"

"아이씨….나는 김상철이라고."

방안에 걸려있던 액자 속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와 턱시도를 입은 홍상민이 있었다. 초점이 흐린 눈으로 빅벤을 바라보며 홍상민만을 외치던 여자. 야구모자를 눌러써서 한 번도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알아요' 서점의 단골 여자. 여자 앞에는 내가 알던 사람인 홍상민이, 아니 김상철, 김상철이 서있었다. 그 옆에는 최은희가 서 있었다.

*

눈을 떴을 때 나는 다시 빅벤을 마주하고 있는 침대 위였다. 그리고 김상철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최은희와 함께 말이다. 김상철은 능청스럽게 최은희에게 나를 소개했다. 책갈피를 찾아준 고마운 사람이라고 했다. 최은희는 내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아줌마."

최은희의 눈은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는 눈이 아니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떨리지도 않았다. 재스민 향이 지독했다.

"홍상민."

내가 뱉은 세 글자에 김상철은 무릎을 치며 웃었다가 울었다가 했다. 김상철은 부드러운 손으로 내 머리를 정돈했다. 마지막 한 올을 귀에 넘겨주면서 나에게 홍상민을 짧게 소개했다. 최은희가 제일로 사랑했던 남자. 김상철의 절친이었다. 갑자기 최은희는 온몸을 떨며 김상철에게 안겼다. 홍상민이 누구예요, 여보. 하고. 내가 알던 최은희가 아니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다.

*

책장으로 시선을 옮기고 빨간 다이어리의 행렬을 바라보았다. 홍상민. 아니, 김상철에게 나는 책갈피였나. 커피 두 잔을 주문하던 사람은 홍상민이었을까, 김상철이었을까. 그가 내게 내보였던 표정들과 행동들은 모두 진심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확신할 자신이 없었다. 먹었던 음식들이 역류할 것처럼 뱃속에서 부글거렸다. 목구멍에 끈적한 신맛이 올라왔다.

빅벤 위로 비가 덮쳤다. 김상철은 또 울었다. 아니 웃었던 것 같다. 빅벤의 초침이 속삭이듯 다섯 걸음씩 지나갔다. 시침과 분침은 둔탁하게 숫자 사이에 걸려있었다.

제9회 항공문학상 수상작품집

제9회
항공문학상
수상작품집

03

초등부

수필

프리미어리그 직관

최우수상 | 주송하

유럽리그가 메시와 이별을 선택한 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뜻이다.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 우승은 메시의 축구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그려졌다. 어쩌면 유럽 리그는 또 다른 스타를 만들기 위해 자리를 비웠는지도 모른다. 나는 우리나라의 K-POP 음악이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것처럼 한국인 선수가 유럽 축구리그에서 새로운 축구문화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나는 요즘 축구하는 것이 좋다. 땀에 흠뻑 젖으며 친구들이랑 축구를 하는 것이 행복하다. 그리고 나는 친구들 중에서 축구를 제일 잘 한다. 그래서 친구들은 나와 같은 팀을 항상 하고 싶어한다. 나는 메시의 초등학교 축구실력이 궁금했다. 아마도 나보다 잘 찼겠지만 나만큼 찼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우리 엄마는 중학교 선생님이고, 아빠는 비행기 조종사이다. 엄마는 나와 약속했다. 내가 100일 동안 책을 매일 한 권씩 읽으면 아빠가 운전하는 비행기를 타고 가서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나는 단군신화에 나오는 곰과 호랑이처럼 매일 책을 한 권씩 읽었다.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늦더위가 사람들의 이마에 둥글둥글 땀방울을 만들어 내는 8월 하순이다. 나는 100일을 견뎌낸 곰처럼 책을 읽었고, 엄마는 약속을 지켰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엄마가 내게 한 약속은 나를 책상 앞으로 이끌었다. 방학이 끝나갈 즈음 프리미어 리그는 2023-2024시즌을 개막했다. 손흥민 선수의 단짝인 케인은 독일리그로 옮겼다. 이강인 선수는 프랑스 리그의 명문팀 파리생제르망으로 이적했다. EPL은 올해도 맨체스터시티의 우승이 유력해 보인다. 그러나 이적 시장은 항상 변수를 만들었다. 공은 둥글다. 이변이 일어나는 공간이 축구장이다.

우리 가족은 공항으로 향했다. 몸보다 먼저 가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나는 너무 신나서 강아지처럼 폴짝 뛰었다. 엄마랑 나는 아빠가 조종하는 비행기를 타고 런던으로 출발했다. 런던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마치 거북이가 남한산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어가는 것처럼 비행기 안의 시간은 너무 지루했다. 몸이 꼬이고 자꾸 시선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을 때 승무원 누나가 다가와 불편한 것은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봐 주셨다. 나는 "비행이 길어서 지루해요"라고 말했는데, 그때 승무원 누나가 내 손을 잡더니 영국 캔디 하나를 주셨다. 마치 데이비드 베컴의 정교한 프리킥처럼 내 손에 정확하게 캔디가 들어왔다. 내 생각에 승무원 누나들은 모두 친절한 것 같다.

영국은 우울한 나라라고 한다. 비가 많이 와서 하늘이 우울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화영화나 동화책 속의 영국신사들은 우산을 들고 다녔던 것이다. 우리가 머무는 동안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기를 바랐다. 이제 몇 걸음만 더 걸으면 영국에 도착한다. 아빠와 승무원 누나들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비행을 한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 나는 편안한 집에서 책을 읽는 것도 힘든데, 아빠와 같은 비행기 조종사와 승무원 누나들은 일 때문에 비행기를 오래 타야해서 나보다 더 힘들 것 같다. 그럼에도 승무원 누나들은 항상 웃으며 승객을 대해준다. 정말 대단하다. 지고 있어도 역전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 축구선수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커다란 장애물을 만났다. 태풍이 몰고 온 비가 기관총처럼 쉬지 않고 내렸다. 그래서 아빠가 조종하고 있는 우리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할 것 같았다. 우리 아빠는 베테랑 조종사여서 나는 아빠를 믿었다. 그때 아빠의 안내방송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우리 비행기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승객 여러분들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안전벨트를 매고 승무원들의 지시에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침을 꿀꺽 삼키며 불안해 하고 있었다. 나는 아빠 목소리를 듣고 나서 안심이 됐다.

나는 엄마손을 꼬옥 잡았다. 엄마는 "아빠는 조종을 오래 했으니까, 이런 상황에 잘 대처 할 수 있을거야. 우리는 아빠를 믿자"고 말했다. 그런데 승무원들은 우리와 달리 침착하게 승객들을 안심시키고 있었다. 그들은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잘 맸는지, 구명조끼는 정확하게 착용했는지 꼼꼼하게 살폈다. 그리고 불안해하고 있는 승객들을 위로해 주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비행기 흔들림이 잦아들었다. 비는 여전히 계속 쫓아오며 짖는 강아지처럼 내리고 있었다. 분주하게 움직이던 승무원 누나들의 발걸음이 여유가 있어지고 표정도 밝아졌다. 우리 좌석 옆으로 다가온 승무원

누나가 창문을 올리라고 말해 주었다. 그 말은 우리 비행기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활주로가 보일 때 즈음 창문 너머로 장미꽃처럼 예쁜 무지개를 볼 수 있었다. 모두 안도의 한 숨을 쉬고 영국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다. 이게 다 아빠의 훌륭한 조종 실력 덕분이다.

우리 가족은 공항 카페에서 만나 비행시간 동안 느꼈던 자기의 쫄깃했던 마음을 이야기했다. 나는 비가 많이 오고 비행기가 흔들릴 때 아빠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물었다. 아빠는 "우리 아들 생각을 하면서 정신 번쩍 차리고 운전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아빠는 조종사들은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대로 위기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나는 아빠가 이렇게 길고 지루하며 때로는 위험한 상황에서 비행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 나는 아빠에게 "나는 아빠가 재밌는 비행만 하는 줄 알고 부러워만 했는데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다"고 말했다. 아빠는 내가 듬직하다며 내 머리를 여러 차례 쓰다듬어 주셨다. 이번 프리미어 리그 직관은 축구 뿐만 아니라 내가 아빠의 직업을 좀 더 많이 알게 된 비행이었다.

| 수필 |

이모는 덜렁쟁이

우수상 | 김선율

나는 얼마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 아빠와 아닌 다른 사람과 여행을 다녀왔다. 이모와 사촌 언니를 따라 서울 여행을 다녀온 것이다. 처음에는 엄마, 아빠와 함께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 두렵고 떨렸지만, 잔소리 들을 일이 없을 것 같아 기분이 좋기도 했다. 사촌언니와 나는 서울여행에서 할 일들을 이야기하며 신이 났었다.

복잡한 제주 공항을 빠져나와 비행기에 탑승했다. 그런데, 그때부터 기분 좋고 들떠있던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하고, 엄마, 아빠가 벌써 보고 싶어지기 시작했다. 우리 엄마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놀이기구도 못 타실 뿐 아니라 비행기를 탈 때 손에서 땀이 나고 심장이 쿵쿵 뛰면서 엄청 무서워하신다. 그럴 때마다 내가 엄마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고 손에 땀도 닦아 주었는데, 그런 엄마가 없으니 왠지 더 허전했다.

하지만 엄마, 아빠 없이 용기를 내어 잘 갔다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마음속으로 '여행은 항상 빨리 지나가니깐 즐겁게 지내다 보면 빨리 엄마, 아빠를 볼 수 있어. 멋지게 잘 다녀와야지!'라는 생각을 했다.

비행기 안에서 엄마, 아빠께 보내드리려고 풍경 사진도 찍고 사촌 언니와 이야기도 나누다 보니, 어느새 김포공항에 착륙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비행기에 내려 김포공항 안으로 들어간 사촌 언니와 나는 당연히 수화물을 찾으러 수화물 찾는 곳으로 가는데, 이모께서는 계속 통화를 하시면서 자꾸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셨다. 그래서 내가 "이모, 수화물!"이라고 외쳤는데도 이모께서는 "어어"라고 말씀만 하시고는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셨다. 사촌 언니와 나는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 이모를 따라 나가버리면 우리 수화물을 못 갖고 간다는 생각에 우리 둘은 수화물을 찾는 곳을 찾아 앞에서 기다렸다.

그리고 나는 황급히 이모께 전화를 걸었다. "너희들 어디야?" 이모께서는

아직도 수화물을 찾지 않을 걸 모르시고, 우리가 없어진 것만 생각하고 계셨다. 내가 "이모! 수화물 어떻게 해?"라고 말을 한 후에야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이모는 밖에 있는 직원에게 상황 설명을 했다. 하지만, 공항 밖을 나오면 보안 때문에 다시 들어갈 수 없다고 주변에 직원을 찾아 보라는 말씀을 하셨다.

하는 수 없이 이모께서는 우리에게 주변 어른들께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셨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모는 참 덜렁쟁이야. 정말!'이라는 생각이 들며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들 자신의 캐리어를 찾기 바빠보여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도 될지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캐리어는 우리가 들기엔 너무 큰 사이즈라 꼭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였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 같은 분이 어디 계실까? 나는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옆에 보니 아이를 데리고 계신 아저씨가 눈에 띄었다. 아이를 데리고 있어서 왠지 우리를 잘 도와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용기 내어 "죄송하지만, 이 캐리어 좀 내려주시면 안될까요?"라고 말씀을 드렸다. 아저씨는 아무것도 묻지도 않으시고 친절하게 "어! 그래."라고 하시며 캐리어을 꺼내주셨다. 우리 둘은 "감사합니다!"를 외치고, 거의 내 키만큼 큰 캐리어를 끌고 이모에게로 갔다.

이모는 이모 따라 나오지 않고 캐리어를 지키고 안에 있어서 정말 기특하다며 칭찬을 많이 해주셨다. 나는 내가 이모의 보호자가 된 느낌이었다. 그리고, 멋진 일을 한 것 같아 어깨가 으쓱하며, 기분이 좋았다. 이 일 덕에 나는 엄마, 아빠가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고 서울 여행을 잘 마칠 수 있었다. 멋진 시작을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덜렁쟁이 이모 덕분에 공항에서 이런 추억과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이모께 고맙다.

| 수필 |

가족과 함께 보내는 특별한 시간

✽우수상 | 문시윤

"울 아들, 이리와 봐."

수학 숙제를 하고 있는 나를 엄마가 나를 불렀다.

그리고, 내게 여행계획을 전해주셨다.

"이번에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캐나다로 갈 거야. 고모 만나러. 이번에 고모부가 생신이시기도 하고, 할머니께서 고모가 보고 싶다고 했어. 그동안 코로나로 여행도 못 갔었잖아?"

난 갑작스러운 여행으로 놀랐지만, 고모가 어디에 사는지 다시 여쭤보았다.

"고모네는 토론토야."

나는 엄마 말씀을 듣고 설레었다. 고모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민을 가셨다고 한다. 그래서 할머니께서도 고모를 자주 못 봐 그리움이 더 있으시다고 한다. 난 고모를 만난다는 것보다 캐나다로 여행한다는 것에 들떠 바로 캐나다 토론토를 찾아보았다. '단풍의 나라, 캐나다. 가장 큰 도시 토론토.' 토론토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인구의 반이 캐나다 밖에서 출생한 이민자고, 200여 개의 민족이 130여 개의 언어와 사투리를 사용한다고 한다. 그 글귀만 봐도 두근두근거렸다.

나의 첫 해외여행은 두 살 때라고 들었지만 내가 기억하는 첫 해외여행은 캐나다이다.

여행이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엄마는 여행 짐을 싸느라 바빴다. 물건을 사서 넣기도 하고, 짐을 쌌다가 다시 풀었다가 하였다. 짐을 줄이기 위해 옷도 여러 번 접으셨다. 이번 여행의 일정이 길어서 아빠는 회사 일로 함께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누나와 난 조금 서운해하였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아빠가 다음엔 꼭 같이 가자고 하셨다. 캐나다 가기 하루 전날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기차로 우리 집에 오셨다. 난 반가운 마음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챙겨 드렸다. 다음날 아빠가 차로 인천국제공항까지 데려다주었다. 우리의 비행기는 10시 출발이어서 우리는 새벽 5시부터 서둘러야 했다. 항상 공항 가는 길은 설렘으로 가득한 것 같다. 비행기 탄다는 것도 좋고, 어디를 간다는 여행의 기쁨도 있는 것

같다. 모두가 나와 같은지 모르겠지만 두근거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공항은 생각보다 엄~~청 컸다. 밝은 불빛은 사람들에게 좋은 느낌을 주었다. 이른 시간이지만 사람도 많았다. 코로나로 여행을 못 했던 사람들이 몰려 공항은 떠나는 사람, 여행을 마친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상하게도 난 내가 있는 공항이 미래도시처럼 느껴졌다. 각 구역으로 나뉘어 손님을 받는 직원들과 사람을 도와 안내해주는 로봇도. 자동화 시스템으로 사람들의 편리를 도와주는 기계도. 하물며, 멋진 유니폼을 입고 걷는 기장과 스튜어디스도 다 미래에서 온 사람들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두리번거릴 때, 누나가 "빨리 와"라는 말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엄마는 탑승 절차를 해야 한다고 하셨다. 다들 질서 있게 줄을 서고 있었다. 나는 엄마 옆에 바짝 붙어서 엄마가 하는 것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엄마는 짐을 부치고 자리도 정하고 비행기 표를 받았다. 나는 엄마가 혹시 표를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별걱정이 다 들었다. 엄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경유하지 않고 직항으로 간다고 말씀드렸다. 비행시간이 오래 걸리면 두 분이 힘드실 거라고 하셨다. 수속을 마치고 우리는 시간이 조금 남아서 공항 이곳저곳을 구경했다.

우리나라 공항은 세계에서도 유명하다고 한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또 오면 놀라기도 하는 곳이 공항이라고 들었다.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오는지 궁금했다. 발전한 한국. 그곳에서 처음 만나는 공항은 우리나라의 첫인상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친절하고, 깨끗하고, 웅장하고, 멋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다.

엄마는 시간을 체크하고, 누나와 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챙겨 출국장 안으로 들어갔다. 보안 검색대에서 가방과 겉옷을 올려 간단한 짐을 확인받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창밖에는 우리가 탈 비행기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커다란 창엔 다른 항공사 비행기들이 보였다. 다양한 마크를 단 비행기들이 승객을 맞는 것을 보고 드디어 내가 떠난다는 생각을 했었다. 방송에서 캐나다 토론토 탑승 안내가 들렸다. 직원분에게 신분증과 티켓을 보여주고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누나도 표정이 밝아 보였다. 표의 좌석을 확인하고 자리를 찾아 앉았다. 우리는 비행기 날개 쪽, 할머니, 할아버지는 중간 자리였다. 엄마가 앉자마자 안전벨트를 매라고 하셨다. 곧 안내방송이 나왔다, 비행기가 조금씩 움직였다. 그리고 긴 활주로로 옮긴 다음 엔진을 더 점화하듯 소리가 커졌다. 그리고 덩치 큰 비행기는 점점 빠르게 속도를 냈다. 가다가 덜커덩하는 소리도 들렸다. 잠시 후, 비행기가 하늘로 부~웅 떴다. 나의 몸으로 느끼니 정말 신기했다. 점점 보이던 땅이 하늘로 바뀌었다. 그런데 귀가 먹먹해지고 점점 아파 오기 시작했는데 옆에 지나가던 스튜어디스 누나가 사탕 하나를 건네주면서 침을 삼키면 조금 괜찮아진다고 했다. 약을 먹은 것처럼 내 귀는 뻥 뚫렸다. 어떻게 내가 아픈 걸 알았지 하는 생각과 고맙다는 마음이 들었다. 다행히 하늘로 올라온 비행기는 안정적으로 천천히 가는 느낌이 들었다. 나에게도 여유가 생겨 다른 사람들은 뭘 하는지 보게 되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았는데, 두 분 다 가만히 모니터를 보고 계셨다. 난 창가의 구름을 보았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나와 같은 방향으로 펼쳐져 있다. 구름이 너무 예뻐 엄마에게 말을 걸려 했지만, 엄마는 눈을 감고 계셨다.

2시간이 흐르고 나는 점점 지루했다. 마침 엄마도 깨어있어서 조금 힘들다고 하니깐 엄마는 "눈을 감고 아무 생각 없이 있어 보라."고 하셨다. 나는 엄마 말대로 눈을 감고 아무 생각 없이 있었더니 어느새 잠이 든 것 같았다.

비행기가 안정적일 때 실내에서 움직일 수가 있어 화장실도 가고 복도도 지나다녔다. 그리고 모니터의 영화도 골라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 조금 후, 기내식이 나왔다. 식당에서 먹는 음식보다 훌륭했다. 난 맛있게 먹고, 밖을 보았다. 깜깜해진 밤에 떠 있는 비행기가 참 멋있다고 느꼈다. '친구들은 다 자고 있겠지?' 난 시간을 보며, 친구들을 떠올렸다. 이 밤을 보내고 아침이 오면 캐나다로 도착한다. 난 지루했지만, 조금 더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누나와 나는 잠이 들었는데 비행기 안내방송이 들렸다.

"띵띵~ 우리 비행기는 곧 토론토 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라는 기장님의 말에 잠이 번뜩 깨서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비행기는 조금씩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듯했다. 작았던 도시가 더 크게, 크게 보였다. 집도, 도로도, 전깃줄도 조금씩 가까이 보였다. 그리고, 엄청난 진동과 함께 아래로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난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였다. 비행기는 안전하게 착륙하였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고모를 만난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입국 심사를 했다. 큰 도시답게 공항의 사람들도 엄청 많았다. 엄마와 할아버지는 짐을 챙기고 할머니는 누나와 나를 챙기셨다. 우리 짐은 다섯 개라 시간이 조금 더 걸렸다. 공항 밖으로 나오니 웃으면서 두 팔을 벌리는 한 한국분이 보였다. 난 고모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한 번에 알아봤다. 난 뛰어가서 고모에게 안겼다. 고모는 내 얼굴을 보고 볼에 마구마구 뽀뽀하셨다. 난 부끄러웠지만, 고모의 반가움을 한껏 느꼈다. 우리는 고모 차를 타고 고모 집으로 가게 되었다. 집에 도착하자, 고모부와

준하 형, 예림 누나가 우리를 반겨주었다. 나는 처음 보는 고모와 고모부가 낯설었지만, 두 분 다 좋은 분이신 것 같다. 나의 장난도 잘 받아주셨고 많이 웃어주셨다. 집은 넓었다. 우리가 사는 곳의 아파트와 너무나 달랐다. 그래서 두리번 두리번거렸더니 고모가 내 마음을 알았는지 "시윤아, 고모네 집을 좀 둘러봐도 돼."라고 말하자 형과 누나가 안내해주었다. 고모네 집은 지하 1층에 놀이방과 세탁실이 있었고 1층은 주방과 거실, 2층은 세 개의 방이 있는 넓고 좋은 집이었다. 제일 마음에 들었던 공간은 뒷마당이었다. 바로 축구 골대와 바비큐 시설이 되어 있어 부러웠다.

우리의 비행시간 시차로 며칠은 집에만 있었다. 고모가 편하게 해주셔서 모두가 잘 지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일정이 시작되었다. 바로,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러 가게 된 것이다. 말로만 듣던 나이아가라 폭포를 직접 보게 된다니! 사진 속에서만 보았던 폭포의 모습을 다시 떠올려 보았다, 우린 아침부터 서둘러 고모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갔다. 근처에 도착한 우리는 벌써 많은 사람이 있어 놀랐다. 주차장은 만차가 되었고, 나무 사이로 길을 따라가는데, 저 멀리서 폭포 소리가 들렸다. 폭포 소리가 어마어마했다. 그만큼 나의 기대감은 상승하였다.

고모는 표를 사러 갔고, 우리는 줄을 섰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언제쯤 탈 수 있을지 기다려졌다. 조금씩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마치, 놀이공원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것만 같았다, 드디어 우리 차례가 왔다. 우리는 빨간색 우비를 받아 입고 크루즈 앞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크루즈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했다. 빨간색 우비를 입고 탄다면 폭포수에 쏟아진 물을 흠뻑 맞을까? 폭포 쪽으로 간다는데 혹시 위험하지는 않을지 여러 마음이 들었다. 크루즈가 조금씩 속도를 내자 물살이 빨라졌다. 조금씩 폭포 쪽에 다가갔다. 순간 사람들의 탄성이 터졌다. 폭포의 모습을 보게 보니, 웅장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여러 갈래의 폭포가 하나로 만나 물안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감탄이 절로 났다. 폭포가 물살이 너무 세서 안으로 물이 튀었다. 왜 우비를 준 건지 알았다. 폭포를 보는데 엄마가 폭포 속 안에 무지개가 있다고 말했다. 정말 안을 보는데 무지개가 보였다. 마치, 동화 속에 있는 듯했다. 잡으면 잡힐 것처럼 가까웠다. 난 아래의 물이 너무 예뻐서 호들갑 떨며 "엄마, 여기 물 좀 봐봐! 엄청 예뻐!"라고 말했는데 다들 웃으셨다. 주변의 경관과 잘 어우러진 이곳을 난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었다. 엄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진을 찍어주고, 고모와 고모부도 사진을 찍어 남기셨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캐나다 쪽에서 여행할 수도 있고 미국 쪽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한다. 미국 폭포보다 캐나다 폭포가 더 멋있고 거대하다고 하셨다. 난 미국에서 보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모습도 보고 싶었다. 폭포를 감상 후,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밥도 먹고 전망대에서는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먹었다.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다. 마음도 편하고 풍경도 멋졌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도 집라인을 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타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늦어서 다음에 또 오게 된다면 꼭 타볼 것이라고 결심했다.

캐나다에서의 여행은 정말 다채로웠다. 체리 농장에서 체리와 복숭아를 따봤고, 공원에서 놀 때 고모가 직접 만든 도시락을 가져와 함께 먹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준하 형과 예림이 누나와 함께 놀면서 친해진 것 같아 좋았다. 우리는 지하실 놀이방에서 보드게임도 하고, 형과 농구도 하며 땀을 흘리기도 했다. 또, 집 앞 도로에서는 킥보드를 타고 동네를 구경했다. 한적한 마을을 보니, 이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우리 집이 그리웠다. 우린 고모 집에 있으면서 캠핑도 다녔다, 자연에서 만나는 다람쥐와 아름다운 호수에서 수영하는 경험을 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또, 누나와 함께 여름 캠프에 2주 동안 참여했는데, 외국인 친구들과도 친해질 수 있었고, 다양한 음식도 먹어볼 기회를 얻었다. 시간이 있을 땐, 다양한 게임과 책으로 시간을 보냈다. 고모 집에서는 거의 매일 저녁 파티를 열었고, 고모네 강아지 쭌이와도 친해졌다. 축구도 즐기며 잔디에 물을 주면서 놀이도 했다.

고모부의 생일 파티는 특별했다. 아침부터 파티 준비를 시작했고, 모두가 함께 요리하고 준비했다. 고모부가 도착했을 때, 준하 형과 함께 꽃가루를 뿌리며 축하 노래를 부르며 환영했다. 생일 파티가 시작되었고, 축하 노래와 선물을 전달하며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준하 형의 피아노 연주로 파티를 마무리했다.

우리는 캐나다에서 45일 동안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왔다. 우리가 보낸 시간은 길었는데, 막상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니 헤어짐이 아쉬웠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고모를 두고 가셔야 하는 것이 슬펐던 것 같다. 한국으로 시간 될 때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셨고 고모는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우린 다시 공항으로 갔다. 공항은 여행이 시작이자 여행의 마침표가 되는 곳 같다. 우린, 토론토 공항에서 수속을 하였다. 공항은 우리나라의 공항보다 크기가 작았다. 특히 엄마는 면세점이 작아서 아쉬워했다. 여행의 아쉬움을 남기고 우리 가족은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하였다.

공항에 마중 나왔던 아빠 차를 타고 집에 도착하는 동안 아니, 도착해서도

누나와 나는 아빠에게 즐거웠던 캐나다 여행 이야기들을 쉴 새 없이 했다.

우린 여행 후 일상 생활에서도 한참 동안이나 흥분이 가라앉지도 않았고 여운이 많이 남아서인지 캐나다 여행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냈다. 시간이 흘러 이야기보따리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지난 7월, 캐나다 고모가 혼자 한국에 방문했다. 먼저, 고모가 우리 집에 왔을 때 고모가 나를 반겨줬던 것처럼 나 또한 멋지게 안아드렸다. 고모와의 저녁 식사 중, 나는 어떤 비행기를 타고 오셨는지 여쭤봤다. 고모는 웃으며, "이제 고모도 나이가 들어서 경유해서 오는 비행기는 힘들어. 그래서, 바로 직항으로 왔지!"라고 말하며 웃으셨다. 고모는 유쾌하신 분인 것 같다. 이 소식에 가장 반가울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모습이 상상되었다. 고모와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 또한 기다려졌다. 가족 모두 함께 보내는 것은 언제나 특별한 순간이 된다.

숨 고르기

✽우수상 | 문하은

01. 만남

눈을 길게 감았다. 하루를 마감하는 나의 시간. 오늘 하루는 장맛비로 온종일 하늘이 어둑해져 있었다. 먹구름에 가려져 해는 저 멀리 사라졌었고 하늘엔 구멍 뚫린 채로 비가 계속 주룩주룩 내렸다. 학원을 이동할 때마다 젖은 양말이 축축해져 불편했다. 밤이 되어서야 잦아들었다.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 책상에 앉아 에어팟을 키고 이루마의 'River Flows In You'를 듣는다. 나의 밤을 위해 하는 나만의 습관. 가장 평온하고 오로지 나만의 밤을 맞는 시간이다. 온종일 머리를 썼던 나에게 피아노 선율은 잠시 나를 내려놓는 듯한 느낌을 준다. 한 곡이 끝날 무렵, 오늘 나에게 웃음을 주었던 희진이와 재희가 떠오른다.

학교 끝나는 길에 우리 셋은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치듯 무인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여러 과자 중, 우린 귀여운 젤리를 보고 한참 웃었었다.

"야, 이 흰 젤리는 우리 반 우석이 닮지 않았냐?"

"뭐라고? 왜 하필 우석이야? 자세히 보니, 코는 종수 닮았네!"

희진이가 좋아하는 우석이란 말에 희진이는 종수를 끌어다 놓았다. 종수는 재희가 짝사랑하는 옆 반 아이다. 재희는 발끈하며, 희진이를 놀린다.

"야, 몸은 우석이야! 통통한 배 좀 봐라. 하하핫."

"야~ 그만해. 둘이~ 아무리 봐도 이 젤리는 못 사 먹겠다."

"내 말이~ 이걸 어떻게 먹냐?"

다들 "그래, 그냥 보고 말자."라고 하며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고 나왔다. 희진이는 신호등의 불빛을 보고 바로 수학학원으로 간다며 후다닥 뛰었다. 우린 희진이가 뛰는 모습을 보고 웃었다. 그리고, 크게 소리쳤다.

"야! 천천히 가!"

"희진아, 밤에 문자 해!"

"어! 알았어! 한나야! 안뇽~"

희진이는 신호를 다 건너고 우리를 향해 돌아보며 웃었다. '역시, 희진이는 밝아.'라고 생각했다. 재희와 나는 같은 아파트 안에 있는 영어학원에 다닌다. 우리가 처음 알게 된 것은 재희네가 이사 오면서부터이다. 위층으로 이사 온 재희 엄마는 층간소음을 걱정해 우리 집에 과일을 들고 내려왔다. 재희를 보진 못했지만, 위에서 조금 쿵쿵거려도 조금 이해를 부탁하셨다. 엄마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고, 아이가 있다면 이해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서로 학년을 물어보다 5학년이라는 말을 듣곤, 엄마는 현관문을 닫고 복도에서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다 들어오셨다.

다음날, 난 엘리베이터에 그 아이가 타고 내려오는 걸 보고 얼추 나와 비슷한 또래라고 생각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아이가 위층에 사는 줄 몰랐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나와 상관없는 아이였다. 난 시계를 보고 학교까지 예상시간을 그려보았다. '적어도 12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고 빠른 걸음으로 다른 아이들과 반대되는 길로 걸어갔다.

처음 이사 올 때부터 단지 탐색을 했던 나. 할 일이 없을 때마다 혼자 걸었던 그 단지 속에는 미로 길처럼 숨은 길들이 있었다. 그리고 다른 아파트들이 속속 단지를 이루며 공간을 만들 때, 작은 길들이 서로 연결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팝나무가 울창한 곳을 지나면 좁은 길이 있다. 겨우 한 명이 지나갈 수 있는 곳을 몇 걸음 걷다 보면, 곳곳에 때죽나무가 나온다. 때죽나무는 나무껍질이 검은색이어서 때가 낀 것 같다고 해서 붙여졌다는 설이 있는데, 때죽나무에 대롱대롱 달린 열매가 귀여워 난 '대롱 나무'라고 부른다. 처음 아파트 단지를 세울 때 어린나무들을 심는데 시간이 갈수록 나보다 더 훌쩍 크는 느낌이 든다. 아무래도 나뭇잎이 무성해지면서 울창한 숲의 느낌이 들어서인 듯하다.

그런데 이 길은 나만이 알고 있지 않았다. 나보다 먼저 길고양이들이 알고 있던 길이었다. 내가 만난 길고양이는 3마리였다. 어미 고양이는 겨울에 새끼를 낳은 듯 보였다. 어두운 털을 가진 어미 고양이가 우아한 몸짓으로 걸으면, 그 뒤로 두 마리의 고양이는 종종거리는 걸음으로 뒤쫓아 가곤 했다. 마치, 시장에서 엄마 손을 놓치면 영영 못 찾을 것 같은 몸짓으로 어미 고양이를 바짝 따랐다. 내가 다가가 "안녕?"이라고 말하면, 대답하듯이 "야옹~"하고 응답하기도 했다. 혹시, 비가 많이 와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지 걱정도 될 때면, 난 일찍 집을 나서 대롱 나무숲까지 단숨에 달려가 "야옹아~"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러면, 풀숲에서 빼꼼 내미는 새끼 고양이를 만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길을 뒤에서 쫓아오는 아이도 안단 말인가?

난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로부터 날 쫓아오는 조용한 발걸음에 화가나 멈춰섰다.

"이 길은 나만 알고 있는데 혹시, 너도 이 길을 알고 있었어?"

나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그 아이는 멈춰서더니 눈을 더 동그랗게 떴다. 하얀 피부가 유난히 양갈래로 묶은 머리끈과 대비되었다.

"아…. 아니. 이 길로 학교에 가는 줄 알았어."

"뭐라고? 너…. 혹시? 우리 집 위층?"

"응. 며칠 전에 이사 왔는데, 엄마가 알려준 길보다 네가 가는 길이 맞는 것 같아서 따라왔어."

"아…!"

그 뒤부터 나와 재희는 급속도로 친해졌다. 알고 봤더니 재희는 우리 반이었고, 처음 등교한 날로부터 나의 단짝이 되었다. 난 우리 학교의 장·단점을 빠르게 설명해주고, 우리 반의 요주의 인물도 귀띔해 알려주었다.

"최동우는 가급적 피해. 가끔 자기 화에 막 소리를 지를 수도 있어."

"우리 반 회장은 착한 편이야. 책임감도 있지. 그런데, 자기 학원 시간이 급할 땐 나 몰라라 하기도 해."

"학교 급식은 수요일이 제일 맛있어. 수요일만 맛있고, 나머지는 가끔."

내 말을 듣던 재희는 처음에 조용하게 듣다가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쪽지를 써서 내게 묻기도 했다. 나에게 희진이 말고도 단짝이 생긴 느낌이었다. 난 희진이에게 새로 전학 온 재희를 소개해 주었다. 희진이는 밝은 성격답게 재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우리 셋은 삼총사처럼 어디든 함께했다.

02. 변화

우리 셋이 자주 모이다 보니 엄마들끼리도 친해졌다. 우리가 학교 가면 엄마들끼리 약속을 잡아 차를 마시기도 했고, 우리가 떼를 써서 저녁 늦게까지 놀면, 엄마들은 운동한다는 핑계로 단지 안을 산책하셨다.

또, 날씨가 좋으면 같이 배드민턴도 쳤고,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 따뜻한 차와 간식을 가지고 커뮤니티 센터에서 시간을 보냈다. 물론, 다 놀고 나면 밀린

숙제로 힘들긴 했다. 하지만, 이렇게 즐겁게 놀고 공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우린 가족처럼 지냈다. 나의 생일날 같이 케이크에 촛불을 켰고, 희진이와 재희 생일 때도 우린 함께 했다. 더운 여름엔 온종일 수영장에서 놀고, 가을엔 희진이네 밭에 가서 감자와 고구마를 캐며 수확의 기쁨을 누렸다. 난 가끔 희진이와 재희가 먼 친척보다 더 가깝다고 느꼈다. 그리고 아주머니들도 이모 같았다. 그렇게 지내다 1년의 세월을 보냈고, 우린 6학년이 되었다.

한 학년이 올라갔다고 뭐가 다를까 했지만, 4학년에서 5학년. 5학년에서 6학년은 대우가 달랐다. 우릴 '입시'와 연결하며 수업량과 시간을 늘렸고, 수험생처럼 긴장감을 주었다. 학교에서는 초등학생, 학원에서는 예비 중학생이었다. 외워야 할 영어단어가 30개씩 늘었다. 한국어 뜻도 어려운데 영어랑 함께 외워야 하는 건 곤욕이었다. 시험의 스트레스가 조금씩 오면, 희진이도 재희도 예민해졌다. 말로만 듣던 사춘기가 우리에게도 찾아온 걸까?

03. 사춘기?

나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 학원 갔다 와 다시 책을 펴고 영어단어를 외우다 나도 모르는 답답함을 느꼈다. 금요일마다 보는 테스트는 나를 작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떠오르지 않는 단어를 붙잡고 있어 내 연습장은 까맣게 된 벌집 같았다. 입구를 찾을 수 없는 벌집 속에서 헤매는 말벌 같은 느낌이다. 그렇게 생각하던 중, 희진이에게 카톡이 왔다.

희진 : 얘들아, 잘 지내고 있어? 요즘 나 정말 힘들어. 매일 학원숙제로 새벽에 자.

나 : 희진아, 너도 그래? 나도 마찬가지. 우리 못 논지 정말 오래된 것 같아.

희진 : 우리 그러지 말고, 지금 만나자. 답답해 죽겠어. 편의점 앞으로 다들 모여!

재희 : 다들, 힘들구나. 나도 엄마가 학원 하나 더 생각하고 있어서 말리던 중이야. 나보고 인서울로 들어가려면 지금부터 더 해야 한다고 날 들들 볶아. 못 말리는 김 여사야~

재희의 말에 웃음이 났다. 벌써 시간이 12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희진이 말대로 편의점에서 모이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늦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겠지만, 당장 만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다.

나 : 정말, 우리에겐 "탈출"이 필요한 건 아닐까?

나의 문자에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 "탈출"이라는 단어가 생경하게 느껴졌지만, 이 생활이 답답했다. 다들 내 문자에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 그때, 희진이가 대답했다.

희진 : 다들, 내 말 들어봐. 우리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자. 이번 여름방학 때 우리 셋이서 여행을 떠나보는 거야. 어때? 이게 한나가 말하는 탈출이 아닐까?

여행?? 우리끼리? 어디로? 진짜야?

재희가 말하는 말투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여행……. 떠나고 싶어.

04. 작전

나의 짤막한 문자에 다들 손이 빨라졌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미국부터 아프리카까지 다양한 국가가 나왔다. 우리끼리 가는 여행으로 벌써 여행지에 있는 듯했다. 무엇을 준비하는 것은 둘째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입시보다 우리의 모습 찾기이다.

그동안 희진이와 재희도 학원 스케줄로 빡빡한 일정을 보내고 있었다. 희진이 엄마는 수학학원을 서울 중심으로 보냈고, 주말에도 과학 특강을 다니게 했다. 재희 엄마도 사회 특강이 있다면서 나보고 같이 해볼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하지만, 난 수학학원과 수학 과외, 영어학원만으로도 벅차했다. 우리는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고, 달라지고 있었다.

다음날, 나와 희진이 재희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잠깐 단지 놀이터에 모였다. 어제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 어떻게 할지 의논하기 위해서이다. 희진이는 벌써 얼굴이 상기된 표정이었다. 재희는 눈치를 보며 있었다.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사실, 난 요즘 내가 뭐하면서 사는지 잘 모르겠어. 매일 학교 과제와

학원숙제로 바빠서 나만의 시간이 부족해."

"너도 그래? 나도, 나도."

"이제 6학년 2학기가 되면 더 심해질 거야. 곧 중학생이 되니깐."

"난 어른 되기 싫어. 대학도 안 갈 거야. 아니, 난 못 갈 것 같아. 요즘 엄마, 아빠가 날 들들 볶아. 조금만 핸드폰 보면, 뺏거나 문자도 못 하게 해."

재희가 희진이를 보며,

"우리 집은 핸드폰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평소에는 쓰질 못해. 그나마 숙제한다고 가지고 있겠다고 하면 주시지. 그때 너희 문자도 숙제할 때였거든."

"그래. 그래서 우리 우정 여행 가 볼까 해."

내가 여행 얘기를 시작했다. 희진이와 재희의 눈빛이 반짝였다. 드디어, 그 말을 시작하는구나! 라는 느낌이었다. 난 계속 말을 이었다.

"우리 셋이서 여행을 간다고 하면 분명, 안 보내주실 거야.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여행을 함께 가자고 하는 거야. 우리 세 가족이 모두!"

"아! 이번 여름방학이 있었구나. 아~ 안돼. 이번 여름방학 특강을 지금부터 알아보고 계신단 말이야. 그리고, 시간이 없잖아.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시간인데…."

"한나야, 방법을 찾아보면 있어.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재희도 고민하는 듯했다.

"그래, 이게 우리의 마지막 여행이 될지 몰라. 얘들아. 우리의 초등학교 마지막 졸업여행으로 가자고 설득해보고, 우리는 엄마만 있지 않잖아? 우리에겐 다정한 아빠도 있어. 아빠를 공략해보는 거야. 엄마는 설득, 아빠에게는 애교작전~ 어때? 나의 작전이!"

처음에는 이게 될까? 싶었다. 탈출로 시작한 여행이라. 각자 며칠을 고민하고 작전이 이뤄졌다. 우리의 작전은,

-첫 번째, 힘들지만, 영어단어 올 백 점. (당분간 유지)

-두 번째, 엄마가 힘들지 않은지 건강 체크! (안마, 집안일 도와주기)

-세 번째, 틈틈이 아빠에게 다가가 대화하기 (슬쩍~ 여행 이야기 꺼내기)

그리고 서로 학교 끝나면 실천 상황을 점검하였다. 그리고, D-DAY : 여행 이야기 꺼내는 날이 왔다.

우선, 나는 그동안 영어 시험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을 잘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난 부모님과 가족회의를 한다고 말씀드리고,

저녁을 다 먹고 앉았다. 부모님은 내가 웬일로 이렇게 불렀는지 웃으시면서 앉으셨다. 난 말씀드리기 전에 리허설을 몇 번 했었다. 내 예측이 맞는다면 부모님은 나의 말을 들어주시리라 생각했다.

"아빠, 엄마. 6학년 올라와서 나 조금 힘들었었어."

내 말에 살짝 놀란 듯이 아빠가 먼저 말을 꺼내셨다. 엄마는 머그잔을 만지작거리셨다.

"응, 뭐가 힘들었을까? 우리 딸~아빠가 보기엔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학원숙제도 많아서 내 친구들과 많이 보낼 수가 없었고, 또 이상하게 답답한 날들이 많았어. 엄마는 혹시, 알았어?"

내 말에 엄마는 머그잔에서 시선을 멈추고 내 눈을 바라보더니,

"음…. 엄마도 살짝 느껴지긴 했는데, 한나가 아무 말도 없어서 엄마가 먼저 물어보진 않았어. 혹시, 그게 서운했어?"

"아니, 서운하진 않았어. 나보다 더 학원 많이 다니는 친구도 있고, 멀리 다니는 애들도 있어서. 그런데, 요즘 내가 희진이와 재희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되고 그냥 답답해서 눈물도 많이 났었어."

아빠는 내 말을 듣고는 분위기를 바꾸시려는 듯,

"아이고~ 우리 딸이 사춘기가 오셨나? 괜찮아. 공부 잘 못 해도 괜찮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는 우리 한나가 마음이 건강하면 된다고 생각해. 공부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마음 잡고 하면 되는 거야. 아빠도 그랬어."

부모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아직 눈치채지 못하셨다. 이제 결론을 얘기해야 할 때다.

"엄마, 아빠. 이번 여름방학은 나에게 조금 특별했으면 좋겠어. 매일 다니는 학원 스케쥴 따라 움직이는 기계가 되고 싶지 않아. 물론, 도움도 받지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나는 어떤 아이인지 더 알고 싶어. 여행을 통해. 하지만, 친구들과 우정도 쌓고 싶어. 결론만 말하자면, 이번 초등학교 6학년을 보내면서 나의 단짝들과 졸업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말이야. 희진이와 재희와 함께. 물론, 부모님도 같이 가는 거지."

두 분은 서로 마주 보며 잠시 고민을 하셨다. 내 말뜻이 어느 정도 전달되었는지는 가늠이 되진 않지만, 혼란스러워하시는 듯했다. 그렇기도 할 것이다. 이번 6학년 2학기를 준비하는 여름방학이니깐. 벌써 학원가에서는 여름방학 단기 특강 광고를 하고 수강생을 유치하고 있다. 두 분은 입시에서 자유로운 분이실까? 그때, 아빠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다.

"우리 딸이 이렇게 말을 잘했어? 여태 아빤 몰랐네? 그래. 이 문제는 재희

부모님과 희진이 부모님과도 얘기를 나눠봐야 해. 그리고서 우리 어떻게 할지 고민해보자."

이 이야기는 어른들과 더 상의하고 같이 이야기하자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다. 난 내 방으로 들어왔고, 아빠와 엄마는 안방으로 들어가 무슨 이야기를 더 나누시는 듯했다. 한편으론 마음이 후련했다. 아빠의 시원시원한 대답은 항상 내 마음을 가볍게 해준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내 마음을 모두에게 닿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본다….

방으로 들어와 핸드폰의 문자부터 확인했다. 재희의 문자가 먼저 와 있었다.

난 말씀드렸음. 두 분 다 무척 난감해하심.

나도 그래. 아직 확답은 아니야.

나의 짧은 대답에 재희는 'ㅠ.ㅠ'라고 보내왔다. 우리의 계획이 이대로 멈춰지는 것일까?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신다면 허락을 해주실 것 같은데. 희진이의 문자가 아직 없다. 설마, 실패인 걸까?

난 핸드폰에서 피아노곡을 틀었다. 나의 마음을 차분하게 내려 앉히는 곡.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반짝였다. 나머지, 못했던 숙제를 하려던 그때, 문자가 띠리링~ 왔다. 희진이었다.

성공! 성공!

앗! 정말?

너희는 어때? 성공이야? 실패야?

난 부모님께서 두 분의 부모님을 만나 상의한다고 썼다. 재희는 난감해하신다고 다시 문자를 보냈다. 희진이는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나만 가면 난 안 갈 거야! 정말~ 우리 같이 가야 한단 말이야!

분명, 부모님께서는 서로 친하시니깐 이 문제로 언제 한번 만나서 얘기를 나누실 거야.

내 말에 다들 그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나도 그러길 바랐다. 저 밝은 별에 내 소원을 말하면 들어줄까? 라고 생각했다.

05. 기대

하루하루가 길었다. 다시 공부하는 게 힘들어졌다. 하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오기를 가지고 영어와 씨름을 하였다. 수학 과외 숙제도 악착같이 했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러던 중, 부모님은 재희 부모님과 희진 부모님을 만나러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으로 가신다고 하셨다. 나도 따라간다고 했지만, 어른들끼리 말해야 하기 때문에 다녀오신다고 하며 나가셨다. 난 친구들에게 문자를 했다.

얘들아, 부모님끼리 지금 만나신대!

희진이가 웃음 이모티콘을 보냈다.

희진아, 너의 긍정 에너지가 우리 부모님한테도 전달되었음. 좋겠다. 너희 부모님이 잘 설득하시겠지?

응~ 내가 잘 말씀드렸어. 걱정 마셔~

뭐라고 했는데? 성공한 거야?

호호, 나만의 비밀병기가 있었지~ 그건 여행 가서 얘기해 줄게. 암튼, 우리의 계획은 잘~ 될 거야~

그때, 재희가 문자에 답했다.

얘들아, 부모님들 오늘 만나신다는데? 여행 때문에.

알고 있어~ 우리 방금 그 얘기 하고 있었어. 희진이 말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깐. 기다려보자. 혼나서 여행 취소되기 전에 할 거나 잘해야겠다.

난 오늘 숙제 별로 없는데 ㅋㅋ

부럽네. 학원 어딘데 적어???

오늘만 별로 없는 거야. 평소에 얼마나 많은지. ㅠㅠㅠ

그럼 가능성은 충분하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못 가게 될지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자고!

희진이의 긍정 에너지가 우리에게 활력을 준다. 부모님은 12시가 되어서야 들어오셨다. 내가 자는 줄 알고 조용히 들어오셨지만, 난 참을 수가 없어 거실까지 달려 부모님을 맞았다. 그리곤 대답을 기다렸다. 나도 모르게 두 손이 모아졌다.

"한나야. 부모님들과 얘기를 해봤는데……."

어? 아빠의 얼굴이 심상치 않다. 말꼬리의 소리가 작아진다. '아…. 함께

여행가기가 안되었나?' 아빠는 내 표정을 읽으시더니,

"아이고, 우리 딸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번 여행은~~" 아빠가 뜸을 들였다. 나까지 침이 삼켜지지 않았다. '다음 말~ 어서요!'

"허허허, 세 가족이 이번 여행 일정을 맞춰서 사이판으로 가기로 했단~다!"

"어? 정말? 정말이야? 진짜? 와!!! 엄마, 아빠! 고마워~~~"

"그래, 너희들 얘기를 다 같이 해보고, 그동안 한나, 재희, 희진이 다들 힘들었겠다는 생각도 모두 같았고, 공감도 했어, 그래서 이번 여행 일정을 잡으려고 휴가 일정 등을 조정해 보기로 했단다. 너희 덕에 사이판으로 함께 여행도 가게 생겼네~"

엄마의 밝은 목소리가 더 고마워지는 순간이었다. 난 새삼 부모님께 감사함을 느꼈다. 어떻게 보면, 양보 없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다니. 이 소식을 다들 알고 있겠지?

06. 여행의 시작, 다시 만난 공항

"카톡!"

"카톡!"

카톡 소리에 깬 난 침대 옆 탁자에서 핸드폰을 집어 들고 다 떠지지 않은 눈꺼풀에 힘을 주며 재희와 희진이가 보낸 글과 사진을 읽었다. 우리 카톡방은 어느새 사이판의 정보 판이 된 듯이 많은 정보로 도배되었다. 뒤죽박죽된 사이판의 정보들 속에서 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희진이가 보낸 사진엔 우리가 지낼 곳이라고 쓰여있었다. 숙박을 희진이네 부모님이 알아보셔서 희진이가 사이판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었다. 비행시간도 말해주고,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체험도 이야기 해주었다.

사진 속 섬은 아름다웠다. 햇볕을 받으면 모래가 반짝이는 효과를 보인다는 샌드 비치와 푸른 바다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바다에 난 한순간 매료되었다. 바다와 리조트 경계가 보이지 않는 곳엔 야자나무가 눈에 띄었다. 열대기후에서 보이는 나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여유로움을 보여주고 있었다.

아! 빨리 가고 싶다.

재희의 말에 우린 또 바쁘게 답글을 달았다. 희진이는 하루종일 리조트에서 수영만 한다고 했고, 재희는 바다에서 스노쿨링을 해보고 싶다고 했다. 예전에 부산아쿠아리움을 갔을 때 수족관 속의 인어공주를 보고 반했는데 자기도 한번 바닷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여보고 싶다고 했다. 문득, 지느러미를 달고 수영하는 재희의 모습이 떠올랐다.

우리의 공통된 주제는 우리만의 시간이었다. 무엇을 하며 일정을 보낼지, 밤을 새우며 얘기하자는 희진이 말도 배게 싸움을 제안한 재희도, 맛있는 디저트를 먹자는 나의 말도 다 계획에 들어갔다. 문득, 이렇게 좋은데, 혹시 우리끼리 싸우거나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투면 어쩌지? 라는 마음이 들었다. 여행에서 한 명이 삐지거나 말이 없는 냉전의 시간을 갖게 된다면 우린 어떻게 화해하며 풀까? 설마, 그런 일이 생길까? 어떻게 간 여행인데 서로 싸우겠냐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곤 '우리의 우정엔 금이 가진 않아.'라고 단정 지으며 학교 갈 준비를 하였다.

드디어, 금요일. 우리의 여행의 시작 날이다. 그동안 짐을 싸느라 엄마는 무척 바빴다. 입맛이 없을까 해서 준비하는 김과 고추장, 컵라면과 옷가지들. 나의 캐리어에는 시원한 원피스와 티, 반바지, 모자, 지도, 수영복, 큐브, 애착 인형과 여러 개의 보드게임, 타임캡슐을 준비하였다. 또, 학원 문제집을 넣을까 말까? 고민도 했지만, 이번만큼은 과감하게 넣지 않았다. 보통 국내 여행할 때면 숙제가 밀릴까 봐 문제집을 넣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서 할 것들을 적은 노트와 펜을 앞쪽에 챙겨 넣었다. 각자 가족들은 인천국제공항으로 집결하기로 했다. 지각하는 가족은 아침을 사는 조건이 붙어서 다들 서둘렀다.

분명 부모님도 이 여행을 즐거워하고 계시는 듯했다. 우리보다도 더 연락을 자주 하시며 일정을 짜시고, 음식에 대한 이야기도, 준비물도 공유하셨다. 엄마의 얼굴도 밝아 보였다.

우린 공항 근처에 내려 주차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희진이네가 벌써 도착해있었다. 난 희진이를 불렀고, 다들 안부를 묻는 인사로 잠시 공항은 시끌벅적하였다. 조금 후, 재희네 가족이 빠른 걸음으로 우리 쪽으로 왔다. 아빠는 "어허~ 아침밥은 재희네 덕분에 맛있게 먹겠네요~" 하며 넉살을 부리셨다. 엄마는 아빠의 팔꿈치를 '탁' 치며, 그만하라는 듯 눈치를 주었다. 재희네 엄마는 "네~ 서둘러 온다고 했는데, 한발 늦었네요."라며 웃으셨다. 그러곤 "얼마만의 공항에 온 거에요?"라고 물으셨다. 그 말에 다들 공항 주변을 둘러보았다.

3년 만의 공항이었다. 팬데믹으로 모든 것들이 서서히 멈춰져 가고 있었을

때, 어둠의 시간은 우리를 꼼짝 못 하게 잡아두었고 일하던 사람들의 움직임을 제한하였다. 또, 멈춰진 하늘의 길은 누구도 왕래할 수 없었다. 누군가가 '그대로 멈춰라!'를 부른 것처럼 세상이 stop! 이라고 말했던 그 순간이 있었다. 그 긴 터널을 지나고 드디어,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는 공항 속 사람들이 보였다. 다시 밝아진 공항의 모습은 생동감이 느껴졌다.

우리 셋은 부모님들이 수속을 할 동안 공항 이곳저곳을 구경한다고 말씀드리고 움직였다. 부모님들은 멀리 가지 말라는 당부를 했지만,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벌써 공항은 우리의 놀이터가 된 것만 같았다.

공항엔 수속을 밟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보였다. 직원들도 웃으며 손님들을 맞고 있었다. 빠르게 이동하는 사람들과 티켓을 끊는 사람들, 캐리어들이 주인들과 한 몸이 되어 바퀴를 연신 굴리고 있었다. 다들 어디로 가는 걸까?

우리는 편의점에 들러서 간식거리를 샀다. 희진이는 츄파춥스 사탕을 여러 개 샀다. 그러고는 말했다.

"우리 엄마는 비행기 탈 때마다 사탕을 샀어. 내 귀가 먹먹할까 봐. 평소에는 그렇게 먹지 말라던 사탕인데,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사탕을 먹였어. 그리고,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엔진을 점화하고 한참을 기다릴 때쯤 다 먹어서 또 하나를 달라고 했지. 그럼 순순히 사탕을 내주시는 거야. 웃기지?"

"그래서? 먹으면 귀가 안 먹먹해?"

"응. 신기하게도 고도가 높아져도 귀가 먹먹하다고 느껴지지 않아. 아마도 사탕 맛 때문일 거야. 너무 맛있어서~ 하하"

"뭐야, 정말 맞는 말이야?"

우린 희진이 말에 웃고 부모님이 계시는 곳으로 갔다. 부모님께서는 마침 짐을 다 부치고 앉아계셨다. 우리가 오니, 이제 이동하자고 하였다. 엄마는 나의 여권과 탑승권을 가지고 있으라고 했다. 좌석을 맞춰보니, 우리의 번호가 한자리 씩 달리 있었다. 부모님의 배려로 우린 같이 앉아 갈 수 있었다. 공항으로 들어가기 전, 보안 검색대를 지났다. 안으로 들어간 공항은 굉장히 넓었다. 비행기를 타러 가기 전 만나는 면세점엔 사람들로 북적였다.

우린 출발 게이트로 이동했다. 세 가족이 가서 패키지여행 팀 같았다. 엄마들은 엄마들끼리, 아빠들은 아빠들끼리, 우리는 우리끼리 수다를 떨었다. 지칠 틈이 없었다. 밀린 이야기도 궁금한 것도 많았다. 여러 게이트를 이동할 때마다 보이는 창밖의 비행기는 설렘 그 자체로 보였다. 항공사 무늬를 달고 승객을 태워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비행기가 단지, 교통수단으로만의 기능은 아니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가는 꿈 상자 같았다. 잠시 비행기를

넋을 놓고 보고 있을 때, 재희가 내 팔을 당겼다.

우리의 게이트 번호는 7번이었다. 우리의 비행기는 우리를 태우기 위해 분주했다. 짐을 싣고 점검을 하는 아저씨들이 보였다. 작은 지게차들도 속도를 내며 왔다 갔다 하였다. 저 멀리 출발선에서 기다리는 비행기들이 "땅"하는 신호에 맞춰 하나씩 하늘을 향해 비상하고 있었다.

07. 출발

방송에서 탑승 안내가 흘러나왔다. 잠시 지루했던 기다림에 우린 다시 활기가 생겼다. 탑승 안내 멘트를 다들 기다렸다는 듯이 모두가 벌떡 일어나 최대한 빠르게 줄을 섰다. 부모님들은 천천히 움직이라고 했지만, 빨리 타고 싶은 마음에 후다닥 움직였다.

비행기 안은 꽤 길었다. 좁은 통로를 이동하면서 사람들은 짐을 위에 싣고 있어서 들어가는 시간이 길어졌다. 하지만, 질서정연하게 다들 순서를 지켰다. 중간중간 스튜어디스 언니들이 다니면서 승객들의 짐을 도와주었다. 우린 중간 정도의 좌석이었다. 앞에 세 줄은 아빠들, 중간은 엄마들, 우리는 세 번째 줄이었다. 앉는 순간부터 우리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서로 가지고 온 가방에서 수첩과 필기구, 미니어처, 젤리 등을 꺼내놓고 소곤소곤했다.

희진이는 창밖에 앉고 싶은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나도 내심 창가 쪽의 사람들이 부러웠다. 하지만, 우리 셋이서 같이 앉으려면 가운데 좌석이어야 했다. 작은 창문으로 밖의 풍경이 들어왔다. 희진이는 츄파춥스 사탕을 꺼내 우리의 입에 넣어주었다. 오렌지 향이 입안에 퍼졌다. 조금 후, 비행기가 움직였다. 우린 좌석의 안전벨트를 하고 테이블을 정리하였다. 조금씩 긴장되었다. 비행기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희진이와 재희와 나는 손을 잡았다.

활주로를 가는 비행기는 꽤 긴 길을 천천히 가고 있었다. 가끔 덜컹거리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몸이 같이 움직였다. 어느 정도 활주로에 도착하고 나서 큰 굉음이 들렸다. 그리고 엔진에 점화가 된 듯한 소리가 나더니 속도가 붙었다. 이 큰 덩치를 어떻게 들어 올릴지 생각할 틈도 없이 비행기는 하늘 위로 떠 올랐다. 재희를 보니, 눈을 질끈 감고 있는 게 보였다. 놀이공원에서도 무서운 걸 못 타는 재희인데, 비행기도 무서운지 몰랐다. 그래도 사탕을 물고 있는 모습이 귀여워 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찰칵! 찍어 보여주었다. 재희는 "뭐야~"라고 하며

지우라고 했다. 하지만, 난 귀엽다고 웃으며 남겨두었다. 우린 셋이서 비행기 안에서 사진을 찍었다. 우리의 웃음소리가 컸던지, 엄마들은 동시에 우리를 제지했다. 우린 더 소곤소곤 말해야 했다. 한참을 떠든 후, 희진이가 조용하더니, 잠이 들었다. 나와 재희가 수첩에 그림을 그리며 놀다가 조용한 기내 분위기에 졸려 잠시 자기로 했다. 2시간여를 자고 일어났더니 테이블에 기내식이 올려져 있었다. 푸딩과 과일, 샐러드, 오므라이스가 있었다. 우린 맛있게 먹고 모니터 화면에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4시간 30분여의 시간이 흘렀을까. 비행기가 서서히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곧 기장님의 안내 말이 나왔다. 우리는 짐을 조금씩 정리하였다.

08. 도착

비행기도 안전한 착륙을 위해 애쓰고 있었다. 잠시 바퀴와 바닥이 닿는 소리로 몸이 사정없이 흔들렸지만, 비행기는 우리의 목적에 잘 도착하게 해주었다. 사이판의 공항은 우리나라 공항보다 작아서 사람이 더 많은 듯 느껴졌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휴양을 위해 온다는 곳인데,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더 많아 보였다. 짐을 찾고 밖으로 나가자 사이판 공항의 지붕이 인상적으로 보였다.

미리 준비한 두 대의 차에 나눠 타고 우린 리조트로 향했다. 무더운 날씨가 우리의 여름 같았다. 맑은 하늘이 유난히 깨끗해 보였다. 지금부터가 우리의 진짜 여행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차로 얼마 가지 않자, 희진이가 말했다.

"오오~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내가 보여줬던 사진 기억나지?"

카톡으로 본 리조트의 모습이 떠올랐다. 창문으로 보이는 바다 풍경들을 보면서 빨리 바다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벌써 내 마음은 바다로 뛰어가고 있었다. 스트레스가 저절로 풀어지는 느낌이다. 이런 것이 바로 힐링이라고 하는 것인가? 우린 어느 건물로 들어갔다. 건물은 굉장히 화려했고, 깔끔했다. 사진 속에서 봤던 야자나무가 보였다. 확실히 이국적인 모습이었다. 우린 캐리어를 챙겨 방을 나눠 들어갔다. 희진이가,

"오~ 여기 사장 부자인가 봐~~ 다 멋져!"

모두가 희진이의 말에 웃었다. 우리 숙소는 22층이다. 엘리베이터도 여러 개여서 이동하기 편했다. 방문을 열고 보이는 밖의 풍경에 우리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바로 침대 위로 올라가 뛰었다. 방 총 세 개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번에도 비행기에 같이 앉은 사람들끼리 방을 나눴다. 우리의 방은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가까운 방이었다.

"드디어! 여행의 시작이 따아아~~" 나도 모르게 큰소리를 질렀다.

방안에는 깔끔한 침대 3개와 작은 베란다, 그리고 주방과 화장실까지 있었다. 거실과 침대방이 합쳐진 게 신기했다. 베란다에 있는 큰 창문 밖을 보자 굉장히 상쾌했고, 아래에는 수영장의 물이 보였다. 파란 바다와 닮은 풀장은 벌써 사람들이 여유롭게 수영을 하고 있었다.

"오~~ 경치 좋네~~" "지금 나가자고 할까?" 경치가 좋다는 희진이의 말에 내가 물었다. 나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희진이가 방을 나가 엄마들에게로 갔다. 나와 재희도 재빨리 희진이를 따라 엄마에게로 갔다.

"엄마, 우리 수영장에서 놀아도 돼요?" 엄마의 허락을 듣자 뒤돌아 방으로 뛰어갔다.

쿵쿵 카펫이 깔려있어도 우리의 뛰는 소리는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우리는 각자의 가방에서 빠르게 수영복을 챙긴 뒤 수영장으로 향했다. 맨발로 다녀서 그런지 가는 내내 수영장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희진이와 재희가 뛰어나갔다.

"야아~~ 같이 가!!!"

이렇게 우리 셋은 여러 음식점을 지나 수영장에 다다랐다. 수영장의 규모가 창문에서 보던 것 보다 훨씬 커서 놀랐다. 깊을 수 있을 것 같아 난 희진이가 물속에 들어가는 걸 보고 들어갔다. 수영장의 깊이는 희진이의 가슴 정도 왔다. 희진이는 수영을 다이빙까지 배워서 돌고래처럼 물속을 다녔다. 재희도 물을 좋아했다. 난 살짝 물이 무서워 조심스러웠다. 3학년 때 수영장에서 코치 선생님께서 하도 내가 물을 무서워하니깐 나를 물속에 던지셨는데 너무나 깜짝 놀라서 허우적거리다 물을 많이 먹은 적이 있었다. 그 뒤론 수영을 배우기가 어려웠다. 그걸 아는 친구들이 미끄럼틀을 타자고 제안했다.

"흐에에~~~ 얘들아, 우리 미끄럼틀부터 탈까?" 희진이는 한 바퀴를 돌고 우리 쪽으로 와서 미끄럼틀을 타자고 했다. 물에 미끄러지는 재미는 또 다른 맛이 있었다. 한참을 왔다 갔다 하며 놀 때마다 우린 평소보다 더 큰 소리로 내며 소리를 질러댔다. 답답했던 속이 뻥! 하고 뚫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렇게 보내는 친구들이 있어 행복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난 그 둘의 에너지를 이기지 못해 잠시 쉬어야 했다. 조금 후, 희진이가 롤러코스터를 타자고 했다. 미끄럼틀보다 더 짜릿할 거란 말도 했다. 우린 줄을 서는 곳으로 가서 대기했다.

앞의 사람들의 비명을 들으니 더 긴장감이 생겼다. 워낙 롤러코스터를 잘 못 타는 내가 저걸 탈 수 있을지 걱정되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이니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었다.

"야, 누가 앞에 탈래?" 희진이가 물었다. 앞자리는 항상 뒤를 돌아보고 있어야 해서 가장 무섭고 긴장되는 자리였다. 재희와 나 둘중 앉겠다는 사람이 없자 희진이가 바로 앉았다. 나머지 두 자리는 비슷했기 때문에 재희가 앉고 바로 내가 앉았다. 미끄럼틀 위 신호기의 색이 초록색으로 바뀌자 안전요원이 보트를 힘껏 밀어주셨다. 근데 밀 때 내 쪽에서 밀어서인지 내가 점점 앞자리로 가고 있었다.

"으~악!!!"

나의 비명만 들리고 희진이의 웃음소리로 통 안은 크게 울렸다. 갑자기 보트가 뒤로 급속도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슈-우-우-웅

얼마나 빨랐는지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보트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나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내 몸은 내가 어찌할 수 없었다.

"꺄아아아악!!" 희진이와 재희가 동시에 소리를 질렀다. 그들의 비명과 함께 뭔가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다. 마침내 물살이 서서히 잦아들었고, 미끄럼틀 출구로 보트와 함께 물속으로 떨어졌다.

"휴우~ 죽는 줄 알았네…."

가장 신나 보였던 희진이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야아~ 한 번 더 탈래??" 의외로 재희는 더 타고 싶어 했다. 나는 재희 자리에서 타는 조건으로 타자고 했다. 아까 내려갈 때의 뻥! 뚫리는 기분을 다시 한번 더 느껴 보고 싶었다. 우린 다시 계단으로 올라섰다. 우리 차례가 되자 재희가 먼저 튜브 앞자리에 앉았다. 한번 해봐서 그런지 이제는 망설이지 않아도 되었다. 난 아까처럼 튜브가 돌아가서 내가 뒷자리가 될까 봐 미리 튜브를 살짝 돌려놓았다. 초록 불이 되자, 안전요원은 힘껏 밀어주었다. 난 눈을 감았다. 대부분 눈을 감으면 덜 무섭다고 하는데 나는 오히려 앞을 볼 수 없어서 더 긴장되고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슈-우-우-우-우-웅

눈을 감아서 그런지 아까보다 미끄럼틀이 길어지고 빨라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얘들아, 눈 감아봐! 더 재밌어!!"

"오~야~ 눈 감으니까 좀 더 무서운 것 같은데?"

아까와 다름없이 갑자기 내려가는 코스가 나왔다. 슝~ 풍덩! 뒷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무중력 상태가 되었다.

09. 타임캡슐

수영장에서 다 놀고 배가 슬슬 고파 숙소로 들어가자고 했다. 나는 갑자기 뛰는 희진이를 보고 뒤따르다 급하게 멈춰버린 희진이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 순간 발에 힘을 주었다. 이때, 내 몸이 살짝 기울더니 발목에 통증이 왔다.

"얘들아, 잠깐만……."

내가 발목을 부여잡자 재희와 희진이가 걱정되는 목소리로 말했다.

"뭐야? 다쳤어? 왜?"

"발목을 삔 것 같아. 잠깐만.?"

난 발목을 돌려보았다. 살짝 통증이 있는데 심한 것 같지 않았다. 만약, 부모님이 알게 되면 또 잔소리를 듣게 되고, 노는 것들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았다.

"조금 삔 것 같긴 한데 걸을 순 있을 것 같아. 근데 뛰진 못 할 것 같아."

나의 말에 희진이와 재희가 날 부축해주었다. 난 왜 뛰다가 갑자기 멈춰섰는지 궁금해서 희진이에게 물었다. 희진이는 생각난 듯, 수영장 옆쪽으로 장미꽃들이 많은데, 그쪽에도 길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우린 희진이가 말한 그곳을 보았다.

"어? 진짜? 장미꽃들이 많은 정원 아닌가?"

"한번 가볼까?" 우린 조심조심 장미꽃이 있는 좁은 길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좁았던 그 길 안쪽은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넓은 공간으로 이어져 있었다. 흰 건물과 어울리는 둥그런 원형의 분수대에선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들이 있었다. 마치 화원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향기조차 달달해서 우리의 추억으로 삼을 장소로 선택이 되었다. 우린 미리 챙겨온 캡슐을 이곳에 묻기로 했다. 10년 후, 우리가 다시 이곳으로 여행하러 와 타임캡슐을 열어보자는 희진이의 아이디어였다. 우린 분수가 나오는 곳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장소라고 생각이 들었다.

내 발목이 삔 것은 비밀로 하였다. 우린 조심조심 다시 숙소로 가 준비한 캡슐과 필기도구를 준비해 다시 정원으로 들어갔다. 이곳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듯하다. 하긴, 수영하고 바로 숙소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전부일 것 같았다.

"근데 캡슐에 뭐라고 쓸까?"

"10년 후에 열 거면, 우리가 서로에게 쓰는 편지는 어떨까?"

"야~ 오글거려~"

"뭐 어때? 평소에 우리의 마음을 적어봤던 적이 없잖아. 매일 문자하고 만나기 바빴지. 뭐."

내 말에 친구들은 종이를 꺼내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각자 하고 싶은 말들을 적었다. 처음엔 무엇을 적어야 할지 고민하다 난 희진와 재희가 나와 함께 해 줘서 고맙다는 마음이 들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을 담아 썼다.

"우리 10년 후면, 대학교도 갔을 것 아냐?" 희진이가 말했다.

"10년이라? 정말 먼 시간 같다." 재희도 10년이 먼 시간이라고 느끼는 듯했다. 하지만, 난 10년이 굉장히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 후면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학교생활은 언제나 빠르게 지나가니깐. 10년도 금방 지나갈 것만 같다. 단지,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할 거란 두려움이 있다. 잠깐 우리의 말소리는 없어졌고, 연필 소리와 분수의 물소리만 공간을 채우고 있다.

가장 먼저 쓴 희진이는 유리병에 쓴 종이를 넣고 중앙에 있는 장미화단에 묻자고 제안했다. 다 쓴 재희와 나도 땅을 팠다. 조금 더 깊게 파야 할 것 같아 돌멩이로 흙을 파내었다. 어느 정도 유리병을 덮고도 남을 정도로 파여서 우리 셋은 병에 이름을 쓰고 10년 후를 기약하며 타임캡슐을 묻었다.

10. 우리의 시간

"뭐라고 썼어?" 궁금증이 많은 희진이는 나와 재희의 팔짱을 끼며 물었다.

"야~ 그건 비밀이지~~! 우리가 다시 사이판으로 여행 오면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다들 멋지게 성장하자고!"

내 말에 희진이는 아쉬운 듯 한 번 더 알려달라고 졸랐다.

"힝~ 어차피 볼 건데~ 그냥 알려줘라~"

"안돼요~~"

"근데 뭐라고 썼는지 궁금하긴 하다." 재희도 궁금한 듯 말했다. 물론, 나도 궁금하다. 다들 뭐라고 썼는지….

"야! 저기 봐. 해가 지고 있어!"

"와~ 멋진 석양이다."

내 말에 다들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희진이의 격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카메라로 사진을 연신 찍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

"왜, 사진사들이 그렇게 멋진 풍경을 담으려고 셔터를 누르는지 알아? 바로, 이 순간은 짧게 지나가서야."

희진이 같지 않은 말을 해서 재희와 난 웃음이 터져 나왔다. 하긴, 맞는 말이다. 그런데 난 사진기의 사진보다 내 눈으로 담고 싶었다. 구름 사이로 비친 햇빛과 고층 건물이 없는 넓은 하늘은 나와 친구들만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더 웅장해 보였다. 짙은 석양은 우리에게 평화로움을 주었다. 우리는 조금씩 밤이 찾아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밤이라는 시간. 학원에 있는 그 시간엔 시간이라는 것은 오로지 문제를 풀 때만 존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자연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것이 시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10년 후의 시간. 그리고 그 속을 담을 우리의 시간이 앞으로도 기대가 되었다.

난 내가 잘 견뎌낼 것이라는 걸 안다. 저,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우리는 각자 숨 고르기를 하는 듯 보였다.

휴,

여행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 같다. 뛰다가 숨이 차면 잠시 쉴 수 있는 여유. 앞으로도 내 삶 속에서 이런 시간이 종종 찾아오길 바란다.

| 수필 |

할아버지의 소원은 이루어진다

✸우수상 | 박예담

오래 전부터 할아버지에게는 소원이 있었다. 바로 할아버지의 일흔 번째 생신 때 손주들과 유럽여행을 가는 것이다. 그 계기는 할아버지가 25년 전에 유럽여행을 갔었는데 어떤 외국 할아버지가 집안 식구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는 게 멋져 보여서 할아버지의 소원이 되었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시고, 매일 헬스를 두 시간씩 하면서 건강도 챙기셨다고 한다.

할아버지 자식은 총 3명이다. 그것도 아들만 셋이다. 첫째 큰아빠는 아빠보다 2살이 많고, 둘째 큰아빠는 우리 아빠와 이란성 쌍둥이다. 첫째 큰아빠는 결혼해서 아들 한명, 둘째 큰아빠는 결혼해서 아들딸 각각 한명을 마지막으로 우리 아빠는 딸 한 명 해서 모두 총 12명의 가족이 되었다. 그런데 이번 여행에 참석한 사람은 총 11명이다. 할머니는 폐쇄공포증 때문에 오랜시간 비행기 타는 것이 힘들어 함께 여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11명의 대식구가 유럽여행을 가기로 결정하였다.

작년 그러니까 2022년 11월, 여행 가기 전에 어느 나라를 여행할 것인지 투표로 정하게 되었다. 유럽 중에 가장 처음에 갈 나라를 선정했다. 우리 손주들의 의견이 제일 많이 반영되어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의 나라를 정했다. 그리고 호텔과 교통서비스가 담긴 세미패키지 상품도 함께 고르고 나서 각자 각 나라에서 먹고 싶은 음식도 선정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나기 2개월 전부터는 여행일정을 짜고, 이동경로를 파악했다. 이렇게 여행을 가기까지 8개월간의 준비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드디어 여행을 가기로 한 7월이 다가왔다.

방학이 되면서 이제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를 만끽하고, 가족 모두 함께 여행을 간다는 설렘에 7월 한 달을 보냈다. 우리는 단톡에서 서로 모여서 여행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어떻게 놀지도 정했다.

드디어 여행을 출발하기로 한 7월 25일이 되었다. 가족 모두 인천공항으로 각자 한 개의 커다란 캐리어를 끌면서 아침 7시에 모였다. 인천공항에서 모인 후 10분을 기다려서 짐을 붙이고 1시간을 기다려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었다. 그런데 계속 5분, 10분씩 자꾸 비행기가 지연되어 결국 50분을 또 기다리게 되었다. 시간이 지연될 때마다 할아버지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고 어딘지 모르게 심란해 보였다. 할아버지는 내 생각에 그때 이런 속마음이었을 것 같다.

'만약 비행기가 이륙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미 짐도 붙이고 다 했는데….'

드디어 이륙은 했지만 비행기는 할아버지의 여행을 마냥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계속되는 난기류로 안전벨트 표시가 떴고 영화를 보는 중간에 계속 안전사항에 대한 안내방송이 나와서 영화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14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영화를 2개 밖에 못 봤다. 할아버지도 그땐 반쯤 포기하고 주무셨고, 결국 기내식이 나올 때쯤 주변 소리에 일어나셨다.

기내식은 찜닭과 파스타 중 선택하는 건데 나는 비행기가 너무 흔들려서 웬만해선 하지 않는 비행기 멀미를 해서 복숭아 요거트만 조금 먹었다. 그런데 아쉽게도 14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제대로 된 기내식은 그게 전부였다. 나중에는 너무 배가 고파 간식바에 가서 프링글스로 배를 채웠다. 시간이 지나도 너무 멀미가 나서 화장실에서 토를 2번이나 하고 결국 내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잠은 자려고 하는데 밖은 아직 한낮처럼 밝은 날씨에 더구나 붕 떠 있는 비행기에서 자는 건 쉽지 않았다. 내 사촌동생도 멀미를 해서 너무 배고프고 힘들어 했다.

우리의 첫 여행지는 영국이었는데 프랑스에서 환승을 해야만 했다. 우리는 점심 저녁을 못 먹고 프랑스 공항에 도착해서야 초밥을 먹었다. 그리고 2시간을 또 기다렸는데 이번에는 비행기가 바로 이륙해서 2시간 후에 영국에 도착해 예약한 차를 타고 숙소에 가서 사촌동생과 라면을 끓여 먹었다. 배가 부르니 그제야 할아버지 상황은 어떻고 지금은 괜찮으신지에 대해 할아버지 방에 가서 물어봤다.

"맨 처음에 이륙할 때는 지연되고 멀미도 해서 계속 걱정도 되고 너희들이랑 너희 엄마아빠들 한테도 미안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착륙했으니까 됐지, 뭐. 이제 괜찮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감동받았다. 나였다면 너무 힘들어서 그냥 포기했을 것 같은데 할아버지는 소원이었던 만큼 끝까지 노력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다. 그때 난 어려움을 포기하지 않는 할아버지를 본받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비행기 탑승은 참 힘들고 어려운 비행이었다. 하지만 영국 귀부인의 상징 애프터눈티도 마시고, 런던아이도 즐기고, 템스강도 구경하고 해리포터 기념관에서 신기한 것들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영국의 여행을 마치고 세 번째 비행기 탑승을 위해서 공항으로 갔다.

영국에서 스위스로 갈 때 영국 공항에서 자판기 과자를 사서 먹고 비행기를 탔다. 과자를 먹고 바로 자서 멀미가 났는지 비행기가 많이 흔들려서 인지는 잘 몰라서 사촌동생한테 많이 흔들렸는지 물어봤는데 별로 안 흔들렸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연도 되지 않아서 너무 좋았다. 또 중간에 잠시 할아버지가 주무시다가 깼을 때 할아버지도 괜찮아서 편해 보이는 얼굴과 편해 보이는 자세로 잘 주무시고 있었다.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도 보고, 융프라우도 보고 짚라인과 바이크도 타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스위스에서 저녁을 먹고 나서 무려 한 개에 약 17,000원짜리 철판 아이스크림도 먹게 되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역시 철판 아이스크림이었다. 자연이 너무 아름다웠던 스위스에서의 행복한 여행을 마치고 네 번째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으로 갔다.

스위스에서 이탈리아를 가는 날은 사촌동생과 자지 않기로 약속해서 스위스에서 산 감자칩을 먹으며 일곱 고개를 하면서 가니 심심하지도 않고 배불렀는데, 난기류 때문에 잠시 매우 많이 흔들려서 잠시 매우 불안했지만 다시 안정적으로 비행을 해서 다행이었다. 며칠 만에 비행기를 타게 되니 난기류로 비행기가 흔들려도 제법 잘 버틸 수 있었다.

이탈리아의 역사 유적지를 돌아보며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다섯 번째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우리는 또 공항으로 갔다.

이탈리아에서 프랑스 갈 때는 저녁을 못 먹어서 비행기에 있는 간식바에 가서 과자나 음료수, 빵을 먹으려 했는데 계속 난기류 때문에 흔들려서 간식바도 못가고 심지어 화장실도 못 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급해서 비행기가 착륙할 때 활주로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서 활주로에서 기다리는 동안 2시간을 화장실을 가지 못해 조금 화가 나기도 하고 배도 고팠다. 다섯 번째 비행은 여러 감정을 느꼈던 비행이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비행은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출발했을 때보단 순조로운 비행이 되었다. 지연은 총 30분이 걸렸고 멀미는 별로 나지 않아서 기내식은 두 번 다 먹었다. 근데 태풍이 온다고 했는데 다행히 오지 않고 올 때는 직항 비행기를 타는 거라 빨리 올 수 있어 괜찮았다. 기내식도 더 맛있어서 한국에 도착해서도 과자 빼곤 별로 안 먹었다.

이렇게 우리는 이번 14박 16일의 일정동안 총 6번의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공항에 가서 기다리고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마다 새로운 나라에 도착하는 설렘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할아버지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생각했던 꿈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여행 처음에는 이륙과 멀미로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가족들이 행복해하고 재밌게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진 분명 기분이 좋으셨을 것이다.

할아버지, 저희들을 위해 은행에서 돈도 빌리시고 여행하면서도 저희를 잘 챙겨주시고 영국에서는 제가 힘들었을 때 비싼 카페에서 아이스초코도 사주시고 편하게 쉬게 할 수도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박물관에서도 제가 지루하고 힘들어서 할아버지가 벤치에서 쉬고 있을 때 저를 편하게 놉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스위스에서는 저랑 사촌동생, 사촌오빠가 철판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었는데 3개를 사면 35프랑이라 매우 비싼데 사주시고 사람이 많을 때 저희가 놀고 있을 때 철판아이스크림 나올 때 까지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 이탈리아에서는 어른들 아무도 바닷가에서 수영을 아무도 안하려 하는데 할아버지 혼자 수영을 하며 저희랑 같이 놀아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프랑스에서 수영장 갔을 때도 보호자는 할아버지 밖에 없었는데 1시간 동안 개구쟁이들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해요, 할아버지!

늘 건강하셔서 다음에는 저희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여행갈 수 있는 날까지 오래오래 사세요.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운 아빠 만나러 가는 날

우수상 | 양나예

비행기 창문으로 만난
눈부신 주황색 하늘이
비행기 아래로 펼쳐진
푹신한 흰 구름 이불이
너무 멋진 날.

멀리 혼자 일하러 가신
아빠를 만나러 가는 길이
설레어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날.

엄마가 아빠 준다고
무겁게 싸고 온
밑반찬 냄새가
하나도 싫지 않은 날.

삼십분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내가
한 시간 넘게
끄떡없이 앉아 있는 날.

오늘은 아빠를 만나러 가는 날.
공항 문이 열리면
두 팔 벌려 달려오시는
그리운 아빠가 보여서 눈물이 핑 도는 날.

하늘 놀이터

우수상 | 오승아

미소천사 햇님이는 도움반에 다녀요.
거기선 뭘 배울까요?

날다람쥐 달님이는 엄마랑 살아요.
무서운 꿈을 꾸면 어쩌죠?

골목대장 별님이 엄마는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눈동자가 갈색일까요?

햇님이가 비행기를 타고
여기저기 여행을 가요.
행복한 미소를 담으러!

달님이가 비행기를 타고
아빠를 만나러 가요.
"다음 달엔 또 만나요"

별님이도 비행기를 타고
엄마고향 사람들과 인사해요.
"씬 짜오"

햇님도 달님도 별님도
<하늘 놀이터>에서는
자유로운 새가 되어
마음껏 날아다녀요.

공항의 우리들

우수상 | 이찬희

공항의 아이들은 늘 신나요
얼굴 표정도 밝고요
웃음이 떠나질 않아요
어쩌면 벌써 마음은
비행기를 타고
여행지로 향하고 있을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씩씩하게 걷고
의젓하게 앉아 기다리고
가끔 졸기도 하지만
깨우면 벌떡 일어나요
우리는 모두 여행지로 떠날 거니까요

우리들이 의젓해지는 공항
하지만 우리는 어느 때보다
마음은 개구쟁이에요
모두 풍선처럼 부푼 마음
숨기느라 너무 힘들어요

공항의 우리들은 오늘도 신나요

물고기 비행기

장려상 | 김세은

파아란 하늘은
파아란 바다가 되고,

거대한 비행기는
귀여운 물고기가 되지.

꼬물꼬물
헤엄치는
비행기는

거센 구름파도를
가로질러

그 어느
물고기보다도
자유롭게 헤엄치지.

세계여행도 할 수 있는
엄청난 물고기 비행기.

| 수필 |

고마워 나에게 다른 세상을 보여줘서

장려상 | 김시은

겨울이 조금씩 봄을 기다리고 있던 2월. 내 옷은 두꺼웠고, 방학이더라도 학원을 가야 해서 숙제로 매일 같은 날들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건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다. 변화 없는 일상을 맞는 것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같았다.

엄마는 거실에 모여 앉은 우리들에게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제주도로 가족여행 갈 거야."라고 말했다.

"여행? 제주도로"

동생은 다시 한번 엄마에게 물었다.

"다 같이? 진짜? 와~~"

엄마 말에 가장 들뜬 건 막냇동생이었다. 코로나로 인해 가족 여행이 많이 줄었던 우리는 내심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엄마는 오빠 생일이 2월 9일이기도 하고, 해외는 아직 불안해서 국내 여행으로 가보자고 했다. 동생은 비행기 타고 갈 생각으로 들떴고, 생일에 비행기 타고 놀러 가는 오빠가 부러웠지만, 제주에 가는 건 다 같이 가는 거기에 나 또한 기분이 좋았다. 겨울방학이 모처럼 좋다고 느꼈다.

엄마가 일정을 말한 날이 다가오면서 나도 나의 짐을 싸게 되었다. 겨울이라 수영장을 가지 않아 엄마는 짐이 적다고 하셨다. 여행은 짐을 쌀 때부터 시작인 것 같다. 너무나 설레는 기분이 든다. 엄마는 제주도에서의 일정을 미리 짜셨다. 막냇동생을 위한 코스며, 내가 좋아하는 곳과 오빠가 좋아하는 곳들을 적절하게 넣으셨다. 일정을 보니, 빡빡해 보였지만 하나같이 색다르고 재밌어 보였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주도 가는 날이다. 짐이 빠진 게 없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자 우리 가족은 차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향했다. 아빠는 비행기를 타러 갈 때마다 공항에서 초콜릿을 사서 우리의 입에 넣어 주신다. 마치, 아빠의 규칙처럼 우리도 당연하게 생각하며 초콜릿을 먹었다. 코로나로 공항을 가지 못했을 때는 그런 소소한 것들을 못 해 아쉬웠다. 그러나 코로나가 점차 사라지고, 이번 여행으로 다시 사주시는 초콜릿을 먹게 되었다. 오빠는 생일이기도 해서 시계를 사준다고 했다. 우린 짐을 부치고 간단한 간식을 먹었다.

공항 안은 벌써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동안 못 간 여행을 가려는 우리와 같은 가족동반 일행들과 옷 색깔을 맞춰 입은 듯한 동호회 사람들, 서둘러 다니는 사람들로 공항은 활기차 보였다.

우린 티켓을 보여주고 공항 검색대를 거쳐 비행기를 타는 게이트로 이동했다. 의자에 앉아 기다리니 금방 시간이 갔다. 드디어 안내방송이 들렸고, 비행기에 탑승하려는 사람들로 줄을 섰다. 두 명의 스튜어디스 언니가 문 앞에서 인사를 해주었다.

부모님과 오빠, 나와 동생은 비행기가 출발하기를 기다렸다. 탑승하는 사람들이 다 타자, 스튜어디스 언니들이 짐칸의 문을 닫고 안전벨트 착용을 당부했다. 서서히 움직이는 비행기가 느껴졌다.

"오오, 출발한다!!!"

동생의 소리에 놀라, "아, 좀 조용히 해…."라고 말했다. 동생은 비행기 타고 가는 것만으로도 신나 보였다.

드디어, 비행기가 큰 소리를 내며 이륙했다. 서서히 보이는 하늘에 내가 뜬 것만 같았다. 비행기가 솜사탕 같은 구름 위로 올라갈 때 난 눈을 떼지 못했다. 점점 작아지는 지면의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 더 올라가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새 눈에서 멀어진 건물들은 사라지고, 구름과 비행기만 하늘에 있는 듯했다. 동생은 가지고 온 것들을 작은 테이블에 펼쳐 놀고 있었다.

50분 여정도 지나니 제주도의 풍경이 다시 작은 창문으로 들어왔다. 바다를 낀 섬, 제주도. 작은 섬처럼 보이지만, 여행을 가면 갈 곳이 너무 많아 몇 달은 있어야 할 것 같다. 그것보다 우리의 일정은 생각보다 짧게 느껴졌다. 제주도 공항에 내리자, 우리가 체감한 날씨보다 따뜻했다. 벌써 서서히 봄 냄새가 나는 듯했다. 우린 렌터카를 빌려 숙소로 이동하였다.

숙소에 도착해 체크인한 뒤, 우리는 엄마, 나, 동생과 아빠, 오빠로 나누어 자게 되었다. 밤에 보는 제주도의 야경도 예뻤다. 제주도에서의 여행이 잘 풀릴 것 같은 기분 좋은 밤이었다.

다음날, 우린 제주국립박물관에 가기로 했다.

"얘들아, 먼저 어린이박물관에 가자."

"아~ 왜~?!" 오빠와 나는 어린이박물관에 간다는 말에 실망스러웠다. 엄마는 "어이구~ 네 동생 때문이야."라고 말했지만, 동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 체험을 하면 제주의 문화를 경험했다. 우리도 박물관 이곳저곳을

구경하고, 영상실에서 제주만의 특색있는 모습들을 보았다. 특히, 방 전체가 빛으로 변해서 실감이 났다. 우린 박물관 밖으로 나가자 산책로처럼 나온 길을 따라 산책을 하였다. 가족과 함께 산책한 것이 오래되어 좋았다.

우리의 두 번째 코스는 에코랜드이다. 제주 여행을 하면서 엄마는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하였다고 한다. 이번 에코랜드는 예전에도 가봤지만, 두 번 가도 재밌는 곳이다. 기차 타고 다니면서 풍경을 구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는 요정의 집도 구경하고 간식도 먹었다. 또, 보라색의 꽃으로 수놓아진 들판을 뒷배경으로 한 곳도 보았다. 제주 해요라고 불리는 '성산 사진관'으로 가 옛날 해녀 옷을 빌려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사진관이지만, 사진사가 없어 리모컨으로 직접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재미도 있었다. 아빠가 미리 구성을 생각해 두어서 사진이 잘 나왔다. 우리의 가족사진은 흑백으로 나와서 그런지 더 느낌 있어 보여서 더욱 맘에 들었다.

다음날은 아침 일찍 화조 원에 갔다. 아침 일찍 가서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었다. 거기서 알파카가 있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쪽으로 지나가지 않고 넓은 공터로 지나갔다. 공터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푸르고 맑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새들의 공연을 보기 전 부엉이 같은 새를 보고 앵무새도 봤는데 작은 앵무새들이 오빠의 머리, 팔에 올라가 있었다. 역시 활짝 웃고 있는 오빠를 보면 역시 오빠는 동물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나랑 동생은 무서워서 아빠랑 먼저 나왔다. 좀 있으니 오빠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엄마와 나왔다. 그리고 공연을 봤는데 새들이 멋있게 날고 먼 곳에서도 척척 나오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도 했다. 그날 밤, 제주 동문 시장에 가서 고기 김치말이와 김밥, 육포, 동생이 좋아하는 딸기 탕후루, 그리고 한라봉 초콜릿과 크런키 초콜릿을 사서 숙소로 돌아갔다. 시장에서 돌아다니며 보고, 물건을 사는 재미가 있었다.

스누피 가든에 간 날은 여행한 날 중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그곳은 산책로와 같이 꾸며진 곳으로 가는 곳마다 스누피들이 있었다. 하물며, 간식도 스누피 모양이었다. 나는 중간중간에 있는 스탬프를 다 모아오면 배지를 준다는 말에 열심히 모으려고 애썼다. 우린 다니면서 사진도 많이 찍었다. 난 스누피에게 관심이 없었지만, 이날 스누피 가든에 가서 스누피를 매우 좋아하게 됐다. 그래서 나중에 또 제주도에 오면 스누피 가든을 가기로 했다. 우린 마지막으로 기념품 가게에 갔다. 거기서 다 모은 스탬프로 배지도 받고 오빤 초록색 스누피 모자, 나랑 동생은 스누피 인형, 엄만 스누피 와플 기계를 샀다. 하지만 아빠는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

우린 "천리 식당"으로 갔다. 그곳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왔던 식당이라고 엄마가 그랬다. 그곳에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사진도 찍고, 친구가 추천해준 "아르떼 뮤지엄"으로 갔다. "아르떼 뮤지엄"은 빛을 이용해서 방마다 다른 전시물을 볼 수 있었다. 사람이 많아서 사진을 다 찍지는 못했지만, 방들을 꾸민 빛들이 밤하늘을 수놓은 별처럼 하나같이 아름다웠다. 엄마와 동생은 만족스러워했지만 나, 아빠, 오빠는 약간 어지러움을 느꼈다. 아마 어둡고 빛이 빙글빙글 돌아서 그런 것 같다.

집으로 돌아가는 날, 우리는 한림원에 가기로 했다. 한림원에 원래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어서 가게 되었다. 주차장에서부터 풀이 많이 보였다. 그래서 풀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자~ 이제 들어가 볼까?"라고 아빠가 말하는 바람에 풀 구경은 접어두고 아빠를 따라갔다. 한림원에는 대나무 숲도 있고, 식물원과 꽃도 많았다. 식물원에서 꽃과 풀, 나무를 구경하고 대나무 숲으로 갔다. 대나무 숲은 무척 시원하고 대나무 사이에서 듣는 바람 소리는 아주 좋았다.

"야! 이리 와 봐, 윤하를 불러서 오고 우리가 내려가면 걔도 내려오겠지?, 그러면 우린 또 올라가고 어때?"

"설마 오빠 혼자 혼나기 싫어서 나까지 끌어들이는 거 아니지?"

"아냐, 너도 장난치는 거 좋아하잖아~"

이렇게 나는 오빠의 꾐에 넘어가서 같이 동생을 놀리게 돼버렸다. 부르고 도망치길 반복하다가 엄마가 오자 나와 오빠, 동생은 후다닥 위로 올라갔다. 근데 대나무 숲이 끊기고, 산길 같은 게 있었다. 그 산길도 풀이 무성하고 산책로처럼 있어서 그 길을 우리는 따라 걸었다.

길의 끝은 편의점이었다. 다들 음료수를 하나씩 손에 쥐고 대나무 사이에서 듣는 바람 소리가 인상적인 제주 한림원을 뒤로하고 용의 머리를 닮았다는 용두암으로 갔다.

용두암은 바닷가에 있었다. 위험천만한 계단을 내려가고 돌을 건너 용두암과 마주하자 웅장하면서도 신기했다. 크기는 예상보다 작았지만, 자연적으로 용머리처럼 만들어진 것이 멋있고 신기했다. 가는 길이 좀 위험하긴 했지만, 그 웅장한 모습은 앞으로도 잊을 수 없을 것 같고 앞으로도 그 모습이 영원히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우리의 짧으면 짧은 시간의 여행이 끝이 났다. 항상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순간은 아쉬움이 남는다. 비행기 시간을 확인한 후, 우린 공항으로 갔다. 내 핸드폰의 사진 속엔 우리 가족의 모습들이 남겨있었다. 공항에서

제주도를 기억할 수 있는 상점들을 둘러보고 제주도를 떠나야 했다. 이번 제주도 여행은 가지 않은 곳도 가봐서 특별하게 느껴졌고, 도시보다 한적한 제주만의 풍경을 보게 되어서 좋았다.

우린, 다시 한번 비행기에 올랐다. 출발할 때와는 다른 느낌으로. 그래서 여행은 언제나 나에게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것 같다,

출발

❁ 장려상 | 김아인

북적이는 비행기 안
누군가는 희망을 품고
누군가는 절망을 느끼고
누군가는 두려움을 가득 안았다

푸르른 하늘 위로 자유롭게 나는 비행기 되어
모두의 소망, 절망, 두려움이
반짝이는 비눗방울처럼 톡톡 터진다

낯선 곳에 발을 디딜 때
그들의 고민들은 바람이 되어 돌아온다
하늘 높이 나는 바람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출발이다

파란색 의자

❁ **장려상** | 김윤하

빙그르르 돌아가는 내 방 핑크색 의자보다
꽃꽂한 파란색 비행기 의자가 훨씬 편하다.
폭신폭신 구름으로 만들어졌나?
두근두근 설렘으로 만들어졌나 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꽃꽂한 파란색 비행기 의자가 불편하다.
어휴. 밀린 숙제로 만들어졌나?
하아. 아쉬움으로 만들어졌나 보다.

공항대합실에서

❁ **장려상** | 김은수

새벽 5시
우리 가족만 공항대합실 의자에 앉아
출국 할 시간만을 기다린다

유리창 너머로
비행기들이
각자 떠날 준비를 하며
활주로에 머물고 있다

날이 밝아오자
캐리어를 끌고
모여드는 사람들

출장 가는 아저씨도
오랜만에 여행을 떠나는 가족여행객들도
어쩌면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르는 노부부도
설렘과 기다림을 안고
모여 든다

우리 가족이
출국할 시간은 아직 남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공항대합실은
기다려도 지루하지 않는
우리들만의 공간이다.

움직이는 미술관

장려상 | 김효재

개인별로 다 있는
액자

그 액자속 그림은
언제나 움직인다.

점점 작아지는 마을
반짝반짝 예쁜 바다
크고 작은 섬들
파란 하늘 두둥실 구름

그렇게 움직이는 액자를
관람하다보면 어느새 도착!

예쁜 그림이 움직이듯
변하는 창문 속 예쁜 풍경들

비행기안 최고의 미술관!

좌석이 뭐가 중요해

장려상 | 류서윤

"아빠! 우리 어떤 좌석이야?"
혹시 비즈니스석?
비즈니스석을 기대하는 내 마음은
하늘을 솟구친다.

아빠의 대답이 나오기 전!
마치 마음속에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가슴이 요동친다.

"응? 뭔 소리야.
당연히 이코노미지!"
아빠의 한마디에
기대가 한순간에 와르르르!

그런데 막상 이코노미석에 앉으니
뭐야! 여행의 설렘은 똑같잖아!

여행은 좌석이 더 좋다고
여행의 설렘이 다른건 아니야!
어느 자리에 앉든
날 행복하게 하는 여행.

여행의 묘미

장려상 | 문수빈

여행을 가기 전 가장 설레이는 건?
캐리어에 설렘과 기쁨을 담는 것

여행을 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추억 만들기

여행에서 돌아올 때 해야 할 건?
캐리어에 추억들을
마음껏 담아오기!

여행을 떠나기 전
설렘을 담으며 공간을 남겨둔 덕분에
여행에서 돌아올 때 추억을 가득 싣고 와
어느새 캐리어가 빵빵해졌다

이게 바로 여행의 묘미지!

날아라

장려상 | 박채원

쌩쌩 오늘도
하늘 위로 난다.

비행기를 타고
올라갈 때
떨리는 마음

날개가 펼쳐지면
눈은 동그래지고
머리가 쭈뼛

드디어 올라가
구름위에 둥둥 떠 있다.

비행기를 타면서
맛있는 간식 냠냠

오랫동안 가다보면
잠이 솔솔

편안한 마음으로
도착한 이곳은
다시 한국

여행의 첫 방문지

장려상 | 소경한

공항은 여행의 시작이야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여행이 모두 공항에서 시작되니까

한편으로는 여행에 대한
설렘이 가득하고
한편으로는 여행이 끝난다는
아쉬움도 가득해

설렘과 아쉬움이
공존하는 공항은
각 나라의 첫인상이기도 해

공항이 있음으로써
여행하는 나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도 있으니까

여행에 대한 설렘과
또 다음을 기약하게 만드는 공항

공항아 항상 우리가
재밌고 안전한 여행을
하게 해줘서 고마워

비행기에서 맛본 세상

장려상 | 신서우

비행기가 하늘위로 오를 때
하늘은 푹신푹신한 솜사탕을
나누어 준다.

비행기가 하늘위로 다닐 때
하늘은 상큼한 블루 레몬에이드를
나누어 준다.

이 커다란 비행기에서
밑을 내려다 볼 때
알록달록한 사탕같이
건물들과 자동차가 보인다.

내가 도착할 세상은
어떤 맛일까

비행기가 이륙했다 착륙하자

장려상 | 심동하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갔다
비행기를 탈 때부터
마음이 콩닥콩닥했다

비행기가 이륙했다
유리창 창문은 작은 액자
산과 강과 건물들이 작게 보이더니
하늘과 구름이 펼쳐졌다

비행기는 하늘을 나는데
우리는 안전벨트 멨는데
승무원들은 그냥 걸어다녀서
신기했다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풍경이 바뀌어져 있었다
더 멋있어져 있었다

비행기 지도

장려상 | 안도윤

비행기엔 지도가 있어
처음 이륙하면
인천 지도가 생생히 펼쳐지지
내가 움직이면
지도도 같이 움직여

비행기가 모두 뜨면,
하늘 지도가 펼쳐져
몽글몽글 구름과
맑은 하늘
내가 움직이면
지도도 같이 움직여

비행기가 착륙할 땐
여행지의 지도가 펼쳐져
'난 어디를 갈까?'
지도를 보며 고민도 하고
'저기는 어떤 곳일까?'
호기심도 가지지
내가 움직이면
지도도 같이 움직여

여행에 설렘을 더하는, 비행기 지도

하늘길이 열리다

장려상 | 이다인

미국에 계신 외할머니
코로나가 끝나갈 무렵
나를 보러 오셨다

나를 위한 옷이며 장난감 간식까지
캐리어 가득 담아 오셨다

하나뿐인 외손자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다고
코로나 때문에 영영 못 보나 싶었다고

엄마랑 내 손 잡고
눈물이 글썽글썽하셨다
이제는 하늘길도 열렸으니
자주 오마 하셨다

우리 외할머니 힘드시니
다음에는 하늘길을 달려
내가 가야겠다.

잊지 못할 추억

장려상 | 이연준

2019년 0월 23일, 그 날이 아빠가 조종한 비행기를 탄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날 이였다.

아빠가 조종하시는 항공사에는 김포-양양 노선은 없고, 부산-양양 노선은 있어서 가족여행 겸 아빠 비행기 타는 것으로 부산을 가기로 했다. 부산까지는 대한항공을 타고 갔다. 오랜만에 부산 여행이라 신났다. B737-800을 타고 갔는데 737-800은 좌석이 왼쪽에 3줄, 오른쪽에 3줄로 단일 통로였다. 부산에서 놀고 양양을 가기 위해 김해국제공항으로 갔다. 김해국제공항에서 아빠가 조종하시는 항공사의 탑승수속을 마치고 항공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땐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 항공편이 아빠가 조종한 비행기의 탑승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것을.

그 후 탑승시간이 되자 항공기를 타는 곳(게이트)으로 갔다. 항공기 까지는 램프 버스를 타고 갔다. 타기 전에 항공기 앞에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그때 아빠가 준비를 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다. 그때 아빠랑 눈이 마주쳤다. 그래서 손을 흔들어 아빠께 인사를 했다. 근데 아빠는 내 인사를 보지 못하셨는지 내 인사를 안 받아 주셨다. 이번에 탄 항공기는 보딩 브릿지와는 잘 안 맞는지, 보딩 브릿지가 아닌 항공기에 붙어있는 계단을 타고 탑승했다. 아빠가 조종하시는 항공기가 작은 항공기라서 그런지 B737이나 A330보단 좌석이 적게 있었다. 좌석은 왼쪽에 1줄, 오른쪽에 2줄로 단일통로 형식 이였다. 그래도 계속 대한항공만 타다가 다른 항공사 비행기를 타니까 새로운 느낌이 들었다. 이제는 김해공항에서 양양공항을 가는 것만 남았다.

이륙을 하는데 옆에 바다가 있었다. 매일 활주로 쪽만 보다가 바다나 자연물 쪽을 보니 신기했다. 네이버 지도에서 보는 항공뷰 같았다.

이륙과 착륙 하실 때는 아빠가 조종을 하셨다. 김해공항 주변에 산이 많아, 요리조리 산을 피해가야 했었는데, 아빠가 하나도 안 부딪치시고 안전하게 산을 피해가셨다. 산이 온통 초록색으로 된 나무 천지였다. 집 앞에 있는 나무는 연두색인데 부산은 따듯해서 초록색인 것 같았다. 이륙을 하는데 옆에

바다가 있었다. 동해 바다를 보는데 에메랄드빛과 푸른빛이 합쳐져 있어, 정말 아름다운 바다색 이였다. 서해바다는 색이 에메랄드빛이 없고 그냥 푸른색만 보여서 지루하고 지겨웠었는데 동해바다를 보니 새로운 색이 있어 신기했다.

이륙을 하고 좀 지나니 우리가 구름 위로 올라가 있었다. 난 창문에 얼굴을 대고 눈을 더 크게 뜨고 구름을 봤다. 거기에서 봤던 구름은 정말 종이 색처럼 하얀색 이였다. 살짝 연한 회색이 있었지만 엄청 멋지고 예쁜 구름 이였다.

비행기 탈 때는 항상 아빠 옆에 앉아서 아빠의 설명을 듣곤 했는데 내 옆엔 아빠가 아닌 할머니가 앉아계셔서 기분이 조금 묘했다. 아빠가 설명해주실때는 재밌었다.

"저건 뭐야?"

할머니께서 내게 물어보셨다. 손으로 가리키셨는데 솜털같이 뭉쳐있는 적운이였다.

"저건 구름인데 들어가면 마구 흔들리는 구름이에요. 저걸 적운이라고 해요. 외관은 예쁘지만 내부는 무서운 구름이에요"

내가 설명해 드렸다. 지금은 내가 할머니께 설명을 해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아빠가 어떤 기분인지 체험을 할 수 있었다.

몇 분이 지났을까, 승무원분들이 카트를 끌고 주스를 나눠주셨다. 카트에는 콜라, 사이다, 주스 등이 있었다.

승무원 분이

"어떤 음료 드시겠습니까? 콜라, 사이다. 주스가 있습니다."

라고 하셨다. 나는

"콜라주세요"

라고 말했다.

난 핸드폰으로 창문에 보이는 구름들을 엄청 많이 찍었다. 수평선에 비행기 날개가 있는 것도 찍고 구름보다 날개가 더 높이 있는 사진도 찍었다. 또 영상이랑 타임 랩스도 찍었다. 타임 랩스는 신기했다. 10초 동안 찍은 게 1초가 될랑 말랑 하니 재미있는 기술 이였다.

몇 십 분이 지나니까 승무원 분이 안내방송을 하셨다.

"저희 비행기는 곧 양양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영어 방송도 하셨다.

이젠 아빠 담당인 착륙이다. 아빠가 조종하시는 비행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하실지, 관제탑과 대화를 하시면서 영어는 잘 이해하실지, 대한항공과 비슷하게 착륙하실지...등 다양한 궁금증이 넘쳐났다. 하지만 나의 예상 외로 활주로의 고도가 높아서 인지 바람이 많이 불어서인지 '쿵' 소리가 나게 펌랜딩을 하셨다. 착륙 할 때 창문을 보았었는데 날개에 뭐가 올라가져 있었다. 그 안으로 기계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신기했었다.

착륙을 하고 난 후에 주변 나무들을 보니 나뭇잎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었다. 아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인 듯 했다.

양양공항에 도착했다. 이제 또 김해공항에서처럼 항공기에 붙어있는 계단을 내려가 공항 안으로 들어갔다. 아빠는 내가 공항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동안 기장님과 착륙 체크리스트를 하고 계셨다.

나는 그게 아빠가 조종한 마지막 비행기의 탑승인줄도 모르고 굉장히 기뻐했다.

지금 까지 약 3~4년이 지났는데 이 기간 동안 몇 번의 비행을 하시고 몇 년 전 부터는 비행을 못 하시고 계신다.

아빠께 여쭤봤다.

"아빠는 왜 이제 비행 안하세요?"

아빠는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

"코로나 때문에 조종사들이 많이 줄어들었어."

아빠의 항공기 조종이 적어지게 된 이유가 코로나와 관련되어서였다. 코로나 발생으로 점차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다.

나중에 아빠가

"화이트 카드를 발급 받아야 비행을 할 수 있어"

라고 하셨다. 화이트 카드가 뭔지 몰랐었다. 아빠가 설명해 설명 해 주셨는데 부기장과 기장한테는 꼭 필요한 것 이라고 하셨다. 없으면 비행을 못 한다. 난 아빠가 화이트 카드를 발급 받으시고 다른 필요한 것들도 얼른 받으셔서 최대한 빨리 비행을 다시 하셨으면 좋겠다.

비록 지금은 비행을 못하시고 계시지만, 난 아빠가 멋지게 느껴졌다. 그때부터 나는 다짐했다. 나는 커서 꼭 기장이 돼서 가족들을 다 태우고 같이 여행을 갈 것이라고.

아빠가 우리를 태우고 비행하신 마지막 이였지만, 그래도 나와 가족들에게는 행복한 추억 이였을 것이다.

난 너가 부럽다

장려상 | 이지환

웅장한 자태와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는
비. 행. 기

비행기를 타면 마치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느낌이 든다.
마치 내 몸이 새가 된 것 같은 느낌.

비행기야 넌 헬스장 다니지 않아도
수백 명을 들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세구나.
우리는 몇 날 며칠을 고생해야지만
힘이 세진단다.

비행기야 넌 자유로워 보여.
가는 곳은 마음대로 정하지 못해도
하늘을 돌아다니는 건 신호등이 없어 자유잖니.

난 너가 부럽다.

우리의 비행기가 날기까지

장려상 | 정재우

"현석아, 일어나!" "어? 네 네 네!" 내 이름은 현석이다. 나는 어제 방학식을 하였다. 우리 학교에는 굉장히 재수 없는 나은 이라는 애가 있다. 그 애는 전학을 오고 인사를 해도 웃지 않고 무뚝뚝해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다. 근데 1달 동안은 그 애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니! 게다가 이번에 뉴욕에 간다. "믿을 수 없어! 내가 비행기를 타다니!" "현석아, 늦게 일어났으면 빨리 준비해! 우리 그러다 늦어!" 우리는 준비를 모두 마치고 차에 신나는 마음으로 탔다. "여보, 선크림이랑 로션 챙겼지? 이번에 뉴욕이 워낙 덥데." 엄마가 운전하는 아빠에게 말하셨다. "아빠, 우리 이번에 무슨 비행기 타요?? 제가 또 공부를 해놨죠." 웃으시며 아빠는 대답하셨다. "우리는 보잉747을 탈거야." "우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종이에요!" 우리는 차가 막히지 않아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더 일찍 도착했다.

"엄마, 아빠, 우리 그럼 공항 면세점에 가서 한국 시계와 뉴욕 시계가 모두 표시되는 시계를 사면 좋겠어요!" "그래, 좋은 선택이야. 가자." 부모님이 흔쾌히 대답하셨다. 우리는 열심히 시계를 찾고 있었다. 시계를 고르고 고개를 드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나은이였다!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고 눈을 피했다. 하지만, 이런! 우리 부모님의 눈에 나은이의 부모님이 포착되었다. "어머! 나은이 부모님 아니세요? 제가 카톡에서 보았는데, 이렇게 보게 되네요." 내가 엄마의 옷가락을 잡아 당겨도, 엄마는 아랑곳 하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항공편 몇 편이세요? 5095편이요? 우리도 그런데. 이런 우연의 일치가. 어머! 레지상스 리오 호텔에서 묵는 다구요? 우리도 그 호텔 예약 했는데. 이렇게 된 거 같이 여행 다니면 어떨까요?" '안 돼! 나의 여행을 그렇게 보낼 수는 없어!' 우리는 같이 승강장으로 걸어갔다. 무론, 우리는 부모님 네 분을 가운데 두고, 가장 멀리 떨어져서 걸어갔다. 우리는 대기석에 앉았고, 군것질 거리를 먹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곧, 안내방송이 흘러 나왔다. "대한항공5095편 승객들은 지금 탑승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다. "우와!" 비행기 안은 신기했다. 모든 것들이 다

신기했다. 우리 가족은 뒤쪽에 앉고, 나은이네는 우리 두 칸 앞에 앉았다. "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 엄마가 일어서더니, 나은이네 좌석에 갔다. "설마,설마!" 나는 눈을 비비고 보았지만, 엄마는 이미 나은이 엄마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결국 그렇게, 나는 나은이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나는 물론 나은이도 서로 고개를 돌려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우우웅.덜컹." 비행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10분 동안 움직여서 활주로에 도착해서는 큰 소리를 내며 힘차게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으악!'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옆에 나은이가 있었기에 소리를 지를 수는 없었다. 잠시 후, 저녁식사가 나왔다. 그냥 평범한 비빔밥 이였다. 몇 숟가락 깨작깨작하다, 먹는 걸 포기했다. 아무래도 체한 것 같았다. 1시간 뒤, 아직도 체해있는 나에게 나은이가 심심했는지 말을 걸어왔다. "많이 아파?" 놀람 반, 싫음 반이였던 나는 그냥 꾸물꾸물 중얼거렸다. 다시 나은이는 고개를 돌렸다. 어느새 11시었다. 잠이 별로 오지 않았다. 체끼는 나아 졌지만,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야, 일어나!" 정신 차리고 보니 앞에 샌드위치와 우유가 놓아져 있었다. "음? 어어어, 알겠어." 자고 일어나보니 창문 밖으로 활기찬 태평양의 아름다움이 보였다. 뭔가 다른 아침보다 더 개운한 느낌이 들었다. 1시간 정도 더 날아가서 뉴욕에 착륙할 때에 느낌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다. 반면에 나은이는 무표정 이였다. "드르륵. 왁자지껄." 공항은 굉장히 어지러웠다. 처음 와보는 미국공항은 온통 영어로 되어 있어 많이 헤맸다. 겨우 사람지옥 같은 공항에서 빠져나왔다. "후! 아빠, 근데 우리는 호텔까지 뭐를 타고 가요?" 아빠가 대답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차를 렌트했지!" 천만다행으로 나은이네와는 따로 갔다. 2시간 정도 걸쳐 호텔에 도착했다.

나은이네와 우리는 점심을 먹고 2시에 만나기로 했다. '진짜 나은이네는 우리 가족 여행에 왜 끼어든 거야?' 약속대로 우리는 2시에 만났다. 솔직히 말하자면 2시10분이다. 우리가 살짝 늦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음식점에서 주문한 음식을 1시간동안이나 기다려야했기 때문이다. 아무튼, 우리는 자유의 여신상을 보러 가기로 했다. 선박장은 걸어서 10분도채 걸리지 않았다. "뿌뿌!" 우리가 타는 배의 경적이 울렸다. 우린 배에 올라탔고, 거대한 자유의 여신상으로 다가가길 기다렸다. 거대하고 빛나고 멋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행복하게 기다리는 순간, 옆에서 신음 소리가 났다. 옆을 보니, 나은이가 멀미를 심하게 했나보다. 나는 도와주지 말지 몇 초 동안 고민하다 도와주기로 했다. 일단 몸을 앉히고, 혹시 몰라서 가져온 소화제를

주었다. 옆에 있어주는 사이에 우리가 탄 배는 자유의 여신상에 도착했다. 하지만 나는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나은이가 너무 걱정이 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던 랜드마크를 등진 채로 나는 떠날 수 밖에 없었다. 우리는 시간이 남아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가기로 했다. 나은이네는 나은이가 아파서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다. 지하철을 타고 도착하니 엄청 거대하고 멋진 빌딩이 보였다. 부모님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높은 층으로 이동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보니 뉴욕시내의 아름다움이 전부 보였다. 알록달록한 건물과 밝은 하늘의 조합은 정말 환상적이었다. 나는자유의 여신상의 아쉬움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으로 달랠 수 있었고, 우리는 저녁식사를 하러 발길을 돌렸다. 우리는 'Ricky's Taqueria'라는 타코집에 들어갔다. 들어가니 웨이터 한명이 자리로 우리를 안내했다. 나는 비프 타코를 주문했다. 미국 음식점의 음식양이 너무 많아서 음식들을 남기고 나올 수 밖에 없었다. 식사를 한후 우리는 숙소로 돌아왔다. 여러가지 일들을 겪은 하루였기에 두 발을 뻗고 자려고 하는데 , 갑자기 나은이가 우리 룸으로 찾아왔다. 그리고 나은이는 내게로 다가와서 내 침대맡에 앉은 후 입을 열었다. "사실은 내가 전의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했었어." 나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무뚝뚝했던 거야" 나는 나은이를 무시하고 싫어했던 죄책감에 머리를 푹 떨어뜨렸다. "하지만 오늘 네가 나에게 보여준 도움으로 살짝 마음을 열게 되었어. 아직 이렇게 자신이 기대하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도움을 주는 친구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 아무튼 내 마음을 열 수 있게 해주어서 고마워. 앞으로 우리 둘이 친하게 지내면 안될까?" 나는 잠시 망설이다 "응"이라고 대답했다. 나은이는 웃는 얼굴로 "잘 자"라고 말하며 나갔다. 나는 그대로 침대에 누웠다.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지나갔다. 생각을 비우고자 그대로 눈을 감아버렸다. "엄마, 지금 몇 시에요?" "9시." "네? 오늘 이른 아침에 센트럴 파크에 놀러 가기로 했잖아요?" "어, 그게 나은이는 아침에 약을 먹고 쉬어야 한다는 구나." 엄마가 말씀하셨다. "알겠어요." 평소의 나였다면 온갖 불평불만을 쏟아 냈겠지만, 어제 일로인해 차마 그런 말들을 꺼낼 수가 없었다. 나는 태블릿을 꺼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나는 이전에도 만화를 그려서 업로드 하였었지만, 거의 아무도 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요즘 새로운 만화를 그리려고 열심히 구상 중이었다. 하지만 점점 현기증이 나기시작해서 만화그리기를 멈추고, 잠시 다른 작가들의 만화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나는 그렇게 만화 삼매경에 빠져들어 갔다. 밀린 편들을 보다보니 어느새 11시 반이

되어 있었다. “엄마, 우리 어디 안 나가요?” “조금만 기다려. 나은이가 이제 괜찮아 졌대. 우리 같이 ‘The Modern’ 이란 음식점에 갈 거야. 알았지?” 드디어 나간다는 소식에 나는 신이 나서 번개처럼 옷을 입었다. The Modern은 굉장히 화려했고, 정말 미국 음식점의 정석 이었다. 게다가 내가 주문한 프랑스 요리는 이 세상에서 처음 먹어보는 상상 이상의 훌륭한 맛이었다. 그렇게 맛있게 식사를 한 후에, 옆에 있는 오리 배를 타러갔다. 우리는 10분정도 기다린 후에야 탈 수 있었다. 나는 나은이와 둘이 탔고, 우리는 무척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더 빠르게, 더 열심히 페달을 밟자” 등 계속 구호를 외치며 말이다. 내가 탔던 오리배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다. 우리는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알고 보니 나은이도 웹툰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다. 같은 공통 관심사를 갖고 있어서 우리는 호흡이 잘 맞았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에도, 비행기는 우리 위를 지나가고 있었다.

우리는 숙소로 돌아와서, 어디를 더 가볼지 뉴욕지도를 보며 상의하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정한 목적지는 타임스퀘어였다. 막상 직접 가서 보니 타임스퀘어에는 전광판으로 거의 도배되어 있었다. 여기저기 여러 광고들이 나오고, 디지털 세계 같아서 나의 취향에 딱 들어맞았다. 보기에도 신나는 건물들 중에 헬렌 헤이즈 극장이 있었다. 우리는 표를 사기위해 들어갔다. 나는 당연히 자리가 없을 것이라 여기고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딱 6장이 남아 있어서 공연을 볼 수 있게 되어 너무 기뻤다. 활기찬 분위기의 공연은 예술작품 그 자체였다. 역시 찬사를 많이 받은 데에는 이유가 있구나 싶었다. 그렇게 타임 스퀘어 탐방을 마친 우리는 이제 돌아가 짐을 싸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날 밤에 비행기를 타고 다음날 10시면 한국에 도착하게 되어 있었다. 뉴욕의 마지막 식사는 스테이크로 유명한 울프강 스테이크 하우스에 갔다.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 체크아웃을 한 뒤 공항으로 출발했다. 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7시였지만,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저번처럼 비행기 승강장으로 걸어들어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뭇 달랐다. 나은이와 나는 사이좋게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다. 한번 타보아서인지 비행기에서 별로 불편하게 느끼지 않고 한국까지 올 수 있었다. 도착 후 서로 헤어지는 시간이 되었을 때, 나은이가 나에게 물었다. “ 우리 앞으로 계속 친구할래?” 그리고선 나은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나는 그런 나은이에게 말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친하게 지내자.” .....

비행기는 마치 우리 우정의 시작을 말해주듯이 우리 머리 위로 날고 있었다.

나는 이 여행이후로 <너의 계절이 오기까지>라는 만화를 만들었다. 이 만화는 나은이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졌으며, 나의 첫 성공작이기도 하다. 이 만화는 웹툰 사이트에서 읽혀지고 있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이야기가 이어져가고 있다.

시간이 흘러, 지금 우리는 어른이 되었고, 서로 연인 사이가 되었다.

그리고 비행기는 여전히 우리 위 하늘에서 날아오르고 있다.

| 시 |

비행이란

장려상 | 정지홍

비행은 롤러코스터같다.
내 마음을 붕 뜨게 하는 롤러코스터는 비행이다.
비행은 바람같다.
잠깐 졸다 눈을 뜨면 바람처럼 휙 하고 도착지점에 와있다.
비행은 SNS같다.
비행기에 탈때마다 내기분은 새롭게 업데이트 되어있다.

| 시 |

행복한 헬리콥터에게

장려상 | 정하빈

헬리콥터야 헬리콥터야
너는 참 특별한 존재야.

헬리콥터야
너는 비행기와 달리 한 자리에서도 머물 수 있다지.

보고 싶은 것을 한참 동안 바라볼 수 있겠구나.
누군가를 오랫동안 기다려 줄 수도 있겠구나.

너에게 물어봤어.

너는 즐거운 헬리콥터니?
응. 나는 바다 위를 날 수 있어 즐거워.

너는 행복한 헬리콥터니?
응. 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 행복해.

헬리콥터야 헬리콥터야
우리 주변을 윙윙 맴도는 잠자리처럼,
우리를 지켜 줘서 고마워!

나의 첫

장려상 | 차정우

오늘은 여행을 떠난다
도로를 건너
긴 다리를 건너
도착한 공항

비행기를 탔더니
어느 새 새벽 두 시
하지만 난 눈을 감을 줄 모른다

부모님은 피곤하다 주무신다 하지만
나는 잔뜩 설레어 잠이 오지 않는다
나만 계속 말똥말똥

비행기 타고
처음 가보는 나의 첫 해외여행

비행기 맛집

장려상 | 최인서

달그락!
달그락!

카트를 끄는
승무원 언니가 온다!

'뭘 먹지?'
오늘도 고민에 빠진 나!

하지만 괜찮아~
무엇을 먹든
기내식은 다 맛있어!

비행기 맛집,
미슐랭 요리!

여권 도장 깨기

장려상 | 한다인

여행의 묘미는 뭐니뭐니해도
여권 도장 깨기!

공항에 가기 전 가장 먼저 챙기는 여권
여권이 없으면 여행도 없지!

나라에 입국 할 때마다
도장은 테트리스 쌓이듯이 쌓이고

여기 쾅! 저기 쾅!
여기저기 찍힌 나만의 추억들이

USB에 저장된 사진처럼
내 머릿속을 스친다

도장이 찍힐 때마다 설레는
몽글몽글 일어나는 여행의 기억

생각지도 못한 모양 색깔들의 도장은
마치 마법의 수첩처럼 나를 어디든 가라로 이끈다

나에게 추억을 스치게하는
여행 도장 깨기!

이번에도 도전?

하니가 처음 비행기 타는 법

장려상 | 허샛별

하니는 새벽부터 생애 첫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엄마, 언니, 소니야! 해외여행! 기대되지?"

하니는 새벽부터 짐을 준비해 가족들을 깨웠다.

언니 유니가 잠에서 막 깨어나 말했다.

"아옹, 새벽부터 무슨 일이야. 전쟁이라도 났어?"

"해, 외, 여, 행!"

"그것땜에 깨운 거야?"

유니는 다시 자려고 했다.

"잠깐만! 짐 싸야지 언니, 어?"

이쯤되면 유니도 화가 난다.

"야! 12시에 출발하잖아! 넌 졸리지도 않아?"

"언니는 설레지 않아? 그리고 난 안 졸려."

"허어, 언니는 수학여행 때문에 2번이나 갔어."

"이 거짓말쟁이!"

"야, 언니가 너랑 같냐? 너는 열한살이나 돼서 아기 티를 못벗냐?"

"언니가 나보다 나이가 네 살이나 많은데 어른스러워질 수 없어?"

"또 시작이다. 너는 내가 뭐 부탁하면 자기가 아기냐고 하고, 언니가 실수하면 자기보다 나이가 네 살이나 많다고 놀리고!"

"야, 야, 야!"

"너! 말버릇 고쳐라!"

결국 유니는 하니의 고집에 못 이겨 거실로 나왔다.

"언니 지금 다섯시나 됐어. 어떡해?"

"너 도대체 몇시에 일어난거야?"

"아, 좀 늦게 일어났어, 새벽 세시."

"뭐? 그러다 너 눈 나빠진다! 잠을 푹 자야지!"

"몰라! 자, 이제 엄마를 깨워볼까"

"뭐? 그러면 등짝 스매싱인데?"

하니는 언니 말을 무시하고 엄마 방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노래!"

"탐 보이! 음하하 하하하하 음음음 하하하...."

"어.....?"

"엄마! 지금 오후 한시야!"

"뭐?!"

그때였다.

"엄마! 우엥!"

"앗, 소니야!"

엄마는 정신이 없었다.

"아, 소니야, 엄마 여기있어. 정말이니? 하니야?"

"어, 그렇고 말고!"

당연히....

'헐~ 해도 안 떴는데 이걸 속는다고?'

거짓말이었다.

"신하니!"

"어!....어, 왜?"

하니는 일단 모른척 시치미를 떼어 본다.

"지금 새벽 다섯시 사십팔분인데 거짓말 한 거야?"

"아니....어떻게 시계가 조작된거 아냐?"

들킬걸 알면서도 끝까지 핑계를 댄다.

그게 하니의 스타일이다.

"어허! 거짓말은 나쁜거야!"

"그건 나도 알거든!"

"그걸 아는 분이 왜 나쁜 거짓말을 했을까?"

이제 유니까지 합세해 놀렸다.

"언니도 거짓말 많이 하잖아!"

하니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잠시 후,

"알았다. 오늘은 해외여행이어서 그럴만하니까 봐주는 거야."

"들었지?"

유니는 끝까지 놀린다.

그러고보니 벌써 7시, 하니 가족은 짐을 쌌다.

하니는 학습지, 카메라, 지도, 영어사전, <해외여행가서 재미있게 노는 방법>이라는 여행가이드 책, 그림도구를 챙겼다.

소니는 소리책, 그게 전부였다.

"자! 다 챙겼지?"

"네!"

하니 가족은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갔다.

"여기가 공항이에요?"

하니는 공항하면 사람들이 바쁘게 '위로! 아래로!' 하면서 일을 하고, 탑승객들은 거길 지나서 '곧바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줄 알았다.

하니가 언니한테 그 생각을 얘기하자,

"으이그, 그건 항공 연구소나 관제탑이고," 라는 반응을 했다. 하니는 오늘까지 언니가 왜 그러는지 몰랐다.

하니가 본 공항은 여덟살때 가본 아주 큰 기차역 같았다.

유니는 여기가 처음이 아니라는 듯,

"엄마! 던킨도넛 먹으러 가자!" 라고 말했다.

"뭐? 여기 도넛도 팔아?"

"맛있겠어! 맛있겠어!"

소니는 신이나 아까부터 '공항이야? 공항좋아!'를 외치고 있었다.

"여기가 공항이야. 공항은 국제공항과 국내공항이 있는데 우린 국제 공항에 있어. 엄마가 비행기표도 받고....여러가지 절차를 마칠테니 엄마 옆에 가만히 있어라."

"그건 기본이죠!"

그리고 비행기표가 출력되자,

"자 잃어버리면 안돼."

"나도! 나도!"

"소니는 안돼. 아직...조금 어리잖아."

"나, 안 잃어버릴래! 나도!"

"안돼."

"우앵!"

잠시 후,

"잃어버리면 안된다. 그럼 해외여행 못가."

소니의 고집이 이겨 버렸다.

"휴, 그럼 출발할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가고 싶은데가 있니?"

소니가 먼저 말했다.

"놀이동산!"

"소니야, 놀이동산은 공항에 없어."

유니가 엄마대신 답했다.

"어....."

난 진짜진짜 큰 용기를 내어 말했다.

"분식집...."

"그래, 가자."

"여기 있구나."

"아니, 엄마는 그렇다 치고 왜 유니 언니가 리드하는 거야?"

하니는 유니 언니가 좀 못마땅했다.

"엄마, 왜 언니가 주도하는 거야?"

"어, 언니가 잼버리 회원이라 공항을 많이 가 봤거든. 그래서 알려주는 거지. 주도가 아니라."

하니는 분식집을 보고 좀 놀랐다. 그냥 실내 포장마차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분식집의 규모가 하니의 생각보단 컸다. 하나의 식당이었다. 하니가 라면을 정신없이 먹으며 말했다.

"공항이 내 생각보다 시설이 좋아."

언니 유니가 떡볶이를 먹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하니는 뭔가 생각난 듯 말했다.

"어....나 처음 가보는 티 많이 났어?"

유니가 웃으며 말했다.

"응!"

"뭐?"

"(대충 티격태격 하는 소리)"

하니네 가족은 다 먹고 비행기를 타러 갔다. 수화물을 붙이고 검색대를 통과하려고 긴 줄을 섰다.

"자 소지품 바구니에 넣으시구요, 이쪽으로 오세요." 경찰같은 사람들이 바쁘게 사람들을 통과시키고 있었다.

삐! 삐!

몸에 숨긴 게 없는지 검사하는 과정에서 요란한 경고음이 울렸다. 하니의 몸이었다.

"엄마 몰래 숨긴게 있니, 하니야?"

"없어요...."

그때 검색요원이 말했다.

"어머님, 위험한 건 아니고요, 가위요."

"그, 그거 가져가면 안되는 거에요?....."

하니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 다 그런건 아니고, 일정 길이를 넘으면," 검색요원은 자를 꺼내들어 길이를 쟀다.

"기내에 가져가셔도 됩니다."

"휴!"

그렇게 검사를 끝내고 가는 중, 하니가 물었다.

"기내가 뭐야?"

"나도! 나도! 궁금해!"

"어, 기내는 비행기 안이라는 뜻이야."

"언니! 다시봤어!"

"봤어! 다시!"

"뭐? 윤석이!"

그렇게 조금 뒤 공항버스를 타고....

"엄마, 비행기로 가는 거 아냐?"

"이게 비행기까지 가는 버스란다."

하니네 가족은 비행기에 올랐다.

"우아....여기가 짐 넣는데? 엄마 우리자리 어디에요?"

하니는 처음 본 비행기 내부가 신기했다.

"짐! 어디에요!"

"쉿!"

"여기가 우리 자리야."

조금 뒤,

"엄마, 왜 안 출발해요?"

지겨워진 하니가 말했다.

"언제가!"

소니도 짜증을 냈다.

그때!

"Fellow passengers, the plane is leaving in a moment. All passengers are requested to goto the bathroom in advance and to act calmly incase of an emergency."

현란한 영어다.

"무슨 뜻이야? 엄마."

하니네 가족은 하니의 질문으로 당황했다.

"그건..."

"승객 여러분, 비행기가 잠시 후 출발합니다. 승객 여러분은 화장실을 미리 다녀와주시고 비상시에는 침착하게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하!"

"휴!"

"어?"

"비행기가 움직여!"

"와아!"

"여행시작인데!"

"어, 엄마...근데 점점 빨라져..."

비행기의 속도가 급상승했다.

하니와 소니는 엄청난 속도감에 놀랐다.

"롤러코스터다!"

유니는 신난 표정이었다.

"와! 하늘!"

비행기는....떠올랐다.

"엄마, 원래 달리지 않고 바로 위로 올라가는 거 아냐?"

"킥킥, 그러면 이거보다 백배는 무서울걸."

유니가 대신 대답했다.

비행기가 높이 떠오르자,

"Passengers, we are in the air. You are permitted to unfasten your seat belts and go to the bathroom."

"또 무슨...."

"승객 여러분, 상공에 떠올랐습니다. 안전벨트 푸는 것과 화장실 가는 것이 허용됩니다."

비행기가 상공에 떠오르자 창가에 있던 하니가 밑을 보았다.

"와! 환상적이야!"

"어디? 어디?"

소니도 창밖을 보고 환소성을 질렀다.

"레고 블록 같지?"

유니가 신난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게 한 시간 뒤,

"In - Flight meal."

"뭐에요? 뭔가 영어가 맛깔나는데."

"기내식입니다."

"그래서 맛깔나게 들렸구나!"

"오버는 이제그만!"

유니가 킥킥거리며 말했다.

"치, 이게 오버야?"

"어, 기내식이구나!"

"찐짜? 엄마"

소니가 눈을 반짝였다.

"스테이크를 드시겠습니까? 비빔밥을 드시겠습니까?"

승무원이 말했다.

"엄마와 소니는 비빔밥을 먹을게. 유니와 하니는 각자 결정해."

엄마가 말했다.

"난 스테이크"

둘이 동시에 말했다.

"둘이 마음이 통했구나."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아마 돌아올 때 우리 둘이 동시에 비빔밥을 외칠거야."

유니가 말했다.

"언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

하니가 궁금한 듯 물었다.

"경험해 봤으니까."

몇시간 뒤,

'으아악! 지겨워!'

하니는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했다.

아까는 풍경이라도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망망대해였다.

"언니?"

"하하하, 어? 거길 왜가!"

"언니!"

하니는 언니의 이어폰을 빼버렸다.

"앗! 왜?"

"뭐야? 비행기 모드로 하면 인터넷 안되지않아?"

"아! 그거! 네 앞에 책상같은게 있지? 거기 위에 모니터로 볼 수 있어."

"진작 말하지!"

하니는 재빨리 겨울왕국2를 찾아서 클릭했다.

"히히, 재밌어!"

하지만 즐거운 것도 1시간 48분이었다.

"으앙! 어떡해!"

"다른 거 보면 되잖아."

유니가 말했다.

"내가 아는 영화는 이게 다란 말이야."

"얘들아, 9시다. 자자."

잡지를 읽던 엄마가 말했다.

하니는 잠을 청하지 못하고 잡지를 넘기고 있었다.

"언니, 잠이 안와."

"아옹, 그럼 눈만 감아. 왜 사람을 깨우고 난리야.. 참."

"언니이"

새벽 1시,

"언니, 어? 일어나 주면 안돼?"

유니는 못들은 척 잠에 빠져들었다.

"힝, 소니야. 자?"

소니는 계속 자고 있었다.

"엄마."

"어? 하니야?"

엄마가 잠에서 깼을 때 하니는 꿈속나라의 문을 열었다.

아침 7시,

"어, 언니? 아옹."

"일어났어?"

"나 잤어?"

"응, 다섯시에 일어났는데 네가 쿨쿨하고 있더라."

"하니야, 안 졸리니?"

엄마가 어느샌가 깨서 말했다.

"응, 근데 약간 하품이....하암~"

"새벽 1시에 엄마 깨웠잖아. 근데 너 자고 있더라. 그러니까 너 여섯시간 잔거야." 유니가 말했다.

"언니가 어떻게 알아?"

"언니도 깨웠잖아."

"안 깼잖아."

"깼어, 근데 자는 척 한거지."

"뭐?"

소니는 여전히 꿈나라를 헤매고 있었다.

"Passengers, the plane will land shortly. Passengers are requested to go to the bathroom in advance and prepare for landing by fastening seat belts."

"뭐야? 뭔가 좋은 소식 같아."

유니가 잽싸게 말했다.

"이 정도는 언니가 중1때 배웠어!"

"정말?"

"뭐냐면...."

"승객 여러분, 비행기가 잠시 후 착륙합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화장실을 미리 다녀와 주시고, 안전벨트를 매주시는 등 착륙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이야."

"잘난척은."

"뭐?"

그때 소니가 일어났다.

"으음, 엄마....누나들...."

그때,

"착륙한다!"

"뭐? 그 속도감을 또 느껴야해?"
"롤러코스너! 롤러코스터!"
"까아!"

하니 가족은 공항에서 수화물을 찾아...
"언니, 소니야, 누가 먼저 찾는지 시합 어때?"
"좋지!"
"그럼 소니가 제일 불리해!"
"소니, 넌 맨날 시합만 하면 그 소리야."
잠시 후,
"소니가 이겼다! 꿀땅콩 사줘!"

하니네 가족은 공항을 나왔다.
"동생들아, 처음으로 비행기 탄 소감이 어때?"
유니가 물었다.
"재밌어! 재밌어!"
"엄마, 언니, 소니야! 앞으로 펼쳐질 미국 여행도 기대되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탄 것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애."

첫걸음

장려상 | 황서준

오늘도 또 실패했다
형과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비행기 모터를 바꾸어보니
다행히 작동이 되었다

다음날 우리는 비행기를 다시 타고
추운 하늘을 날기 시작했지만
바람이 세게 불어서
추락할 뻔 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날기로 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았다
이번에는 추락하지 않고
넓은 하늘을 보았다

비록 짧은 12초였지만
결국 무사히 착륙했다

우리는 날았다
인류의 하늘로 향한 첫걸음이었다

비행기에서 시작된 여행

장려상 | 황호진

코로나가 끝나가는 무렵
아주 오랜만에 비행기를 탔다

자리에 앉으니 나는 벌써
해변에서 헤엄을 치고 있었다
저녁에는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밤엔 밤바다에서 별을 바라보았다

전통음식점과 간식들을 먹기도 하고
더듬더듬 그 나라 아이들과 대화도 했다
친구들에게 줄 작은 선물들을 고르거나
집에서 먹을 말린 과일들을 사는 나

아직 비행기는 하늘에 떠 있지만
나의 여행은 벌써 시작되었다

제9회
항공문학상
수상작품집

제9회 항공문학상 수상작품집

발행일 2023년 10월 30일

펴낸곳 한국항공협회
www.airtransport.or.kr
Tel. 02. 2669. 8700 Fax. 02. 2669. 5590

인 쇄 우리디자인기획
Tel. 053.651.5100